현대불교

제 77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음력 2월 2일 · 불기 2554년 · 주간)





맑고 향기롭게 떠난 법정 스님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

'물소리 바람소리'와 함께 '홀로 사는 즐거움'을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대중에게 전했던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던 스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

<무소유>의 법정 스님(사진)이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12일 송광사로 이운된 스님의 법구는 13일 11시 송광사 다비장에서 본처로 환원됐다.

법정 스님의 의식은 임종 순간까지도 또렷했다. 입적 전날 밤 스님은 덕조 · 덕인 · 덕현 스님 등 상좌에게 "어디서든지 내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실천은 "길상사에서 단 하룻밤도 주무신 적이 없다"는 진화 스님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길상사를 시주 받으면서도 스님은 '회주'라는 소임조차 부담스러워했다. 상좌에게 길상사를 맡기고는 송광사 불일암에서 머물렀을 만큼 법정 스님은 (시주 받은) 길상사가 내 것이라는 마음이 털오라기 만큼도 없었다. 스님에게 길상사는 오히려 짐이었다.

소유에 구속되기 싫었던 대자유인은 받고도 받지 않았던 도량 길상사에서 11일 오후 1시 51분 원적에 들었다.

무소유와 소유의 차별을 여읜 대자유인이었던 법정 스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11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대자유인의 가시는 길에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추서했다.

관련기사 2 · 3 · 14 · 15면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다시 출가 수행자 되고 싶다"

'미리 쓰는 유서' 통해 "장례식 치르지 말라" 당부

생전에 살았던 모습대로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도 단출했다.

3일장이다. 분향소엔 흔한 꽃 한송이 없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 마련된 분향소는 흰 벽을 배경으로 영정과 촛불, 향로만 놓여 있다. 으레 만들어지는 장의위원회라는 조직도 없다. 장례의식을 하지 말라는 법정 스님의 뜻에 따라 다비준비위원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법정 스님은 1976년 초판 1쇄 발행 후 최근까지 164쇄를 펴낸 <무소유>에서 '미리 쓰는 유서'를 남겼으며, 열반 하루 전날 후학들에게 이를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미리 쓰는 유서'에서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라며 장례식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비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사리를 수습하는 일은 극구 말렸다.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茶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법정 스님은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정성운 기자

법정 스님의 '미리 쓰는 유서'

<앞 부분 생략> 죽게 되면 말없이 죽을 것이지 무슨 구구한 이유가 따를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레 죽는 사람이라면 의견서(유서)라도 첨부되어야겠지만, 제 명대로 살 만치 살다가 가는 사람에겐 그 변명이 소용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말이란 늘 오해를 동반하게 마련이므로, 유서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유서는 남기는 글이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白書)'가 되어야 한다. 이 다음 세상에서는 다시는 더 이런 후회스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살아생전에 받았던 배신이나 모함도 그때 한 인간의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다.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을 것이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 관념이다.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저녁으로 "신문이오" 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 버린 육신은 보기 흉하고 이웃에게 짐이 될 것이므로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 주었으면 고맙겠다. 그것은 내가 벗어 버린 헌옷이니까. 물론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茶毘)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이다. … 그런 나라에는 귀찮은 입국사증 것도 필요 없을 것이므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내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누가 뭐라 한대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

"불교 이미지 관리 전략 수립해야"

권정만 교수, 대학생들 불교 비과학적으로 인식

대학생들은 불교를 '전통적이고 예술적'이지만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권정만 충남대 외래교수는 최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가 펴낸 <불교학리뷰> 제6호에서 기고논문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권 외래교수는 연구를 토대로 "불교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교세 확장을 위한 방법보다는 불교 고유의 특징을 가미한 차별화된 전략을 긍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비관계성 및 비과학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외래교수는 금강대, 충남대, 청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불교의 특성용어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이 높은 단어로는 '겸손하다 · 검소하다 · 건전하다 · 깨끗하다 · 신중하다 · 자제력이 있다 · 자비롭다 · 부지런하다 · 예술적이다 · 역사가 깊다 · 전통적이다 · 한국적이다'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있던 반면,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는 '사교적이다 · 재미있다 · 사회적이다 · 민주적이다 · 생산적이다 · 과학적이다 ·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권정만 외래교수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불교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찰 등 가시적인 것과 신도 · 스님들에 갖는 기대감의 이미지가 매우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외래교수는 "특정 종교가 갖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종교에 대한 수용여부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불교 이미지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등 처리

조계종 183회 임시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가 3월 8~11일 제183회 임시종회를 개최했다. 12일까지 회기였던 회의는 법정 스님 원적으로 하루 앞당겨 폐회됐다.

회의에서는 △사찰부동산관리법 제정 △2009년 예산 결산 및 2010년 추경예산 승인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지정 승인 △동국대 감사 추천 동의 △승가학원 이사 추천 동의 △원로의원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직영 · 특별분담금사찰 결산검사건 등이 처리됐다.

회기 전 쟁점사안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동국대 이사 선임 동의 △선본사 직영사찰 해지 승인 △총무부원장제 신설안은 부결됐다. 기타 종법 제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이월됐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폐회선언에서 "이번 회기 이월 안건은 5월이나 6월 경 종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자"고 말했다.

제184차 임시종회에서는 승려사유재산의 종단 출연과 관련한 승려법 개정안 등 종법제 ·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2 · 3 · 14 · 15 -법정 스님 원적 ▶7 인터뷰-퇴휴 스님 ▶9 현장-장애인 제과제빵 훈련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셜타올



■삼베웨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웨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웨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 (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 · 항균 · 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웨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스님과 같은 시대에 살아 행복합니다”

법정 스님 입적부터 송광사 이운까지의 현장

3월 12일 오전 11시 43분. 법정 스님이 길상사를 영원히 떠났다. 생전 단 하루도 길상사에 머물지 않았던 스님은 11일 입적 후 딱 하룻밤을 이곳에서 보냈다. 스님은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다.

스님이 11일 오전 12시 50분 병원에서 도착한 이후 길상사를 떠날 때까지 만 하루, 그 시간은 매사에 간단명료했던 스님의 모습 그대로 였다.

법정 스님의 갑작스런 입적 소식에 송광사 문중스님들은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다. 3~4년 전부터 폐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 순천에서 급히 올라온 스님들은 행지실(行持室)을 찾았다.



법정 스님의 법구는 3월 12일 길상사 행지실에서 순천 송광사로 옮겨졌다.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입관을 하지 않고 운구가 진행됐다. 10명의 상좌들이 스님을 이운하고 있다.

행지실에 모셔진 법정 스님의 법구는 유훈대로 수의 대신 가사로, 관 대신 평상 위에 모셔졌다. 조문객들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다비식이 있기 전까지 길상사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장례식 대신 순천 송광사, 불일암, 서울 길상사에 분향소만 마련됐다. 조화, 조문, 부의금도 없었다.

조문을 하고 나온 인경 스님(명상상담연구원 원장)은 “법정 스님을 20대 때 처음 뵈었다. 스님은 후배들에게도 늘 몸소 실천하는 모습으로 삶의 표상같은 분이었다”며 “<무소유>로 널리 알려졌지만 <숫타니타파>등 불교초기 경전을 대중에게 알린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입적 4시간 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교역직 및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길상사를 찾았다.

이어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등 교계 원로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관 스님은 “법정 스님은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영원히 국민을 이끌어주고 채찍질을 가해주길 바란다”며 조의를 표했다.

정계에서도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고흥길 문화부장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방문했다.

11일 저녁 8시쯤 방문한 박근혜 의원은 “스님의 글과 보도가 나오면 빼놓지 않고 읽었다”며 “인생의 지침이 되는 큰 가르침을 주셨다”고 추모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지도자였다. 무소유의 큰 가르침으로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며 애도했다. 김용옥 교수(순천대)는 “무소유의 이상의 큰 가르침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종교인들과 진각종, 태고종 등 종교와 종단을 초월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이진여 원불교 평창교당 주임교무는 “스님의 법문은 산 속에 파묻힌 말이 아니었다. 유행타지 않는 고전이었다. 나의 정신 · 수행의 멘토다”라며 “같은 수행자로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침례교회)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 스님의 글은 너무 좋다. 욕심으로 가득찬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최고의 책들이었다”고 말했다.

천주교성북동성당에서 온 한 사제는 “스님의 삶은 단순했다. 맑고 깨끗하게 살았던 수행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강조했다.

이에 앞선 9일, 삼성그룹 홍라희 여사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던 스님을 문병하고 병원비 6200만원을 대납했다.

전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소 설치가 잇따랐다. 서울 정토회관, 대전 백제불교회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열린 법당, 프랑스 파리 길상사, 뉴욕 사암연합회 등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다비 후 스님의 초재(4월 17일)에서 6재까지는 서울 길상사에서 봉행된다. 단, 49재(4월 28일)는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된다. 이에 앞서 길상사에서는 3월 21일 오전 10시 일요법회를 추모법회로 봉행한다.

스님은 늘 입던 가사에 쌓여 길상사를 사뿐히 떠났다. 중생들은 스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스님의 운구를 따라가 보지만 스님은 잡히지 않았다.

글=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무소유’에 감명 받아 세워진 길상사

짧은 역사 속 애틋한 사연 담겨
김영한 여사 법명따와 이름지어

순천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는 서울 성북동 삼각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길상사의 역사는 매우 짧으면서도 그 설립계기가 특이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길상사는 1960~1980년대 말까지 최고급 요정의 하나였던 ‘대원각’ 자리에 세워진 사찰이다.

대원각을 운영하던 김영한 여사는 1995년 7000여 평의 대지와 건물 40여동 등 1000억원 대의 부동산을 법정스님에게 시주했고, 스님은 시주 받은 요정을 길상사로 탈바꿈시켰다.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진 길상사의 내부는 숲속 미로를 연상케 하듯 선방과 요사채들이 숨어있다.

이 곳에는 <여승>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으로 유명한 시인 백석과 그의 연인이었던 자야(子夜) 김영한의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때 ‘진향(眞香)’이라는 기생이었던 김영한 여사(법명 길상화, 1915~1999)는 함흥의 회식자리에서 당시 함흥 영생여고 교사를 하고 있던 백석을 만났다. 이후 둘은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됐지만 백석의 부모는 기생인 김 여사와의 혼인을 반대했다. 1938년 백석은 만주로, 김영한은 서울에서 떨어져 지내게 되고 둘은 한국전쟁으로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됐다.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한 길상사 본법당 전경. 기존의 ‘대원각’을 그대로 두고 법당으로 사용해 일반 사찰의 법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영한 여사는 백석을 가슴속에 품은 채, 1951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청암장을 인수해 대원각으로 개명했다. 김 여사는 대원각을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치’의 산실로도 유명한 국내 3대 요정 중 하나로 키웠다.

김 여사는 노년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 받아 스님을 친견한 뒤 회향을 발원했다. 김영한 여사는 법정 스님에게 당시 시가 1000억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하겠으니 절로 만들어주기를 청했다. 10년에 걸쳐 사양하던 법정 스님에게 김 여사는 거듭 시주를 받아주기를 요청, 1995년 그 뜻을 이뤘다.

1997년 12월 14일 요정 대원각이 길상사가 되던 날, 김영한 여사는 법정 스님에게서 염주 하나와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만을 받았다. 길상사는 그녀의 법명에서 따온 것이다.

길상사 경내에는 극락전, 범종각, 지장전, 관세음보살석상, 길상화불자공덕비 등이 배치돼 있다. 시민운동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도량 길상사는 해마다 5월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나은 기자

▌법정 스님의 말씀들

“많이 가진 것, 그만큼 많이 얽힌 것”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무소유>中

▲우리 곁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신비인가. 곱고 향기로운 우주가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잠잠하던 숲에서 새들이 맑은 목청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들 삶에 물기를 보태주는 가락이다.<산방한담>中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물소리 바람소리>中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산에는 꽃이 피네>中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홀로 사는 즐거움>中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中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오두막 편지>中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中

정리= 이상언 기자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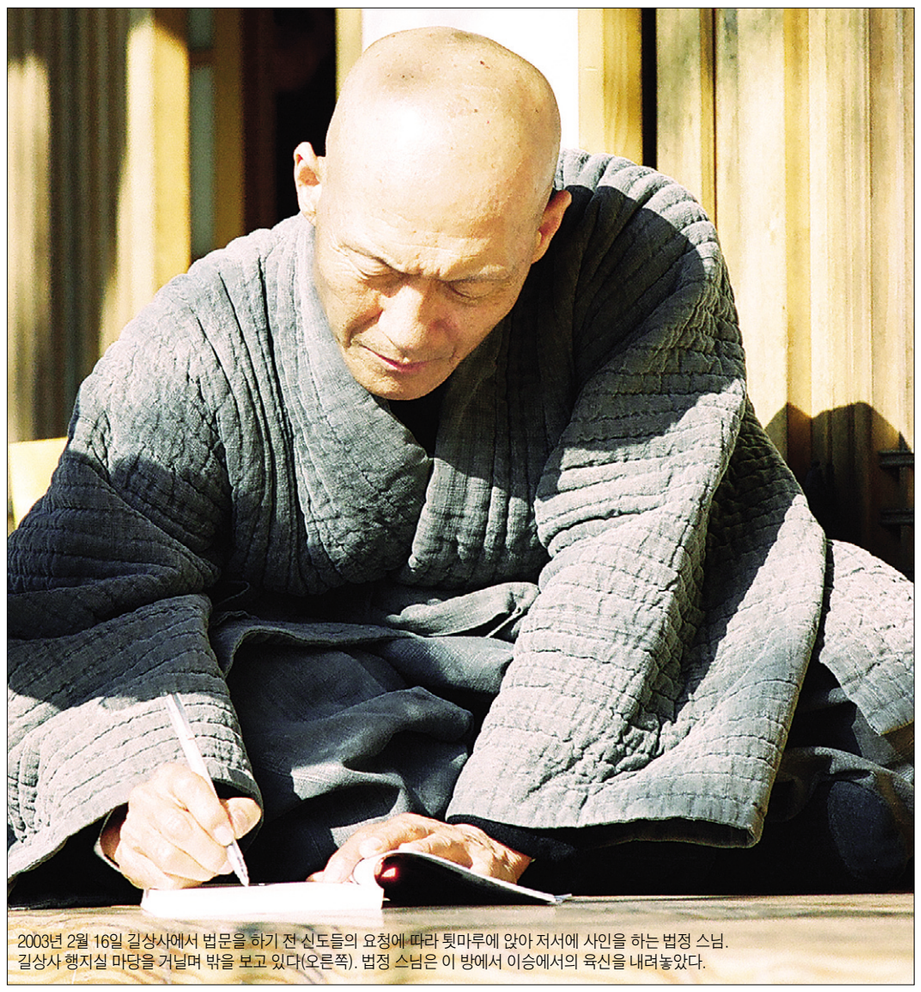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 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 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 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 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 9,500원


2003년 2월 16일 길상사에서 법문을 하기 전 신도들의 요청에 따라 툇마루에 앉아 저서에 사인을 하는 법정 스님. 길상사 행지실 마당을 거닐며 밖을 보고 있다(오른쪽). 법정 스님은 이 방에서 이승에서의 육신을 내려놓았다.



법정 스님을 생각하며…

"뉘신데 남의 얼굴을 허락도 없이 마구 찍는 거요?"

몇 해 전, 법회에서 스님이 신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스님은 방으로 들어가셨다.

법회가 시작되고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동안에도 나는 사진을 또 찍어야 했다. 이번엔 아예 법당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와 셔터 소리가 법문을 방해했던 것이다. 나갈 수도,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앉아있어야 했다. 물론 법문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003년 2월 16일 길상사에서였다.

그리고 2010년 3월 11일, 스님이 입적하셨다. 우연히 보게 된 법문집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에 그 날의 법문이 실려 있었다.

"한밤중에 기침이 잠을 깨우면, 전에는 그것을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침이 아니면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불러 깨우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야 그 날의 법문을 들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법정 스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3월 11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항상 "불필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니, 갖지도 말아야 한다"며 '무소유'를 강조했던 스님의 말들은, 이상하게도 사람들 가슴에 '소유'하고 싶은 말들로 자리 잡고 있다.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일기일회> <아름다운 마무리> 등 많은 책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법정 스님. 그런 법정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은 그간 스님을 지탱했던 '도반'같은 책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강원도 산중 오두막에서 홀로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는 스님은, 많은 저서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감로수를 내렸지만, 본인 또한 많은 책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항상 법정 스님은 '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책은 그런 법정 스님이 추천하는 꼭 읽어야할 50권의 도서 목록들로 구성돼 있다.

소개된 책들은 출판사가 2년여에 걸쳐 스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선정했다. 스님의 법문과 산문, 편지글에서 언급한 책들도 함께 추려냈다. 책에 실린 도서목록들은 종교의 경전부터 문학작품, 환경서적까지 각양각색이다. 스님의 독서량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출가를 결심한 뒤, 집을 떠날 때 두고 와야 할 책들을 고르느라 사흘밤을 꼬박 새웠을 정도로, 책은 끊기 힘든 인연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스님의 책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

"우리가 책을 대할 때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자신을 읽는 일로 이어져야 하고, 잠든 영혼을 일깨워 보다 값진 삶으로 눈을 떠야 한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펼쳐 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환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책까지도 읽을 수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스님은 "책에 읽히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당부했다. 책을 읽을 때의 마음자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책 속에 등장하는 책들은 스님의 독서기록이다. 스님이 골라주신 이 책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짐작하게 한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은 후, 소개된 50권의 책을 모조리 읽고 싶은 충동이 들 것이다. 혹여나 스님 같은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법정 스님 같은 삶을 그대로 따라 살진 못하더라도, 책들을 통해 스님의 삶의 발자취는 어렴풋 느낄 수 있다. 스님을 그립게 만드는 책이다.

이은정 기자

△월든/ 헬리 데이빗 소로우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장 피에르와 라셀 카르티에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무탄트 메시지/ 말로 모건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히 △꾸삐 씨의 행복 여행/프랑수아 를로르 △나무를 심은 사람/장 지오노 △끝없는 여정/사티쉬 쿠마르 △행복의 정복/버트런드 러셀 △슬로 라이프/쓰지 신이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류시화 △핀드혼 농장 이야기/핀드혼 공동체 △비노바 바베/칼린디 △여기에 사는 즐거움/야마오 산세이 △걷기 예찬/다비드 르 브르통 △가난하지만 행복하게/윤구병 △그리스인 조르바/니코스 카잔차키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승려와 철학자/장 프랑수아 르벨 · 마티유 리카르 △내일로부터 80킬로미터/이레이그루크 △짚 한 오라기의 혁명/후쿠오카 마사노부 △닥터 노먼 베쑨/테드 알렌 · 시드니 고든 △나락 한 알 속의 우주/장일순 △단순한 기쁨/아베 피에르 △아름다운 지구인 플래닛 워커/존 프란시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다산 정약용 △식물의 정신세계/피터 톰킨스 · 크리스토퍼 버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헬렌 니어링 △할아버지의 기도/레이첼 나오미 레멘 △작은 것이 아름답다/E.F. 슈마허 △인간의 대지/생텍쥐페리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죽음의 수용소에서/빅터 프랭클 △나무를 안아 보았나요/조안 말루프 △용서/달라이 라마 · 빅터 챈 △사막별 여행자/무사 앗사리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김태정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공유지의 비극/개릿 하딘 △숨어 사는 즐거움/허균 △암베드카르/디완 챤드 아히르 △풍요로운 가난/엠마뉘엘 수녀 △볼타 석가모니/와타나베 쇼료 △가비오따쓰/앨런 와이즈먼 △육식의 종말/제레미 리프킨 △반 고흐, 영혼의 편지/빈센트 반 고흐 △녹색평론/격월간지 △희망의 이유/제인 구달 △NOW-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에크하르트 톨레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다치바나 다카시

추모사

종교 초월한 추모 물결 '넘실' … 조계종 대종사 법계 추서

법정 스님의 원적에 종교계 예술계 정치계 인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스님의 분향소가 설치된 길상사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1일 법정 스님의 분향소가 있는 길상사를 찾기에 앞서 스님을 대종사 법계를 추서했다.

스님은 애도문에서 "법정 스님은 그동안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 온 큰 스승이셨다"며 "또한 스님은 일생동안 수많은 저서를 남기시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셨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가톨릭 정진석 추기경은 애도문을 통해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법정 스님의 원적은 불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슬픔"이라고 말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는 애도문에서 "종단 · 사회에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참스승 법정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며 "경쟁과 폭력 그리고 소유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물신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때에 스님이 설파한 무소유 정신과 조화, 포용, 자비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승가회(대표 퇴휴)는 "스님이 남긴 무소유의 가르침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정신적 좌표이며,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든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정화하는 시대정신이었다"라며 "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중생의 이고득락을 염원하며 청빈과 무소유의 가르침을 내려주신 큰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자"고 밝혔다.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길상사를 찾은 것과 별도로 정치권도 논평을 통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립과 갈등, 탐욕이 팽배한 세상에서 스님이 남긴 무소유와 화합의 정신은 맑은 정화수로 흐를 것"이라며 "큰어르신을 보내드리는 마음 아쉽고 슬프지만 풍경소리 같은 맑은 여운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 화합, 공존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님은 이 시대 참 현인이었고, 혹독한 독재의 시대에는 몸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실천자였다. 스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해 김수환 추기경님에 이어 올해에는 법정 스님까지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허망하다"며 "스님의 말씀에 따라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법정 스님 측에 조전을 보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존경하는 법정 큰스님의 원적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살아생전 빈 몸 그대로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다. 자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삶 자체로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스님의 대표작인 <무소유>를 책이 닳을 정도로 읽었고 해외 순방이나 휴가를 갈 때도 항상 법정 스님의 수필집을 지녔다고 한다.

조동섭 기자





불탑의 나라, 황금의 땅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초특가!! 단 4회
신청마감
4월 23일

출발일 : 5월 24일, 28일 (2회) / 6월 4일, 15일 (2회)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양곤 - 6일 - 135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 140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몽유와 / 헤호 - 7일 - 145만원

특전
1. 국제선 및 국내선 왕복항공료 포함. 2. 전일정 특급호텔 및 식사포함. 3. 1억원 여행자 보험 포함
4. 각종 항공세 포함 (국제선 및 현지항공세 $10, 관광진흥개발기금, 인천공항세, 유료할증료) 5. 일정표상에 명시된 파고다 입장료 포함.
6. 미얀마 비자비용 (25,000원)
7. 불포함 외에는 추가비용 없습니다. (불포함 : 개인적인 제반사항 및 생수비용, 가이드+기사팁)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 북경 / 백두산 6일 -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씨엠립 6일 - 캄보디아 씨엠립 5일 - 방콕 / 파타야 5일 - 대만 4일

2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불교성지전문 예스긋여행사 대표전화 02)365-7747



승가교육 개선 위해 종단 역량 결집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 "미래 비전 제시"

'승가교육' 개선을 위한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발족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3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을 봉행했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승가교육진흥사업과 승가교육 기금 운용, 승가교육기관 설립 지원, 승가교육 교역자 지원, 장학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종정 법전 스님의 "도제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종책을 수립하라"는 신년교시 이후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승가교육개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발족이 시작됐다. 이어 1월 28일 종무회의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하면서 제도적 근거까지 갖췄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부위원장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맡았다. 종단 수장인 자승 스님이 승가교육진흥을 위한 과정을 총 지휘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 등은 주무기관인 교육원이 담당한다.

총무원과 교육원의 유기적인 협의를 위해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원담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정묵 스님, 교육원 교육위원장 법안 스님을 임명했다.

또,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봉선사 주지 명진 스님, 중앙종회의원 학담 스님,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교육위원), 중앙종회의원 운달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고시위원) 등을 위촉직 위원에 위촉해 기금 조성과 종책 수립 및 제정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을 도모했다.

하지만 일선 강원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는 일부 강원 통합 등을 언급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체제에 대한 일선 강원의 반감이 적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행사에서 종정스님은 밀운 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이 대독한 교시에서 "불법의 흥망성쇠는 도제불사의 공력에 좌우된다"며 "교육은 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작불사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3월 10일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승가교육 진흥을 발원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불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가장 큰 기초공사"라며 "이 발족식으로 종단의 인재불사가 한층 더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축사에서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발족하는) 오늘은 승가교육에 대한 종도의 여망을 다시한번 발현하는 자리이다. 사부대중의 의지가 한결같은 교육불사의 원력으로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여 사부대중은 송원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르게 구현하는 승가교육을 위해 신심과 원력을 다하겠다"고 발원했다.

행사에서는 종정 스님이 금일봉을 전한 것을 비롯해 원로의원 천운 스님 1000만원,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500만원,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500만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1000만원,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각 2000만원,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1000만원,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 500만원,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이 5000만원의 승가교육진흥기금을 전달했다.

또, 해남 미황사 금강 스님은 최근 출간한 <땅끝 마을 아름다운 우리절>를 비롯해 이후 출간되는 저서의 인세를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약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예비비 1억원과 교육불사특별기금 2억원 등 4억 6000만원을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출연했다.

현응 스님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승가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신촌 봉원사 소유권 확정

10일 협약식, 선암사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이 서명 후 합의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 신촌 봉원사를 둘러싼 조계종과 태고종간의 분규를 종식하는 합의서 서명식이 3월 10일 봉행됐다.

협약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봉원사 특위위원장 성직 스님과 일운 스님,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과 일운 스님 등 양종단 주요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인사말과 협약서 서명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1962년 12월 14일 등록 이후 64년 자운 스님을 초임주지로 16명의 주지 스님들이 부임했다. 하지만 한차례도 취임식을 가진 바 없어 안타까웠다. 그동안 애써준 많은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화합의 정신으로 더욱 불교중흥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계종과 태고종이 한마음을 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그동안 마무리 되지 못한 사찰들의 불교법난 상처가 치유되는데 마음을 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태고종 태고총림이자 조계종 제20교구본사인 순천 선암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기자

한마음선원 아이티 구호기금 손길



한마음선원은 3월 11일 아름다운동행에 아이티 구호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마음선원 재무 혜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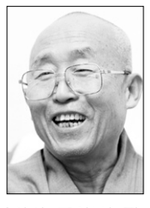
불교계 기부재단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전달된 아이티구호기금이 10억원을 넘어섰다.

한마음선원(선원장 대행)이 3월 12일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조계사(주지 세민)이 2차 아이티기금으로 2045만 1734원을 기부했다. 또,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3267만 6860원, 오산화성사암연합회가 500만원,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가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한편, 신륵사(주지 세영)는 11일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상언 기자

월운 스님, 東大 명예역경원장 위촉



2008년 12월 동국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됐던 역경보살 월운 스님(前 동국역경원장, 봉선사 조실)이 명예역경원장에 위촉됐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3월 3일 봉선사 다경실에서 월운 스님을 예방해 '동국역경원 명예원장' 위촉패를 전달하고, 후임 역경원장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

정련 스님은 "한국불교 역경사업에 국보적인 존재이며 '역경보살'인 월운 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하다"며 동국대의 일방해임으로 역경원장 퇴임식조차 제대로 봉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스님은 "(뒤늦게나마) 동국대가 스님을 동국역경원 명예원장에 추대했다. 평생 역경사업에 헌신하셨지만 남은 생도 명예역경원장으로 동국역경원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월운 스님은 "이사장 스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후임 역경원장 취임에 즈음해 동국역경후원회의 기금 1억5000만원을 동국대에 지정기부(역경불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스님은 후임 역경원장으로 무비 스님을 추천했다.

한편, 동국대 관계자는 "신임 역경원장 취임식에 월운 스님을 모시고 이 · 취임식을 겸한 스님의 퇴임식을 여법하게 거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특정 후보 단일화 선언 논란

동화사 원로스님들, 주지후보 법광 스님 추대

4월 예정된 대구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제9교구 내 원로스님들이 특정 후보 단일화를 선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등 원로급 스님 10여 명은 3월 10일 대구 서봉사에서 '조계종 제9교구 원로 및 중진모임'을 개최하고, 유시문을 통해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을 동화사 주지 후보로 추대했다.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 감천사 무공 스님, 前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보광선원 조실 화산 스님, 관음사 원명 스님, 서봉사 경희 스님 등 원로스님들은 '경인년 동화사 주지선거에 즈음하여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하의 유시문에서 "동화사 주지선거에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후보로 법광 스님을 지명 · 의결한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조계종은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실시된 선거로 인한 병리와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제9교구는 3번의 주지선거에서 타 교구보다 폐해가 심해 지역승단은 크게 분열돼 있고 선거후유증도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로스님들은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4월 주지선거가 치러질 경우 예견되는 비불교적 · 반승가적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화합승단과 청정교구를 위해 동화사 새 주지를 경선 없이 산중고유방식으로 추대하길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화사는 이미 현 주지 허운 스님이 출마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몇몇 스님들도 주지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사찰음식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

사찰음식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효탄)는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사찰음식 순례-대전 · 충청편> 발간을 발표했다.

책은 전국사찰을 대상으로 사찰음식현황조사를 실시중인 문화부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조사는 대전 · 충청지역 조계종 223 곳의 사찰과, 440개 타종단 소속 사찰에 대한 전화,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책에는 137종의 사찰음식들이 선별돼 게재됐다.

또한 각 음식에 대한 명칭, 재료 및 분량, 조리방법 등 과 함께 간략한 사찰 정보도 수록됐다.

이은정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魚丈)스님 전통의식 강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대한불교 조계종 어장이신 동주원명 큰스님께서는 불교 전통의식의 보존, 계승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하여 전문의식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과정을 마친 스님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전 재 의식을 중심으로 월 2회 직강을 해 주십니다.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의내용 : 수륙재, 예수재, 영산재, 49재, 점안의식 등
⚜ 강의일시 :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 첫강의 : 2010년 3월 29일 (월)
⚜ 강의장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 1동 226 홍원사
⚜ 모집인원 : 00명
⚜ 연 락 처 : 02) 2658-3100, 010-3840-0624
(홈페이지 www.hongwonsa.org)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의식 보존 연구원

대한불교일월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및
총무원 만국사 미륵 산신 조성봉안 임원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교는 믿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에 본질에 있다. 부처님은 열반 시 自燈明 法燈明 이라고 하며 자신에 의지해서 살도록 강조했다. 이에 불문에 든 스님을 비롯한 불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구도의 자세를 견지하며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교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것이다. 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 대표되는 불교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傳法度生의 자세가 견지 되어야 한다.

부처님도 成道 후 40여 년간 호의호식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입은 체 길에서 風餐露宿 하며 중생들의 無明을 구하는데 전생을 바치었다.
부처님은 포교 길에 나서는데 둘이 가지 말고 한 사람씩 다녀라 할 정도로 시간과 공간을 절약 하도록 요구 하였다. 이제 세상은 세기가 바뀌어 21세기가 되었다. 부처님도 성도하신지 30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戰爭과 暴力 憎惡가 판치고 있으며 사람은 다 평등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의 현실화는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이에 우리 불자는 乾坤一擲 百尺竿頭에 놓인 세계의 위기를 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명상 그리고 포교의 정신을 심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된것이다.

본종 **大韓佛敎 日月宗**은 세계의 지구촌화에 발맞추어 불교의 근본이념과 사상을 세계인과 공유하는데 그 창립의 뜻이니 이로서 발기의 표로 삼는 바이다.
大韓佛敎 日月宗은 일치단결하여 불국정토를 실현하고 자비사상을 일상 생활화하여 봉사정신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정 관음사 석일하 대종사

총무원장 만국사 주지 대원
종무원장 천용사 주지 법 우
포교원장 대운사 주지 현 봉
문화국장 낙양사 주지 초 현
포교부장 수월사 주지 만 해
교육원장 금성원 주지 영 자
호법원장 불심사 주지 도 담
사회국장 미륵사 주지 대 성
호법부장 해민사 주지 해 도
재무부장 약명사 주지 무 오

※ 대승불교 사상의 전법포교 활동에 참여하여 뜻을 같이할 사암등록과 포교원을 개원할 스님은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 한 불 교 일 월 종

☞ 총무원 : 경북 영덕군 달산면 용평리 268번지 만국사
☎ 054)733-2259 / 010-9504-7259

쟁점마다 격론… 봉은사 직영사찰로

조계종 제183회 임시종회… 동대 이사후보 추천 · 부원장제 부결

조계종 중앙종회 제183회 임시종회가 3월 8~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16개 안건이 상정됐던 종회는 동대 이사후보 추천건으로 통도사 · 월정사 스님들이 회의장을 방문하고, 집행부가 총무분과위에서 반려된 봉은사 · 선본사건과 총무원 부원장제 등 집행부 핵심 추진안을 긴급 상정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쟁점 사안마다 격론이 오가며 회기 동안 계파간 힘겨루기를 거듭했던 종회는 법정 스님 원적으로 폐회됐다.

개회식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신임 직능대표 세영 · 보광 · 오심 · 정산 스님과 제13교구 쌍계사 이암 스님, 제14교구 범어사 무관 스님, 제19교구 화엄사 우석 스님이 의원선서를 하고 분과 배정을 받았다.

배정된 분과는 교육분과-세영 스님, 사회분과-이암 · 오심 스님, 법제분과-보광 · 무관 스님, 총무분과-정산 · 우석 스님이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부동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은 개회 전부터 종단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통도사와 월정사는 "문중이 배제된 계파 중심의 선출"이라고 비판하며 추천된 이사 후보 스님들의 사퇴와 종회차원의 반려를 촉구했다.

두 사중스님들은 종회 첫날부터 회의장을 방문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8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면담하고 사중의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동국대 이사 후보 ·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격론이 벌어졌다.

안건상정이 되기도 전에 월정사 종회의원 도안 스님은 "동대 설립의 최대 출연 사찰인 월정사가 이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추천안은 파행적"이라며 이사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통도사 종회의원 오심 스님도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출연사찰을 배려한 불문율이나 관습법이 무시됐다."며 전체의원 의사 타진을 제안했다.

반면에 무애 스님은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으로 반려 사유는 안 된다. 비밀투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이 결정된 후에도 후보 단일 투표와 후보별 개별 투표 방식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결국 안건은 개별 투표로 진행돼 종관위에서 추천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안이 모두 부결됐다. 통도사 영배 스님 후임 이사후보 추천건(정호 · 범해 스님)은 출석의원 75명 중 찬성 37표, 반대 38표로 부결됐다. 월정사 정념 스님 후임 이사후보 추천건(종호 · 선각 스님)도 찬성 27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상운 스님 후임으로 진화 · 대전 스님이, 진만 스님 후임으로 진만 · 영관 스님이 추천된 동국대 감사 후보 추천건과 승가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건은 종하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성문 · 원혜 스님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1일 긴급간담회를 소집하고 종회가 종관위 결의를 무시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건 부결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종헌 및 총무원법 등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반려된 것을 종회의원 20인 발의로 긴급상정했지만 안건은 11일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출석의원 60명 중 찬성 25표, 반대 35표로 부결됐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9일,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 반려됐던 직영사찰 지정 · 해지 등 재조정 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입장 속에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하는 안건은 표결에 부쳐져 출석의원 70명 중 찬성 45표 반대 21표로 가결됐다. 하지만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지하고 특별분담사찰로 전환하는 안은 69명이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58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사찰부동산관리법은 수정 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회는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으로 상정된 근일(고운사), 종진(해인사), 월탄(법주사), 암도(백양사), 성파(통도사), 정관(범어사) 스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중앙종회의원 종호 · 원경 · 장명 · 현조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본회의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3억1400만원, 특별회계 7억600만원이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2만 사부대중 동참 영산재 성료

태고종,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2010영산재(사진)'가 성대히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3월 11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2010영산재'를 개최했다. 현대화 · 대중화된 영산재를 시연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봉행된 행사에는 2만여 불자가 경기장 안팎을 가득 메우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행사인 영산재 관련 영상물 방영 등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영산재 시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법회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공연은 108명의 어산단에 의해 시연됐다. 시연 시간도 전통 영산재의 절반인 1시간 여로 단축돼 공연의 짜임새를 더하고, 대중의 지루함을 덜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봉행사에서 "11월 11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국가적인 대행사이다. 2010영산재는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염원을 모아 기원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주가 나와 한 뿌리요, 일체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국가의 어려움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183회 임시종회 무엇을 남겼나?

권력 균형 저울질… 계파 간 힘겨루기 확인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어느 한 계파로 권력의 무게가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공의를 거치지 않은 독단도 경계했다. 계파간 연대 속에 제33대 집행부를 출범시킨 안정과 화합을 해치는 것은 더더욱 반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183회 임시회는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지정 승인의 건과 선본사 특별분담사찰 전환 지정 동의의 건,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 등이 쟁점사안이었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후보 선출 직후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격론 끝에 투표를 거쳐 쟁점사안 중 첫 상정된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 동의의 건이 부결됐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공의를 수렴 않는 독단의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와 계파간 공조의 금가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면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스님들을 중심으로 "중앙종회가 일정 부분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는 그 역할을 중앙종회 스스로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있다.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의 건에서 특정 계파의 후보추천이 저지되자, 그 여파는 바로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로 미쳤다. 종회의원스님들은 총무원 부원장제 신설 역시 부결시켰다.

동국대 이사후보 동의안 부결에서 특정 계파가 저지된 것을 볼 때, 종회의원스님들이 총무원 부원장제를 현 총무원장제의 권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해 갈등의 소지를 막고자 부결시킨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과 선본사 특별분담금사찰 전환 건을 두고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의원스님들은 총무원이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해 강남 · 북 포교벨트를 구축하고 총무원 재정 건전화를 꾀하겠다는 주장은 수용했지만, 일각에서 특정본사와 연관된 선본사의 특별분담금사찰 전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종회는 공의 수렴을 중시하고, 종단 내 조성된 안정과 화합 기조 유지를 위한 종회의원스님들의 의지가 피력된 종회였다.

반면에 법정 스님 원적에 따라 조기 폐회했다고는 해도, 주경 스님 등이 발의한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삼보정재 수호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안건들은 소홀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제지리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는 종회에서 배포한 '대한불교진흥원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조계종은 진흥원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상반기 10억 목표로 나눔 정진

아름다운동행, 저소득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 2010년 '저소득 ·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활동을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3월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 상반기 사업을 발표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에 이어 올 상반기(2~6월)에 '저소득 ·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펼친다.

사업은 상반기 10억 모금을 목표로 △희망의 등 달기 운동 △저소득가정을 위한 1배 100원 모금 △자비나눔 모금 방송 △한끼 나누기 운동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을 펼친다. 본격적인 사업은 부처님오신날을 정점으로 실시된다.

'희망의 등 달기 운동'은 부처님오신날 공양등(燈)과 함께 5000원을 기부하게 된다.

지난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1배-100원, 108배 모금법회'는 4월 14일 초하루법회 때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108배를 통한 개인 신행활동과 함께 이웃을 위한 보시행을 하는 모금법회는 올해도 많은 불자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자비나눔 모금방송'은 봉축행사가 열리는 5월 9일 2시 장충체육관 어울림마당 행사에서 모금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모금방송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원, 불자기업인, 정치인, 불자연예인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1000원 기부 문화 정착인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 3~5월 한끼 식사비용인 5000원 보시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저소득 ·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나눔' 사업을 통해 11억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지난해부터는 KBS현장르뽀 '동행' 출연자 지원 사업으로 나눔 실천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奉行

국제전수금강보살계대법회
國際傳授金剛菩薩戒大法會

세/계/고/승 한국에오다

귀의삼보하옵고
오는 6월18일 대각교단에서 국제전수금강보살계를 봉행하고자 세계불교승가회 세계고승들을 초빙하여 재가불자들에게 금강보살계를 전계함으로 보리심을 증장시키고 한국불교를 널리 선양 불법홍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대각교단 봉행 위원회 –

국제전수금강보살계단아사리존증사단
國際傳授金剛菩薩戒壇阿闍梨尊證師團

名譽說戒師 : 悟明大長老(永久名譽世界僧伽會會長)
오명대장로(영구명예세계승가회회장)
淨心大長老(世界華僧會會長)
정심대장로(세계화승회회장)
覺光大長老(香港佛教聯合會會長)
각광대장로(홍콩불교연합회회장)
說 戒 師 : 道成大禪師(前海印寺住持)
도성대선사(전해인사주지)
萬翁大禪師(前海印寺住持)
만옹대선사(전해인사주지)
得戒阿闍梨 : 淨良長老(中華民國佛教會會長)
정량장로(중화민국불교회회장)
羯磨阿闍梨 : 覺醒大禪師(中國佛教副會長)
석각성대선사(중국불교부회장)

教授阿闍梨 : 慧雄大禪師(世界佛教僧伽會秘書長)
혜웅대선사(세계불교승가회비서장)
授經阿闍梨 : 妙淨大法師(濠洲佛教會長)
묘정대법사(호주불교회장)
依止阿闍梨 : 明光大法師(台北佛教會長)
명광대법사(대북불교회장)
開堂 和尙 : 寂默大和尙(大覺教團事務總長)
培堂 和尙 : 慧峰大和尙(地藏禪宗宗正)
尊 證 師 : 能戒大和尙(慈福寺方丈)
능계대화상(오대산자복사방장)
慧禪大和尙(留雲禪寺方丈)
혜선대화상(유운선사방장)
大願大和尙(六祖寺方丈)
대원대화상(육조사방장)

惠謙大和尙(圓光佛學院副院長)
혜겸대화상(원광불학원부원장)
長工大和尙(仁禪寺方丈)
장공대화상(인선사방장)
世澄大和尙(太平岩寺方丈)
세징대화상(태평암사방장)
宏正大和尙(法印寺方丈)
굉정대화상(법인사방장)
프라마하大僧正(마하츄라롱大學副總長)
마다파다僧正(마하피리벤나사원학장)
보페까마테로大僧正(와다나라마야사원)
프라슈딘나비데스大僧正(와타이달마람사원)
解超大和尙(少林宗總務院長)
그 외 다수 국내외 고승대덕
※당일 1시부터 축하공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 4월 30일까지 신청마감!!
• 특별수계자는 외국고승들께서 가사, 장삼을 수여합니다.
• 수계 받을 불자들은 불계율연원 첩을 드립니다.
• 각 종단 및 각 사찰별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 4월 15일까지 신청마감!!
佛戒律淵源(불계율연원)에 법호를 기재하오니
尊證師(존증사) 또는 引禮師父(인례사부) 하실
대덕큰스님들은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日時 : 應化世尊3037年
南傳涅槃 2554年 6月 18日(農曆5月7日) 午後 1時
場所 : 大邱市 호텔인터불고 엑스코國際宴會場
後援 : 世界佛教僧伽會 (臺灣 本部)
協贊 : 佛教TV放送. 現代佛教新聞.
同參佛子 : 若 五千名(약 5,000명)

大覺教團 國際傳授金剛菩薩戒奉行委員會
大覺教團 總裁 泰和 釋迦山大禪師
奉行委員長 開堂和尙 / 寂默 能仁和南

702-849,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 4F 大乘寺
사무처: 053)325-5288/325-0400 팩스 : 053)325-4848
휴대폰 : 010-3900-3050/010-6306-0082



조계종 동계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식 조계종 총무원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과 이상화, 쇼트트랙의 이정수 등 동계올림픽 불자선수와 임원 34명을 초청, 환영식을 개최했다. 조계종은 이날 직접 제작한 금메달을 선수 및 임원들에게 전달하며 불자체육인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곽민정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추천된 불자선수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불자응원단을 파견했으며 이후 불자선수들을 초청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법정 스님을 애도하는 뜻에서 식전 일정이 취소되는 등 간소화됐다. 참석자들은 환영식에 앞서 묵념으로 법정 스님을 추모했다. 박선주 기자

거리홍보 등 기증불씨 피워

생명나눔 장기기증 거리캠페인… 익명 노스님 1억원 기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늘어났던 장기기증 희망자가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펼치는 2010년 거리캠페인이 다시금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생명나눔은 3월 10일 201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010년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안내소 설치 △장기기증 릴레이 · 거리 캠페인 △조계종 신도등록과 연계한 장기기증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명나눔은 불자연예인 김혜옥 홍보대사 등과 함께 4월 중 대학가 등에서 대대적인 거리캠페인에 나서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2009년 10월 기준, 1만 2235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뇌사 장기기증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으로 장기기증을 활발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의 노력과 더불어 불교계에서는 나눔을 통한 자비의 손길이 줄잇고 있다. 8일에는 익명을 요구한 노스님이 생명나눔에 1억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2000년 시신기증 서약을 하며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노스님은 "화주로 평생 모은 시주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하고 싶다. 생명나눔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은 정복희 사무총장은 "아직 기금사용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자들의 성원이 줄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정기총회는 광주, 경남, 부산, 대구, 제주도 등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정관 변경을 승인하고 2010년 예산으로 12억 2600만원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종호 스님(제석사 주지), 법현 스님(해인동문장학회 이사), 보경 스님(법련사 주지), 경륜 스님(석불사 주지), 이수덕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기도세레모니 자제, 개신교 반발

종교평화위 "시청자 종교자유 권리 침해"

불교계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남발하는 기도세레모니 자제 요청에 개신교계가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 위원장 손안식)는 3월 4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선수들의 종교행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

종평위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종교행위 개선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선수 개인의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청하는 사람의 종교도 존중돼야 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기도세리머니 등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계방송에서도 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던 해설위원의 특정 종교 편향적 발언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3월 9일 '스포츠 선수까지 관리하려는 불교계'라는 논평을 내고 종교편향 시정의 움직임을 정면 거부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캐나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느닷없이 해설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청하는 등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제는 남아공 월드컵 선수들을 단속하라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신앙과 표현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공인 신분에서의 다양한 계층과 종교를 무시하는 특정종교에 치우친 언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평위는 "국가대표로서 종교적 표현의 자제가 필요하다. 개인의 종교자유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를 비롯한 타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9일까지 요청한 종평위 공문에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언 기자

용왕재 '현대'의 옷을 입다

환경생명을 위한 경기불자 대용왕재 봉행

경기지역 2000여 불자들이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용왕재를 봉행했다.

화성 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2교구 용주사 및 신도회, 화성 신흥사, 오산불교거사회 등 수원 · 화성 지역 불교계는 3월 7일 화성시 전공항 마리나시설 지상 계류장에서 '환경생명을 위한 경기불자 대용왕재'를 봉행했다.

수원 · 화성 지역 불교계가 경기불자 조직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경기불자기원제'는 환경 운동 및 지역 발전, 아이티 대지진 참사 구호성금 전달, 그린스타트운동 등 용왕재의 현대적인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일환인 '그린스타트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2010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안전개최와 성공을 기원했다.

1부 기원재 문화공연에 이어 2부 기원법회에는 환경보호 발원문 낭독, 용왕재(헌공, 바라춤, 나비춤, 법고공연), 아이티구호 성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부대 행사로는 그린스타트 홍보자료 전시 및 홍보물 배포, 그린스타트 운동 서약, 아이티구호 성금 모으기 등도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이티 구호 성금 500여 만원이 모였고 화성 신흥사에서도 130여 만원을 지원해 총 630여 만원이 모금됐다.

이날 경기지역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녹색성장, 그린스타트를 말하면서 콘크리트 댐으로 4대강을 막으려고 달려드는 개발업자들에게 연기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발원문을 낭독한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신도회장은 "화성 용주사 일대 문화재지역에 효테마 관광공원 조성, 오산 대각사 행복한이주민센터의 활성화, 평택 수도사 사찰음식 교육을 통한 사찰음식의 대중화로 불자들의 수행환경을 지키고 불국정토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불교계 대표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화성 오산시 불교사암연합회 공동회장 신흥사 성일 스님, 태고종 총무원부원장 원광사 화경 스님, 삼막사 성무 스님, 보적사 인해 스님, 향덕사 수산 스님, 화운사 선도 스님, 일광사 송광 스님, 천보사 월성 스님, 연화사 지덕 스님, 민학기 수원 용주사 신도회장, 최형조 화성시 부시장, 유관진 살고싶은 오산지 21 실천협의회 회장, 이용선 경기도 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에는 부상 당한 야생 큰소쩍새, 말똥가리, 매를 치료 방생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상언 기자

"지원 체계 먼저 구축해야"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 사례발표회

한국 생활에 낯선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해 도우미 활동을 펼쳐 온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 경험을 공유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산하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은 3월 8일 조계사대학 2층 강의실에서 다문화가정코디네이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1명의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봉사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소감을 나눴다. 코디네이터들은 다문화가정 돕기에 더 힘쓸 것을 다짐했다.

박명자 코디네이터는 "봉사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가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며 "의사소통이 안 돼 처음에는 전화통화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꾸준한 한글교육으로 이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노정임 코디네이터는 "도와줄 것은 많은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은 2010년 △다문화가정 초청 성지순례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시민인식개선 활동 △다문화가정 전문 봉사자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각성 스님 고운사서 '신심명' 강연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3월 8~12일 의성 고운사 선체험관에서 '신심명(信心銘)'을 강연했다. 이날 첫 강연에는 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강설을 마음에 새겼다.

신심명은 선종의 3대 조사인 승찬 스님(?~606년)이 지은 146구 584자 길이의 짧은 어록이다.

불교전문서점 불국사 '산사의 쉼터' 오픈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이 3월 1일 불국사(주지 성타) 경내에 새로운 직영서점 '산사의 쉼터'를 개설했다. 찻집과 북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사찰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대되는 '산사의 쉼터'는 현재 불교전문서점이 새로 도입한 최신 전산망을 통해 불교서적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BBS 개국 20주년 보살계 수계산림

BBS불교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4월 9~11일 진행되는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이 전계사로 법회에 참석할 예정이여서 불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4월 9일 오후2시는 보살계 수계산림 기도입재, 4월 10일 오후2시는 율사 스님의 초청 기도법회가 진행되며, 4월 11일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 대법회가 봉행된다. (02)705-5301

태고종 법륜승가대학 학인 57명 입학

태고종 종립 법륜승가대학(학장 보경)은 3월 8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 초심사집, 사교, 대교과정 47명과 전법사 10명 등 57명의 학인스님들이 입학한 이날 입학식에는 총무원 3부원장 스님(청봉 스님, 법현 스님, 화경 스님)과 실 · 부장스님을 포함한 중진 간부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축하를 전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영화데이케어센터 개소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3월 10일 중곡동에 '영화데이케어(Day-Care)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 · 야간으로 치매 어르신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다. 광진구립 영화데이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9988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치매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어르신 주 · 야간 보호시설이다.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 4기 입학식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은 3월 8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4기 불교상담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불교상담대학은 불교이상심리, 사이버 · 전화상담 등 이론과 실무에 걸친 상담교육이 진행된다.

불교상담대학 학장 담교 스님은 "학장으로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했다. (02)737-7378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 국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일주문



대승보살계 대법회 봉행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3월 21일 안산 쌍계사(주지 항명)가 봉행하는 대승보살계 대법회에 전계대율사로 법문한다. (032)886-2110



선학원 중앙선원 '참나를찾아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3월 16일 전 화계사 국제선원장 현각 스님 초청 생활 속 선수행 '참나를 찾아서'를 봉행한다. (02)732-3327



인드라망 귀농 동참자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3월 23일까지 제24기 실상사 귀농학교 동참자를 모집한다. (063)636-4325



불레협 찬불율동제 참가자 모집

불교레크레이션협회 회장 도경 스님은 3월 24일까지 찬불율동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38-7860



대불총 민족화합대법회 봉행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의륜 스님은 3월 23일 옥천명가 연회장에서 민족화합평화기원불교도대법회를 봉행한다. (02)837-2003



대각교단 금강보살계 봉행

대각교단 금강보살계 봉행위원회 위원장 능인 스님은 6월 1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국제연회장에서 금강보살계를 봉행한다. (053)325-5288



문화재청 문화재안내판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3월 9일 사찰 등 12개 주요 문화재 안내를 담은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및 개선 사례집'을 발간 · 배포했다.



평화리더십 아카데미 개강

윤여준 평화리더쉽 아카데미 교장은 3월 25일 제2기 평화리더쉽아카데미를 개강한다. (02)581-0581



삼성뮤지엄아카데미(SMA) 개강

김종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은 3월 17일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삼성뮤지엄아카데미(SMA)를 개강한다. (02)394-6544



윈디스프링 콘서트 개최

불자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3월 17일 5집 음반을 발매하고 27~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010년 제3회 윈디스프링 콘서트를 개최한다.

"시민사회운동 본 모습 찾겠다"

실천승가회 신임대표 퇴휴 스님, 10주년 맞아 새 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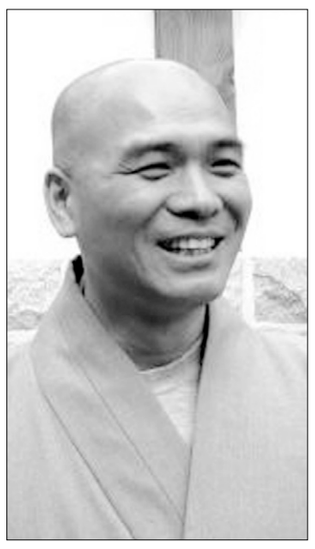
"상식을 만들고, 상식이 통하는 조직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성찰을 바탕으로 긍정적 ·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월 5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승회) 신임대표에 선출된 퇴휴 스님(사진)은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NGO로의 새 길을 제시했다.

퇴휴 스님은 "종단 민주화, 시민사회운동의 효시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그동안 불교계 개혁의 원동력으로서 큰 성과를 냈다"며 실승회 10년을 자평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 안팎의 기대가 높은 만큼 실승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NGO로의 본 모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종단 정치에 영향을 미쳐왔던 실승회의 변화에 대해 스님은 "NGO의 성격은 다양하다. 승가단체인 만큼 승가단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균형적인 시각으로 불교계 외곽을 견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자 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승회는 2010년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위상 강화 및 종책개발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 개설 및 국내외 복지활동 다각화 △사회참여사업 확대 △재정 자립도 확립 △5개년 프로그램 등 장기비전 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계 안팎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연계한 사업이 진행된다. 국제구호사업 분야에는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의 연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 구호활동이 펼칠 예정이다.

퇴휴 스님은 "실승회의 국제지원사업이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에 머물렀다. 향후 그 지역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미얀마에 확대하는 한편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을 펼칠 것도 밝혔다.

이 밖에 실승회는 대외적 활동에 앞서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조직화도 전개한다. 그중 회원스님들의 윤리청규는 불교계 단체의 정체성을 밝히는 잣대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스님은 "향후 5년간 200명 수준으로 회원 수를 늘리고, 장학사업과 해외 산하기관 연수 등을 전개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 또 '회원 윤리 청규'를 신설해 조직의 청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퇴휴 스님은 1971년 동화사 입산 출가해, 1977년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5년 태국 왓 박남사에서 남방불교 수행을 한 스님은 1980년 동국대 선학과 입학, 1989년 동국대 교육대학원 철학교육 전공했다. 2002~2004년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를 전공했으며 2007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실천불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님은 1992~2000년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포교분과위원장, 2005~2009년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구위원,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했다.

퇴휴 스님은 현재 동국대 선학과,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64주기 추모재 고경당 법전 스님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3월 11일 문도스님 100여명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경당 법전 대종사 6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사시불공을 시작으로 혜국 스님의 행장소개, 동곡문도대표 혜인 스님, 본사주지 돈관 스님의 인사말, 헌다 순으로 진행됐다. 다례재에는 혜인, 혜인, 화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본사 중심으로 화합하고, 각자 수행에 정진하자"고 말했다. 고경 스님은 일타스님의 스승으로 188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나 14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해 26세에 통도사 강백에 추대됐다. 남방대강사로 명성을 떨친 스님은 1946년 1월 27일 열반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學인 스님들에 장학금 전달



능인선원(선원장 지광 · 사진) 능인장학회는 3월 14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동국대(총장 오영교)와 능인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능인장학금은 총 1000만원으로 동국대 재학 중인 학인스님 10명에게 전달됐다.

능인장학회는 1987년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학인스님 등 780여 명에게 총 15여 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동국대 석 ·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스님 7명과 동국대 정각원에서 불교청년지도자로 활동하는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광 스님은 "앞으로는 대학생 인재를 키우는 데 더 신경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東大에 장학금 전달 일념장학회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는 3월 9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통해 통도사 범어사 운문사 등 13개 사찰의 추천을 받은 동국대 재학생 15명은 150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학원정진을 다짐했다.

이영채 이사장은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했던 경봉 스님의 뜻을 받들어 불교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러분들이 금강석 같은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귀중한 정재를 기부해 주신 고귀한 뜻을 받들어 불교 세계화와 불교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념장학회는 1971년 이영채 이사장을 중심으로 11명의 불자들이 불교인재 양성에 뜻을 두고 설립해, 승가대학 및 종립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조동섭 기자

"출범 10년 발판삼아 100년 준비할 것"

임희웅 포교사단장, 탈북자 · 다문화가정도 포교계획

"지난 10년을 발판삼아 100년을 내다보는 포교사단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포교사단 출범 10주년 기념법회를 앞두고 임희웅 포교사단장(78 · 법명 정혜)은 3월 11일 "포교사단의 체계적 포교활동에 전력 투구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 단장은 "앞으로 조직을 개편해 각 지역 포교사들이 능률적으로 포교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교사단은 향후 포교현대화를 위해 중앙과 지부 포교팀을 잇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행정체계를 일원화시킬 방침이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사는 1982년부터 배출됐지만 중심기구가 없어 개인적인 활동에 그쳐왔다. 1996년 정식 조계종 포교사고시로 전환이후 2000년 3월 12일 체계적인 포교활동을 위해 설립된 조계종 포교사단은 불법홍포의 일선에서 앞장 서왔다. 포교사 고시 1회 합격자인 임 단장은 이러한 포교사단 포교역사의 산 증인이다. 신행의 등불이 처처에 밝히기를 서원한 임 단장은 제 1회 포교사고시에 합격해 1996년 64세라는 나이에 포교사가 됐다.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동시에 포교사 자격을 품수한 그는 2007년 전문 포교사 고시에도 합격, 십 수 년 동안 포교 사각지대에서 부처님을 법을 전하고 그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한 결과 제19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 단장은 현재도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을 마음에 품고 생활한다.



임 단장은 "포교사단이 창립 초기부터 군포교와 교도소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해왔다. 앞으로는 탈북자(남북관계)와 다문화가정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포교해 우리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끝으로 "포교사는 상불경(常不輕) 보살의 화신이 되야 한다. 불자는 하는 말, 행동거지 등 삶의 모습 그 자체가 포교임을 명심해야한다"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창립 10주년을 맞은 포교사단은 3월 14일 서울 동국대에서 기념법회를 연다. 기념법회에서는 10년간 근속한 300여 포교사와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목	교 육 기 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교육기간 : 2010년 2월 20일 - 2010년 5월 22일 / 모집기간 : 매월 상시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 광주교육원 062-672-5432 /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대승불교 변상도로 피어나다

한국미술사연구소, '대승불교의 설법변상도' 미술사 강좌 6월 7일까지

대승불교에서 '대승'은 큰(maha) 수레(yana), 즉 많은 사람을 태우는 큰 수레를 뜻하며, 일체 중생의 제도(濟度)를 그 목표로 했다. 따라서 '설법'은 대승불교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모든 중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 · 미술은 대중들이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 조각 · 판화 형태로 만들어낸 표현수단이다. 그 중 변상도(變相圖)는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불교 설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으며 대승불교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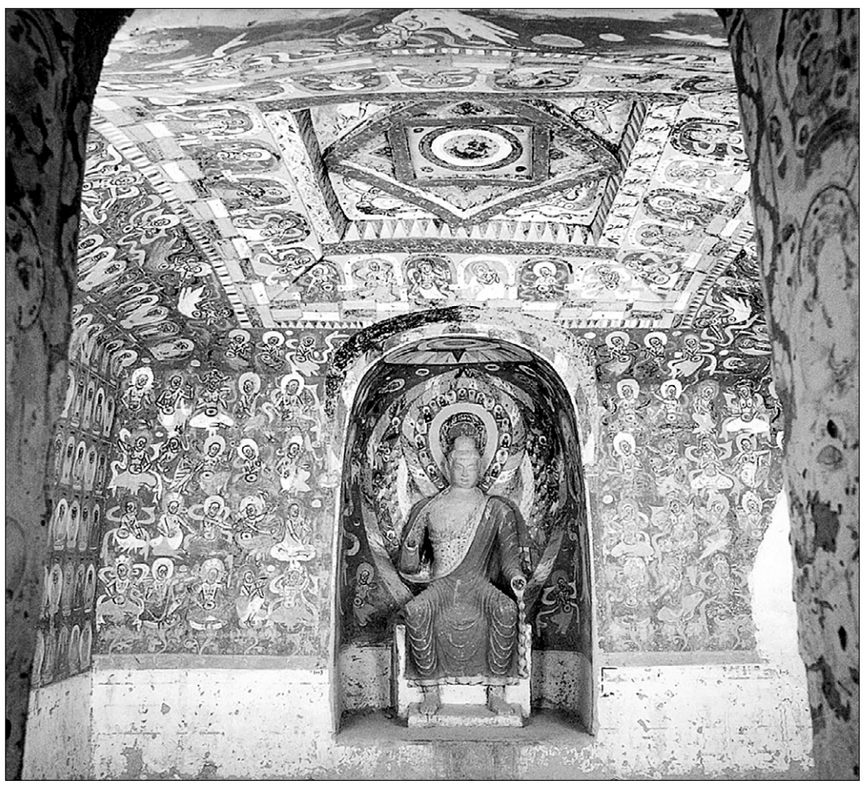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승불교의 설법변상도'를 주제로 3월 9일~6월 7일 미술사 강좌를 연다. 변상도를 중심으로 대승불교 문화와 그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다.

강좌는 3월 15일부터 △대승불교의 탄생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간다라 설법변상도 △아마라바티 설법변상도 △굽타시대 아잔타석굴 △서역 키질석굴 △돈황석굴 △중국 남북조시대 △당 설법변상도 △불교의 수용과 통일신라 · 고려시대의 설법변상도 △조선불화 △아미타 목각탱 설법변상도를 주제로 문명대 교수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매주 월요일 2시에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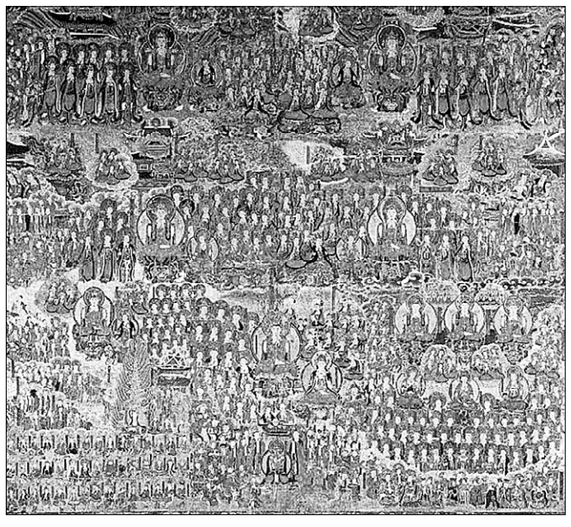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담은 그림을 설법도상이라고도 하지만 왜 변상도라 하는 것일까?

문명대 교수는 "대승불교사상은 유가학파와 중관학파가 큰 대세이며, 서역 · 중국으로 전해서져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 내용을 설법도상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며 "대승불교의 줄거리를 설법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전의 내용 · 사상 · 작가에 따라 변화를 주는 그림 혹은 조각이라 해서 변상도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표현한 것을 팔상도(八相圖)라고 한다. 이 그림은 하나로 고정된 장면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변상도라고 일컫는 것이다.



중국 돈황 272굴 정벽 설법도 전경(5호 16국 북량)(위).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順天 松廣寺 華嚴經變相圖). 비단 바탕에 채색해 그린 그림으로, 〈화엄경〉의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다(오른쪽).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변상도에는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와 일대기를 나타낸 불전도(佛傳圖), 서방정토의 장엄도가 주를 이룬다.

변상도는 인도에서 유래돼 중국과 우리나라로 전래됐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열반 뒤 산치(Sanchi)탑이나 아잔타(Ajanta)석굴 같은 곳에 벽화로 불전 · 본생 등에 관한 변상도를 그린 것이 대다수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변상도는 석굴 벽화나 조각으로 많이 표현됐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불화로, 조선시대에는 목각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많다.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은 보물 제1366호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을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화엄경(華嚴經)〉 역본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을 바탕으로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담았다.

문명대 교수는 "'화엄경 변상도'는 복잡한 설법장면을 한 화면에 빈틈없을 정도로 밀도 높게 묘사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정확한 표현력과 완벽한 구성력, 그리고 빼어난 필력과 조화로운 색채감 등 완성도 높은 조선 후기 불화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상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벽화나 탱화 외에 경전의 속표지로도 즐겨 그려졌다. 특히 경전에 많이 그려진 것은 경전의 어려운 내용이나 심오한 교리를 한 폭의 그림에 압축해 나타냄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뜻을 이해하고 불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문 교수는 "변상도는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시대별로 심오한 내용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불교미술"이라며 "변상도의 가장 큰 목적이 중생교화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 대승불교의 교리와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사연구소는 3월 20일 오후 2시 종로구 창신동 지장암 회관에서 '지장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명예교수(동국대)가 '지장암의 불상과 광해군(光海君)의 발원목(木) 비로자나불상의 의의'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전윤미 연구원(한국미술사연구소), 오진희 연구원(한국미술사연구소), 손신영 교수(전북대)는 '지장암의 불화와 수(繡) 지장보살도' '하천(夏天)작 관음, 지장보살상' '지장암 사원구조와 건축'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673-3426

이나은 기자

연등축제로 불자 자부심 상승

중앙승가대 각정 스님 '연등축제 포교효과 연구'



불교학연구회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24호.

연등축제의 핵심 소재인 연등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주는 불을 상징하는 인류 보편적 기호면서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불교전통문화를 상징한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불교문화를 가까운 도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연등축제는 일반 시민들과 불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중앙승가대 각정 스님은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제24호에 기고한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성 모델 연구'에서 불교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각정 스님은 "연등축제는 후대가 부처님의 탄신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종교축제이기도 하지만 일반시민과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축제라는 기본 성격으로 인해 일회적 접촉에 그쳐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등축제가 일반시민들과 불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각 세대들의 경험과 신행생활특성, 연등축제참가 정도가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2009년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화합한마당'에 참가한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할수록 사찰이나 신행단체를 통한 단순 동원의 차원을 넘어 자발적으로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등축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 종교적 효과 4.04점, 정서적 효과 4.11점, 문화적 효과 4.13점으로 나타났다.

스님은 "이 분석은 연등축제가 문화포교의 프로그램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리교육을 강화하는 것 보다 연등축제와 같은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문화포교의 방안으로 "고려부터 조선중기까지 이어졌던 '호기놀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연등축제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제시하며 "부처님오신날 가족들이 모여 연등을 만들고 매달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를 이해하고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성보' 11호 발간

조계종 성보보존위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효탄)는 최근 〈성보〉 제11호를 간행했다.

책에는 △불교문화재 정책 기조(문화부) △관불과 연등불(문화부) △조선후기 감로도에 표현된 기녈(유경희 원광대 외래교수) △군수리사지와 능산리사지의 건물지 비교를 통한 축조기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김태형 공주대 외래교수) 등 논문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아비달마 철학'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아비달마의 철학과 논쟁'을 주제로 제89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구사론 〈파아품〉에 나타난 자아논증과 그 비판'을, 황정일 동국대 연구초빙교수가 '법구의 삼세실유설은 전변설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11

이나은 기자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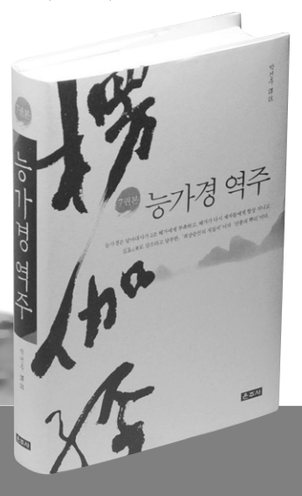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_달마대사가 혜가에게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_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 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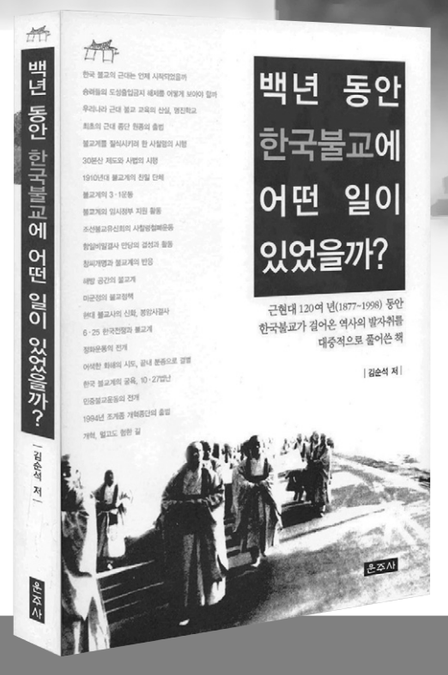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석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성북장애인복지관 제과제빵 훈련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을 이용하는 지적 · 자폐성 청소년들이 밀대로 빵 반죽을 밀고 있다.



이경인 제과제빵 전문 강사.





성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훈련생들이 직접 만든 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제과제빵 교육을 받았던 훈련생들.



자신이 직접 만든 곡물 크라프트 빵을 오븐에 넣기 전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달·고·나로 영그는 꿈

'달콤하고 고소한 나눔의 향'

"여러분, 빵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량이에요. 정확하게 강력분 1200g, 물은 756g, 설탕은 60g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1200g이 넘어버렸어요…."

"반죽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은 곡물이 들어간 크라프트 빵 만들기를 배우는 날. 하얀 밀가루로 범벅된 손을 한 학생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찾는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비율에 맞게 재료를 저울에 올려 계량해보지만 쉽지가 않다. 그래도 마음은 설레고 들뜬다. 내가 만든 빵을 엄마, 아빠, 좋아하는 남자친구에게 갖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 제과제빵실의 풍경이다. 새 학기를 시작한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여느 제과제빵수업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 지적 · 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이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모였기 때문. 이들은 3월 8일부터 4개월간 매주 월 · 수요일 실시하는 제과제빵 훈련 '달 · 고 · 나(달콤하고 고소한 나눔의 향)'에 모여 사회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제빵 기술을 배울 계획이다.

안주희(19 · 지적장애)양은 "아~ 10g만, 이제 5g만 더 넣으면 완성이군…" 하고 비지땀을 흘리며 재료를 저울에 올려 수치를 확인한다.

"자, 이제 반죽을 다 했으니, 식빵 모양이 나오도록 3겹 접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학생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죽을 둥글둥글하게 둥글리기 하고 발효시킨 뒤 밀대로 반죽을 밀기 시작한다.

밀대로 밀자, 납작해지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밌는지 학생들은 연신 까르르거린다.

김우석(20 · 지적장애)씨는 "오늘 만든 빵은 할아버지 갖다드릴 거예요. 지난 번에 브라우니 만들어서 갖다드렸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구요"라며 흐뭇해한다.

"밀대로 반죽을 밀면서 가스를 빼요. 그런 다음에 3겹으로 단단하고 둥글게 말아요. 이렇게 만든 반죽 3개를 틀에 넣고 구우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식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의 동작은 서툴지만 선생님이 시범으로 만들어놓은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져가는 자신들의 빵 반죽을 보고 날아가듯 좋아한다.

2차 발효를 하고 200℃ 넘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학생들은 이야기 꽃을 피운다.

안주희 학생은 "제가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 빵 만들어 줄 거예요. 엄마랑 친구한테도 만들어서 주고요. 저는 치즈가 들어있는 빵을 좋아하는데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홍지수(21 · 지적장애)씨는 "빵 만들기 중에 밀대로 미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빵 만들기 너무 재밌고 좋아요. 여동생한테 빵 갖다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4개월간의 제과제빵교육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는 '달고나'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훈련과 병행해 세안, 의복착용 등의 자기관리, 면접기술, 이력서 작성도 교육하고 있다. 학생과 훈련생들은 현장 훈련 이후 유사업종으로의 취업연계 및 모자창업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 정서적 발달도 기대할 수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김진아 직업재활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은 작은 근육운동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손을 이용한 활동에서 지체되는 편이다"며 "제빵교육의 반죽, 빵 모양만들기, 도구 사용으로 손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목표물을 설정해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고, 사회성 · 성취감 ·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인 제과제빵 전문 강사는 "장애인들이 만든 빵은 비위생적이라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그러나 손 씻기 등과 같은 철저한 위생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잘 따른다"며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교육하면 비장애인들만큼이나 훌륭한 맛과 모양의 빵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만이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며, 다함께 어울려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4개월간 매주 두 차례 교육… 인기·효과 짱

제빵교육으로 사회성·성취감·협동심 길러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어린이 포교 해외 사찰까지 하자"

동련 정기총회 및 대한불교교사대학 입학 · 졸업식 개최

어린이불자 양성에 앞장서 온 동련(이사장 심산 · 홍법사 주지)이 2010년 다양한 어린이 포교사업을 펼친다.

동련은 3월 6일 대한불교교사대학에서 '2010년 정기총회'를 열어 2009년 사업실적을 돌아보는 한편, 2010년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사장 심산 스님은 "2009년에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산하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며 "전국 지구별 어린이 행사 지원의 확대, 권역별 연수를 통한 지도자 역량 강화, 어린이포교 종합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동련은 올해에는 해외 어린이포교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어린이 지역포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동련은 2010년 사업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등 사업 기반 마련 △동자승 출가, 마을상좌, 특성화 캠프, 어린이



대한불교교사대학장 정여 스님으로부터 졸업생 대표 무관 스님(부산 보림사)이 졸업장을 수여했다.

포교 교구 개발과 컨텐츠 개발 △어린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시행 △연꽃문화제, 언어예술제, 전통놀이 한마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련은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을 월간<연꽃>을 구독하는 해외 사찰까지 확대 ·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기총회 후에는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제1호인 동련 산하 대한불교교사대학(학장 정여 · 범어사 주지)의 제11기 졸업식 및 제12기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48명의 졸업생과 45명의 입학생이 불법홍포를 서원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시상식, 입학생 발원문 낭독 및 선서, 졸업생 축하공연 등의 행사가 2시간 여 진행됐다.

졸업생 대부분은 조계종포교원장상 등 표창장과 함께 불교어린이지도사, 동화구연 2급, 레크리에이션 2급, 아트풍선 2급 등 어린이법회 지도를 위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지원제도로 제10기 졸업생 김형식(전남 · 광주지역청일점 지도교사)외 장학생 3명이 60만원씩 24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정여 스님은 "어린이포교는 곧 미래의 불교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기르는데 힘을 보태어 달라"고 당부했다.

심산 스님도 "포교 일선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우리 불교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현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 대한불교교사대학장 정여 스님을 비롯한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동련은 제3회 불교어린이지도사 연수를 3월 27~28일 양일간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최한다. 키즈붓다 홈페이지(www.kidsbuddha.org). (051)852-0852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불국토를 찾아서

해운대 참선명상도량 시선원

바르게 보기 위해선 자기비움이 필수

"절에 오래 다녔다는 불자들 중에는 자기를 비우는 것보다는 자칫 자기생각이나 아상을 강화시키는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속는 거지요.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과 업을 바르게 보고 비울 때 비로소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원경(법명 우현) 법사는 바르게 비울 수 있는 마음공부를 여러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참선명상도량 시민선방인 '시선원'을 열었다. 그는 비어있음을 통한 깨어있음, 즉 참된 나를 바르게 보기 위해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명상과 참선수행을 선택했다. 반신반의하며 시선원을 찾아온 불자들도 어느새 쉽고 명쾌한 공부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불교경전은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물도 보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듯이 자기 생각이나 논리, 지식이 개입되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자기비움이 필수적이지요. 즉 비어있음을 통한 깨어있음에 이를 때 비로소 진리가 드러나니까요."

우현 법사는 쓸데없는 시비심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시비분별을 초월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량에서 까지 시비를 따진다면 결코 공부가 될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선원의 수행프로그램이 알차고 다양해 시비심이 생길 겨를이 없다. 공부 도중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금강경> <육조단경> 등 대승경전 강의를 통해 근본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간다. 여기에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명상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2~5시에는 자율 참선 명상 교실을 상설 운영해 누구든 몸과 마음을 비우며 마음공부에 임할 수 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법회는 입소문을 타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외국인 불자들이 찾고 있다. 지난 2월 2일 시선원 창립법회 때 봉행된 대봉 스님(대전 계룡산 무상사 조실) 초청 법회에는 70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흔히 공부라고 하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지만, 시선원의 마음공부는 내려놓고, 비우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나 수행의 부담감으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염려도 없다. 그 대신 수업을 마치고 도량을 나서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고 맑아짐을 느낄 수 있다.

우현 법사는 "흔히 불교와 마음공부는 어렵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실 아주 쉽고 우리 삶 가까이에 있다. 마음은 보통 자기 생각이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본래의 맑고 청정한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 삶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051)746-7611

박지원 기자



가운데 대봉 스님, 오른쪽 조원경 (법명 우현) 법사.

수행 통한 행복찾기 큰스님 릴레이법회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학장 원범)은 도심 속 현대인들을 위한 '수행을 통한 행복 찾기'를 주제로 큰스님 초청 릴레이 법회를 봉행한다.

릴레이법회에는 3월 8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시작으로 △22일 수진 스님(前 해인사 강주) △4월 5일 목종 스님(대광명사 주지) △19일 원범 스님 △5월 3일 대성 스님(前 범어사 주지, 김해 은하사 회주)이 차례로 법문 할 계획이다.

원범 스님은 "가정과 사회, 자신의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다면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1)466-4080

박지원 기자

'차마고도와 삶의 예술'

4월 10일 홍법사, 경내 대웅보전서 개최



KBS 차마고도의 한장면. 김무관 PD는 홍법사에서 차마고도를 찍으며 느낀 삶의 철학을 강연할 예정이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4월 10일 오후 7시 경내 대웅보전에서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책임프로듀서 김무관 PD를 초청해 '차마고도와 삶의 예술'이란 주제로 대중 공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강의에서 김무관PD는 △중국의 차문화 △티베트 언어 문명 등을 차마고도 제작과정을 통해 강의한다.

심산 스님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불자들이 해외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며 "일반 언론의 눈으로 바라본 불교적 프로그램인 만큼, 힘들게 제작한 노고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자"고 말했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복지증진에 최선다하겠다"

이춘성 관장,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장 당선



제12대 부산광역시사회복지관 협회장으로 이춘성 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이 선출됐다.

이춘성 신임회장은 "52개 소속 사회복지관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모든 사안을 이끌어가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인 만큼,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어 협회는 물론 각 기관, 나아가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산지역 불교사회복지계 인사 중 최초의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이웃종교의 경우 길게는 100년, 짧게는 한국전쟁 이후인 60여 년 이상을 사회참여를 통해 자리매김했다. 반면, 불교사회복지계가 공식적인 제도권에 들어선 지는 불과 17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불교복지계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부산지역 복지기관 중 불교계는 5%에 불과한 것이 현실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불교계는 여전히 노인복지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는 다문화시대인데 아직 연계사업이 미비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향후 임기 내 사업계획으로 △각 사회복지기관의 인지도 확대를 통한 위상 정립 △봉사자와 후원자를 위한 격려 및 포상제도 시행 △정신문화 서비스의 개발 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취임식은 3월 30일 오후 3시 부산시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마지막 소장 기회!

동의보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大역사(役事)!!



益生養術 (익생양술)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 나왔다
...고집 센 노인의 50여년 정성과 집념이 토종약초 대전으로 빛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전통 민간요법을 집대성한 '익생양술'이 그것이다. 저자인 권혁세71 한국민간요법연구회장씨는 해방 전후 선친과 이정호 성공회 신부에게서 신기한 약초 처방을 전수받았다. 그리고 평생 전국을 찾아다니며 4만여 가지의 민간요법을 수집하고 이를 빠짐없이 기록했다...(하략)" - 중앙일보 2007.08.28 -

"익생양술, 2만 가지 민간요법 공개
...그의 '익생양술'에는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 일간스포츠 2007. 07. 10 -

주요 신문 / 방송사 특집보도!



KBS TV 생방송 세상의 아침 2부 (2007. 10. 16)



MBC TV 9시 뉴스데스크 (2007. 09. 21)

권혁세 편저/ 전4권(부록1권 별도)/ 5×7배판/ 총3,800쪽/ 양장본/ 오동나무 케이스入 /
잔여분 250세트 한정 할인보급가: 55만원(기존 보급가 100만원 정), 10만원×6회 분납 가능/ 절판될 수 있음에 따라 선착순.
-사은품으로 벽면 부착용 대형도판 3장(한국토종약초 및 주요효능 일람표 +탕제 및 효능 일람표 +민간요법과 금기사항 일람표/ 각 76cm×117cm)을 증정합니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방대한 본초학 교과서이자 한의사들이 토종 약초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는,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년 지혜와 연구노력의 집약판..." -엄종희(전 대한한의사협회장)-

"...놀라운 역작(力作)이다. 우리의 선조는 예로부터 평생 연구한 비법은 누설을 염려, 후계자 한사람에게만 전수하다 보니 대부분 문서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에 한 약초연구가의 평생의 집념과 각고 그리고 사명감이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으니 능히 현대판 동의보감이라 할만하다..." -안경환(전 경희대 약학대학 교수, 식약청 생약 자문위원)-

"...명약이란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믿는 미몽과 편견이 안타깝다..." -발간사 중에서-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수많은 신토불이 약초 · 약재들의 생태와 약리적 특성,
이를 활용한 20,000가지 전통 민간요법을 엄선하고
검증 정제 및 현대적 실용화를 꾀해 총집대성 함으로써
고금의 가장 위대한 의술과 양생법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
우리시대에 이루어낸 또 하나의 기념비적 위업(偉業)!!

'향후 누가 있어 평생을 오롯이 바쳐도 이룰지 모를 이 지난(至難)한 작업을 해 내겠는가!'

- 구성 -

◈ 1권 〈약초 편〉
1,000여 종 약용동식물의 생태 및 특징, 약효, 채취기간, 취급요령, 성미, 독성여부, 사용량, 사용범위, 사용방법, 적응증 등을 총괄 정리 수록했으며, 전래 민간요법의 효능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본초학 지식을 집약시킨 효용도 높은 도감으로 꾸몄으며, 각권과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편성.

◈ 2권(상 · 하) 〈처방 편〉
888종 질병의 원인 및 증상에 따른 20,000여 가지 예방, 치료 처방법을 상세히 설명, 스스로 진단해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활용토록 했으며, 전문가는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 익힐 수 있도록 대중성 및 실용성의 극대화를 꾀함.

◈ 3권 〈조제 편〉
1권에 수록된 각종 약용동식물을 활용한 500여 종류의 단방 · 혼합 주침(약술)요법, 270여 종류 탕전요법, 100여 종류 약차요법, 약재 및 먹거리를 이용한 1,000여 종류 식이요법 등 저자만의 비법 및 비전(秘傳)조제술, 자가진단법 총 집대성.

아래 발송관리처로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고 대금은 수령 후 송금(신용카드 가능)하시면 됩니다.

◈ 학술편수관 T · 02-2618-0700, 070-8811-5775 F · 032)348-1240

생태공원 탈바꿈 무등산 증심사

1972년 공원 지정 후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증심사 지구가 자연 그대로의 맑고 깨끗한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3월 6일 증심사 지구 비지센터 앞 잔디광장에서 증심사 주지 지장 스님과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광주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증심사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 광주시 등이 한마음으로 뭉친 이번 복원사업은 2006년부터 3년여 동안 진행됐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증심사 계곡을 따라 2㎞가량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해, 무등산에 자생하는 향토수종 군락과 주변 산책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했다.

아울러, 증심천의 오염원인 상가들을 철거하고, 입구에 조성된 상가단지로 이주시켜 증심천의 발원지인 덕산골과 약사사 계곡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환우를 위한 나눔의 1만배 기도

광주생명나눔실천 · 광주불교환경연대, 자비 행사 이어져

광주지역 불교계가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정진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모은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3월 23~30일 제2회 소아암 · 백혈병 어린이 완치를 기원하는 '생명나눔 1만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행사에는 광주지역 사찰인 원효사, 금선사, 달마사(화순), 동원사, 문빈정사, 비전사, 연화사, 원각사, 정안사, 천룡사, 흥룡사, 반야유치원 등 13개 사찰이 참여해 부처님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 동안 정진할 예정이다.

광주 생명나눔은 이 기간을 '생명나눔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나눔의 1만배 기도'를 올리고, 환우를 위한 기도비를 모금한다.

본부장 현지 스님은 "부처님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까지는 사찰마다 기도정진을 하며,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공덕을 생각해야 한다"며, "생명나눔 실천주간 동안 진행되는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이 어려운 환우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기도를 통해 모금되는 후원금은 아픔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많은 사찰과 불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지역불자들이 소아암 · 백혈병 어린이 완치를 기원하는 1만배정진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행사 참가를 원하는 대중은 해당 사찰이나 가정에서 소아암 환우의 쾌유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1배 100원의 정진기도에 동참한 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하면 된다.

한편, 광주생명나눔은 지난해 제1회 행사에서 900여 만원을 모금해 5명의 환우에게 매월 10만원과 쌀 20㎏씩 전달했다. 또, 화순전대병원에 헌혈증서 1000매와 수술비 지원금 300만원이 전달했다.

이에 앞선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지역사찰과 후원자로부터 지원받은 자비의 쌀 1200㎏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0여 시민단체의 활동가와 불교단체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행사는 광주전남환경연대 사무실에서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과 공동대표인 이성기 교수(조선대), 정범도,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 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원식 후 각 단체에 자비의 쌀이 전달됐다.

이날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활동가들은 유철홍(참여자치21 간사), 손희정(시민생활환경회의 간사), 노미덕(광주흥사단 상근간사), 백희정(광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김민경(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사), 이주성(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장), 문귀례(광주불교사암연합회 간사), 김진희 지장왕사 사무장 등 불교단체를 포함한 30개 단체 관계자이다. 또, 섬포교지원단(진행 이준엽 호남불교문화원장)을 위한 특별지원도 진행됐다.

이해모 집행위원장은 "각 사찰에서 부처님 전에 올린 소중한 공양미를 지역 시민사회활동가들에게 다시 회향하는 자비의 쌀 나누기는 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시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뜻 깊은 나눔의 장이다"라고 행사의 의미를 말했다.

한편, 올해 제4회 째인 자비의 쌀 나누기는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진행됐다.

광주생명나눔 소아암환우돕기회원 (062)234-660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지역 부루나존자

재가자 주말선방 개설하는 참당암 대선 스님

"수행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

선운사에서 도솔암으로 가는 길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참당암 표지가 눈에 들어온다. 다가오는 새봄을 시샘이나 하는 듯 때늦은 눈 속에 묻혀 적묵 속에 잠겨있는 참당암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동안거 해제와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을 위해 주말 참선방에 방부를 들일 손님맞이에 분주한 대선(大禪) 스님은 편안한 미소로 낯선 객을 맞아주신다.



청담암 주지 대선 스님.

"일반 재가불자들은 간화선이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화두를 들고 깨친다는 생각보다는 화두를 드는 순간 이미 정혜가 일어납니다. 간화선이 어렵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 어렵다는 선입견속에 해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선 스님은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최근 재가 참선방을 개설했다.

스님은 "처음 시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반응이 좋아 힘이 난다"며 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선운사에서 산을 오르다보면 도솔암 가는 길과 참당암 가는 길이 나뉩니다. 도솔암 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참당암을 찾는 사람들은 드물죠. 등산객들도 참당암 쪽은 잘 오지 않습니다. 각자 원하는 것과 가고자하는 길이 달라 그럴 것입니다. 천상 참당암은 선원으로 안성마춤입니다."

선운사 선원으로 운영 중인 참당암은 지난 동안거에서 10명의 스님이 안거를 났다.

지금은 선운사의 산내암자로 사격이 위축됐지만 참당암은 참당사 또는 대참사(大懺寺)로 불릴 정도로 거찰이었다. 과거 점찰법회를 통해 1년 내내 참회정진하던 도량이기도 했다.

대선 스님은 "선운사와 함께 출재가자들이 함께 1년 내내 수행정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님은 재가 참선방의 시설을 개비해 누구나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꿀 원력을 세웠다. 그 결과 지난해 최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당우를 신축했다.

대선 스님은 "안거기간 동안에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가자들은 주말에만 참선방을 운영하지만 앞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면 7일간 정진 같은 단기정진 프로그램과 안거기간 동안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재가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는 박문정 (무상, 39, 고창읍) 보살은 "고창 같은 농촌지역에도 함께 수행 정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멀리 서울, 광주, 부산 등지의 재가선원을 찾아 정진하고 있다" 며 "마침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는 참당암에 재가선원이 생긴다니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쁨을 전했다.

스님은 "수행을 통해 얻어진 지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원만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수행 의지만 있다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063)563-3440

조동제 전북지사장

"명예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3월 11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동(71세, 고창군 심원면) 어르신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단의 명예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무공 스님은 "오늘날 풍요롭게 사는 것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흘리신 땀의 결실이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신중함이 더욱 절실하다"며 "어르신들이 맡은 각자의 사업 현장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인생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발원하고 있다.

이어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김현주 팀장의 '노인학대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김점옥 복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복지형 · 교육형 · 공익형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행스님 초청법회 봉행

완주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

일제 강점기 31본산의 하나로 유명한 비구니선원 전북 완주 위봉사(주지 법중)가 3월 7일 일요법회창립 11주년을 맞아 김제 금산사 주지 원행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200여 일요가족법회 불자들이 보제루 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과거 우리불교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수행 의지 속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며 "항상 변하지 않는 내안의 진여 불성을 갈고 닦아 부부, 가족 간의 도리를 지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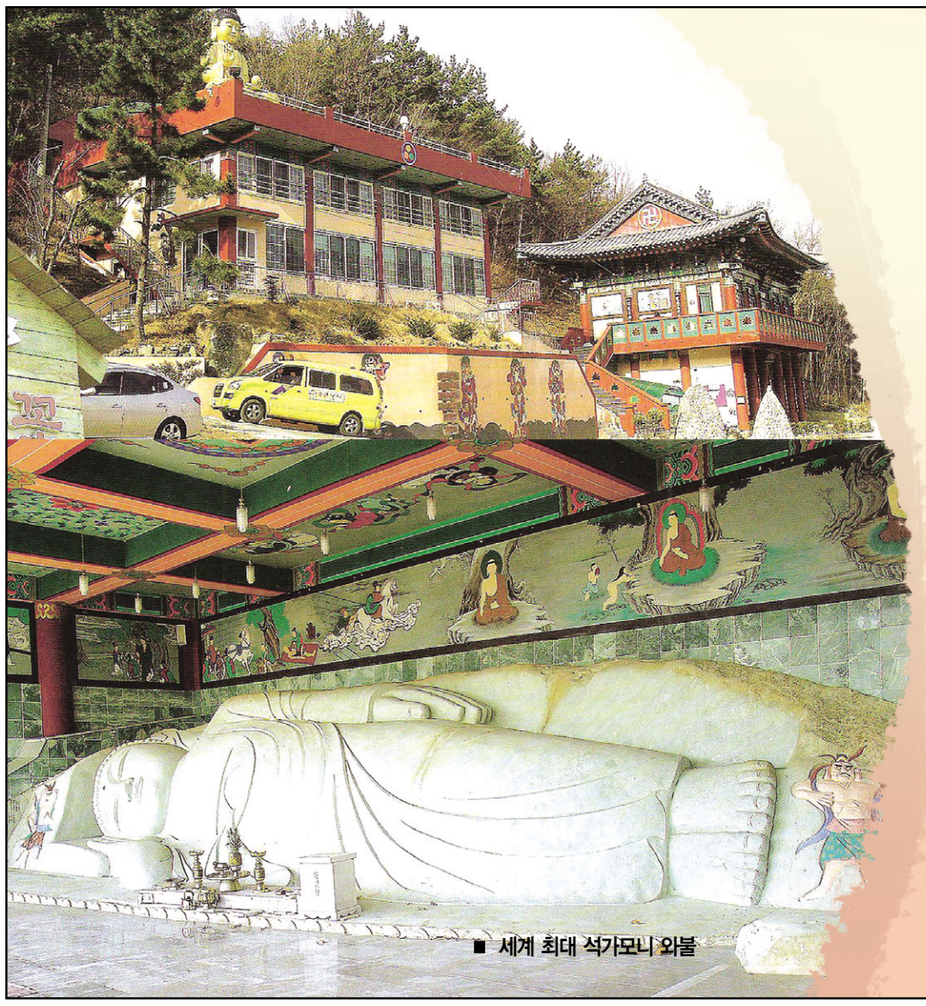
일상 생활 속에서 보살도정신을 실천하며 수행 정진하는 위봉사 일요가족불자회(회장 이두연)는 2월 21일 포교사고시에서 10명의 신규 포교사를 배출했다.

이날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은 이러한 일요가족불자회원들을 위해 공부방을 마련해 선화당이라는 당호를 내렸다.

한편, 위봉사 30여 대중스님은 이날 스님들이 직접 재배해 만든 된장, 간장, 천연비누, 감자부각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위봉사 전각들의 기와불사와 위봉사 신도들의 전주 화엄불교대학 장학금, 위봉사에서 운영하는 위봉선원 스님들의 교육에 사용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계 최대 석가모니 와불

공고

사단법인 금강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본 종단은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화엄회상 불보살 원음을 바르게 알고 펼치는 청정사 종도 비구,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입종서류

- 여권사진 4매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증사본 (앞, 뒤복사) 1매
- 사찰 내외 사진 1매

(입종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일체 관여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석가모니 와불 가피로 중생 제도 진력 하는 (사) 금강불교 조계종의 종지와 근본교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 사상 실천이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신다. 대승불교의 진면목인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대중속에서 실천 하고자 하는 동체대비 대원력의 발현이다.

총무원장 혜명 합장

총본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 649-5959 H.P: 010-9244-3358



나뭇가지 하나로도 넉넉하다

대흥사 부도전의 초의 스님 부도.

초의 스님의 해남 일지암(一枝庵) ❻

대흥사(대둔사)의 13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인 초의(草衣 · 1786~1866) 스님은 어느 날, 쉬어갈 나뭇가지 하나를 찾는 산새처럼 조용한 곳에 암자 하나를 짓는다. 그리고 40 년을 그곳에서 쉬었다 간다. 초의 스님의 마지막 한 자리 일지암이다.

대흥사 마당에 들어섰을 땐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일지암은 대흥사 산내 암자다. 초의 스님의 일지암은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후 폐허가 됐고, 지금의 일지암은 옛터를 찾아내 복원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만난 일지암에는 3대 주지(암주)인 무인(無因) 스님이 차를 우려 놓고 계셨다. 손수 만든 차였다. 다구 속에 담긴 찻잎은 초의 스님이 일군 일지암 차밭에서 온 것이었다. 명차였다. 차 맛을 읽을 줄 몰라 죄송스러웠다. 일지암에서 차 맛을 몰라보는 것은 문맹이었다. 스님이 빈 찻잔에 차를 채웠다.

초의 스님은 종사로서의 면모는 물론이고, 시(詩) · 서(書) · 화(畵) · 차(茶) 등 많은 분야에서 깊었던 분이었다. 그 중 차에 관한 업적이 특히 후세에 많이 전해졌다. 스님은 깊은 다인(茶人)이었다.

일지암을 짓고 난 후 일대에 차나무를 심고, 다서(茶書)의 고전인 <다신전>과 <동다송>을 썼다. 특히 <동다송>은 다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책으로 전해진다. 당시 학자이자 명필이었던 추사 김정희는 스님의 차에 반해 스님의 평생지기가 된다. 차를 보내 달라 떼를 쓰는 추사의 서신은 유명한 일화다.

스님은 일지암에 머무는 동안 지관겸수(止觀兼修)에 전력을 다해 대종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고, 당대의 내로라하는 유가(儒家)의 선비들과는 시 · 문을 주고받으며 문인으로서의 영역을 남겼다. 또한 대흥사 대광명전의 단청과 벽화를 손수 그리는 등 많은 불화를 남겼고, 유배지의 도반이 생각날 땐 먼 길도 마다 않으며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남겼다.

작년 봄부터 일지암에 살고 있는 무인 스님은 초의 스님부터 치면 4대 주지인 셈이다. 스님은 초의 스님의 흔적 위에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간에서 초의 스님이 다인으로서만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초의 스님은 분명 '보우'(普雨)라는 커다란 이름에서 비롯된 서산, 편양 법맥의 마지막 종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의 스님의 별호 앞에 '종사'대신 '다성'(茶聖)이나 '차의 중흥조' 등의 말이 먼저 붙는 것은 스님의 법명을 온전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지 스님이 다시 찻잔에 차를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찻잔 속에 떨어지는 찻물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왔다.

새소리에 잠을 깼다. 새소리가 지나간 문틈을 아침 햇살이 몰려와 채웠다. 더 이상 문을 닫고 누워있을 수 없었다. 사립문 밖에서 동백나무 하나가 꽃잎을 툭툭 던지고 있었다.

일지암의 구조는 다른 암자들과는 많이 달랐다. 일지암 편액이 걸려있는 작은 당우는 2평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볏짚으로 지붕을 올렸다. 초가집이다. 추녀 밑에는 작은 다절구가 있었다. 암자 뒤켠에는 유천이라 이름 붙은 샘에서 맑은 물이 대통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뜰엔 연못이 있어 구름도 담기고 꽃잎도 담겨 있었다.

일지암은 작은 암자였다. 그러나 커다란 암자였다. 일지암은 없어진 암자였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암자였다. 일지암엔 초의 스님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지암엔 초의 스님의 것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밭에서 차동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잠깐 보았다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 멀리서 주지 스님이 차동이를 부른다. 아침 공양이다.

일지암을 찾는다면 스님의 높았던 이름보다는 따뜻했던 가슴을, 스님이 남긴 업적보다는 스님이 가졌던 불교를 생각하며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동백나무가 또 꽃잎을 툭툭 던지고 있었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일지암 가는 길

땅 끝으로 가면 된다. 남해의 봄바람을 만나면 대흥사가 나온다. 대흥사 마당을 지나 700m 정도 올라가면 일지암이다.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 호신불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7>

다시 무엇을 싫어 하는가?

<조주록>은 초반부 조주 스님과 남전 스님과의 선문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짧은 비유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고 <조주록> 전체가 쉬운 비유로만 구성된 것은 결코 아니다. <조주록> 속에는 간혹 중진 납자에게도 난해한 공안들이 나온다. 이런 것은 당연히 화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조주록>은 공안의 성격을 띤 화두가 많은 선서가 아니고, 납자가 조금만 명상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곧 알아낼 수 있는 은유나 비유적인 대답이 많다. <조주록>은 선을 알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던져주는 선서인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평범한 대담 속에 불법의 큰 뜻을 함축하고 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법(法)은 특별한 법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법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밖도 공하고 안도 공하며, 안팎이 모두 공하다."

問 法無別法 如何是法 師云 外空內空內外空

법은 불변의 진리를 말한다. 요즘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법'이라는 말로 진리를 대변했다. 불변의 진리는 무엇일까? 이것도 납자들에게는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진리를 묻는 질문에 조주 스님은 "밖도 공하고 안도 공하며, 안팎이 모두 공하다"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여기서 안은 사람의 지식이나 마음을, 밖은 외부의 모든 현상을 뜻한다. 내외가 공하다는 것은 일체가 공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또한 '법은 곧 공(空)'이라는 뜻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라만상은 '공(空)'이라는 한 글자로 대변할 수 있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생각했던 철학의 이상과 모든 성인이 보았던 궁극의 한 지점은 결국 공(空)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너절너절 설명하지 않아도 곧 알 일이다.

한 스님이 물었다.
"부처님의 참다운 법신(法身)이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다시 무엇을 싫어하는가?"

問 如何是佛眞法身 師云 更嫌什麽

법신은 부처님의 몸을 세가지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인 '진리의 몸'을 말한다. 의미상으로는 '불변의 몸' '진정한 부처'라는 말이다. 독자에게는 '진정한 부처'라는 말이 더 실감이 갈 것이다.

질문을 다시 요약하면 "진정한 부처는 무엇입니까?"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다시 무엇을 싫어하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툭 대답하고 말았다. 부처를 묻는데 싫어하다니, 도대체 이 무슨 뜬 구름 같은 소리인가? 공안 같지만 이것은 공안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곧 풀어질 답변이다.

이와 관련한 해답은 이미 <조주록> 선해 첫 회에 강조한 것이 있다. 그것은 육조 스님도 강조한 것이고, 임제 스님도 강조했던 바로 모든 선사가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힌트를 내놓는다면 "부처는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조주 스님이 위에서 말한 뜻을 정확히 풀어낸다면 선사상의 중심축을 얻은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희열이 올 수도 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손님(賓) 중에 주인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각시 얻는 일 따위에는 관심 없어."
한 스님이 다시 물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보물은 한낱 돌덩이다

일체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멸하는게 법칙

"무엇이 주인 중에 손님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장인이 없어."

問 如何是賓中主 師云 山僧不問婦 問 如何是主中賓 師云 老僧無丈人

방장이 주인이라면 객승은 손님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담하다 보면 객이 주가 되고 방장은 빈이 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빈주(賓主)에 대한 법문은 당시 유행하던 하나의 화제 거리였다. 그 빈주 법문을 갖고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에게 물으니 조주 스님은 독특한 선기로 대답했다.

신랑은 각시를 받아들이는 쪽이다. 신랑을 주인으로 보면 각시는 손님이다. 그런데 손님 중에 나이 많은 어른이 있으면 당연히 그는 손님 중에 주가 되므로 모두 나아가 인사를 한다.

이러한 역학 구도에서 조주 스님은 빈주 법문을 간단하게 일축했다. 즉, 조주 스님은 각시를 얻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장인도 없다 했으니 빈주에 대해 도무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공연히 주이니, 빈이니 하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스님은 그런 것에 무관심한 지 이미 오래라는 말이다.

세상사에 관심 없이 오로지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중요한 보물은 한낱 돌덩이와 다름없이 되고 만다. 가치라는 것도 사람들이 매긴 가치이지 본래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일체 법이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나는 조상도 꺼리지 않네."
그 스님이 다시 한 번 물었더니, 조주 스님이 답하기를
"오늘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겠어."

問 如何是一切法常主 師云 老僧不諱祖 其僧再問 師云 今日不答話

일체법이 상주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은 영원불멸해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은 신을 믿으라고 설파하는 종교도 아니고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진리라고 설파한 적도 없다. 항상 진리에 부합하고, 다양한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누가 들어도 객관적 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로서 오래오래 인류의 위대한 보고로 남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일체법은 상주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지금 조주 스님은 그런 사상에 반대했다. "세상에 부서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일체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 법칙이다. 어찌 불법이 상주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조상은 누구나 존중한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다. 선법(禪法)은 부처님 · 조사를 모두 넘어서는 것을 최고로 친다. 일종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이다. 제자가 천하에 우뚝 서지 않으면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이 선가의 법이다. <조주록> 전반부에서도 조주 스님은 스승을 밟아버리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대목이 나왔다. 이러한 전통 선가의 사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는 조상도 꺼리지 않아"라는 말이다. 즉, "무슨 상주(常主)운운하는가, 나는 스승을 넘었고, 나도 언젠가 내 제자에게 당할 것이야. 영원한 것은 없어. 그것이 법이야"라는 의미인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2

안팎이 청정하니 곧 가람이라

#법유를 밝히다

여래는 금강과 같이 부서지지 않으며 번뇌가 없는 진실한 몸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영원히 여의었는데 어찌 이같이 깨끗하지 못한 우유가 필요하겠으며, 이것으로 어찌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하였겠는가. 경에서 설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곳에도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다.

좁쌀 · 보리 · 겨 · 밀기울을 먹는 것도 아니다. 무리와 같지 않은 특별한 소로 그 몸은 자색을 띤 황금색이다. 이 소는 다름이 아니라 광명을 두루 비추시는 부처님을 뜻한다.

부처님은 대자대비로 일체를 가엾게 여기시어 청정한 법의 육체에서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젖을 낸다. 그리하여 해탈을 구하는 모든 이를 먹여 기르시니 여래만이 마셔서 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마시기만 하면 모두 위없이 바르고 참된 도를 얻는 것이니라."

[원문]

如來者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永離世間諸苦 豈須如是不淨之乳 以免飢渴也 如經所說 此牛不 在高原 不在下濕 不食栗麥糠 不與特牛同群 其牛身作紫摩金色 言此牛者 則毘盧遮那佛也.

以大慈悲憐憫一切故 於淸淨法體中 流出如是三聚淨戒六波羅密 微妙法乳 乳養一切求解脫者

飮如是淸淨之牛 淸淨之乳 非獨如來飮之成道 一切衆生.



동성 스님 作

[해설]

부처님과 여래는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으로 된 부처님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덕을 갖춘 본래 진여당체의 부처님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래, 부처님, 선, 진공, 진여 등 온갖 명사를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금강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은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리며 진실한 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육욕으로 만들어진 우유로써 어찌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 자색을 띤 황금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또, 부처님만 도를 이뤄 해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한 몸으로 보고 제도하기 위해 삼취정계와 육바라밀을 설했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이를 행하게 되면 참된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바르게 지어라

또 여쭙기를, "경전을 보면 성전을 짓거나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향을 사르거나 꽃을 흩거나 장명등(밤낮으로 밝히는 등불)을 켜거나 밤낮 여섯 차례 예불을 하거나 재계를 지키는 등 온갖 공덕을 닦으면 모두 불도를 이룬다 했다. 이는 오로지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닦는 것과 같다고 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허망한 말씀일 것입니다"하니 대답을 하셨다.

"중생들은 우둔하여 지혜가 좁고 용렬하며 깊고도 깊은 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수도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시려고 유위의 일을 빌려 무위의 이치를 나타내신 것인데 그대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만 구하며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가람은 범어인데 이 말은 청정한 곳이라는 뜻이니라. 삼독을 영원히 없애어 육근을 항상 깨끗이 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안과 밖이 청정하면 이것이 곧 가람을 짓는 것이니라."

[원문]

又問曰 佛說經中 令衆生修造伽藍 鑄寫形像 燒香散花 燃長明燈 日夜六時行道 持齋禮拜 種種功德 皆成佛道 若唯觀心 攝攝諸行 說如是事 應虛妄也.

答曰 佛所說經 有無量方便 以一切衆生 鈍根狹劣 不悟甚深之義 所以假有爲事 喩無爲理 若復不修內行 唯只外求 希望獲福 無有是處 言伽藍者 梵音 此言淸淨處也 若永除三毒 常淨六根 身心湛然 內外淸淨 是則修伽藍也.

[해설]

달마 스님은 오로지 우주를 하나로 관하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 뜻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자님 중에는 절에 오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찾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항상 마음을 너그럽게 쓰고 덕을 많이 쌓으십시오.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을 닦고 찾는 공부를 해야지 밖으로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복을 짓는 일도 불교를 바로 알고 참 뜻을 행하면 작은 것이라도 큰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과거 전생의 업력으로 인한 것이지만 결국은 텅 빈 존재입니다. 자식도 바로 우주와 하나입니다. 우주를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우주를 상대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정진한다면 가정이 곧 가람이 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타성에 젖어 신행생활 하지 마세요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 '아름다운 마무리' 중

법정 스님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스님은 길상사 창건 후 회주를 맡아 크고 작은 법회에서 대중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법음을 전했다. "내생에도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신 법정 스님의 법음을 다시 듣는다. **법문제공=길상사**

정리=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제가 말하지 않아도 참으로 눈부신 봄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한 때이기 때문에 저에겐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요즘은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나무가 처음 잎을 머금을 때는 그 나무만의 독특한 색깔을 뽐냅니다. 저마다의 색깔로 자신을 마음껏 뽐내 생기가 넘칩니다. 가지마다 새로 돋아난 잎들이 찬란한 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봄은 상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대지에 꽃이 피지 않는다면 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침묵의 봄'을 두려워합니다.

준비된 나무만이 시절 인연 만나 꽃 핀다

맑음은 개인의 청정·진실, 향기로움은 영향력

그들은 요즘처럼 세계가 과소비로 치 닿다 보면 침묵의 봄이 온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계절을 맞지만 봄에 여름의 기운을 느낄 때가 있고 늦은 봄에 눈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것 같지만 한 송이의 꽃이 피기 까지는 그 배후에 인고의 세월이 있기에 가능한 것 입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 혹심한 가뭄과 장마와 같은 악조건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텨온 나무만이 시절인연을 만나서 꽃 · 잎으로 피워내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런 꽃과 잎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꽃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안에 피어나는 꽃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꽃으로 피어날 씨앗을 뿌린 적이 있었던가?'

준비된 꽃과 잎들만이 계절이 왔을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계절을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시절인연을 만나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가 보기 좋고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가 볼만합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이고, 배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그 자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 비본질 요소 때문에 본질이 가려집니다. 봄날 분홍빛이 지닌 환상미가 반감되고 맙니다. 복사꽃은 멀리서 봐야 분홍빛이 품어내는 분위기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배꽃은 가까이서 봐야 배꽃이 지닌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겨워 지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켜 있으면 으레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줘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사람들은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뜸 들일 줄 몰라요. 뭐든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볼 때 인과성을 동시에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벚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 국토에 핀 벚꽃을 볼 때 나무의 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조화와 신비 앞에 숙연해 지기 까지 합니다.

식물은 태어나서 부터 죽을 때까지 한자리에서 살아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한 치도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꽃과 씨앗으로 자기 공간을 넓혀 갑니다. 현재 산에 핀 벚꽃은 사람의 손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의 손을 거쳤다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줄이 일정 하거나 역겨웠을 것인데 자연이 뿌려놓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벚꽃 자신이 꽃과 씨앗으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벌들을 불러들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버찌가 지닌 달짝지근한 맛을 내는 것은 새를 불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새들은 그 버찌를 먹고 소화되지 않는 씨앗을 여기저기 배설해 놓습니다. 배설된 씨앗은 움이 터서 온 산에 벚꽃을 피웁니다.

여기 자연의 조화와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물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 또한 봄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자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것 중에 <천수경>이 있죠. 뜻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참 좋은 법문인데 건성으로 따라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천수경> 도량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도량이 맑고 깨끗해서 더러움이 없으면, 불법승 삼보와 천룡팔부 신장이 이 도량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청정도량에는 도량신이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절에는 어느 절이나 그 도량을 보살피고 지키는 도량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도량신이 그 도량에 사는 사람이나 그 도량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낱낱이 보살피고 지킵니다. 신앙심이 지극하고 식이 맑은 사람들, 정신이 맑고 투명한 사람들은 어떤 절이든지 들어서자마자 절의 분위기나 신성성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도량신은 그 도량에 필요한 존재는 사람이든 나무든 도량에 머물도록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는 거부해요.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런 현상은 굳이 문헌을 들출 것도 없이 반세기 남짓 크고 작은 도량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제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개인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량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도량을 주관해요. 그 도량신의 의지가 개인의 의식에 작용해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승가 생명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청정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불을 올릴 때 '지심귀명례 청정승가야중' 하지 않습니까? 승가 생명력은 청정성에 있어요. 청정성은 진실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승가 생명력은 청정과 진실에 있습니다.

길상사를 가리켜 '맑고 향기로운 근본도량'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절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절에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 절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불자들은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로운가?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맑음은 개인이 지닌 청정과 진실을 말하고, 향기로움은 그 청정과 진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메아리입니다. 이 도량에서 익히고 닦은 기도와 정진의 힘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나 이웃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해야 합니다.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절이나 교회를 습관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닌 지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버릇처럼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절 재정에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은 '종교는 마약이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자기 삶이 바뀝니다. 삶은 바뀌지 않고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 · 교회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지 냉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상사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불자들 신심과 정성으로 현재와 같은 절이 됐습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자등명 법등명’이 불교의 근본

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다 한때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절이 있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기 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도량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도량에 사는 사람과 이 도량을 의지해서 드나드는 여러분 삶이 맑고 향기롭게 개선되야만 비로소 도량다운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한때 머물다가 떠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출가한 스님들은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 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면서 그 도량을 가꾸면서 보살핍니다. 표현을 달리하면 신앙심이 지극한 여러 불자들이 곧 그 도량 수호신입니다. 이런 도리를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처음에 이곳에 절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가지로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지스님을 비롯한 소임자 스님들과 보살님들의 노고로 이와 같은 도량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처음 창건 법회를 할 때 가난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절 · 교회가 흥청망청해서 ‘가난한 절’을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봐도 가난한 절이 결코 아닙니다. 넘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자칫하면 넘치게 돼요.

법회는 마땅히 법다운 모임이 돼야 합니다. 법문내용을 마음에 담아 둬야 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절이나 교회도 어려움을 나눠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어찌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교회나 절도 어려움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종교만 떵떵거리면 씁니까? 우리는 불사에만 매진할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불사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종에 금이 가 있어도 둬야 합니다. 종의 소리에 문제가 아니라 종에 담긴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는가 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길상사도 이젠 안팎으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 도량에 인연 맺은 여러분 삶이 저마다 맑고 향기롭게 변해야만 이름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재가불자들이 승가에 귀의한 것은 그 청정성 때문입니다. 청정성이 승가 생명력입니다. 스님들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세속인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흔히 ‘나만 믿고 살라’며 신도들에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중, 믿을 거 못돼요. 부모나 형제, 저희 집도 버리고 떠나온 놈들을 어떻게 믿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믿을 게 따로 있지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 살아야 합니까?”하는 물음에 부처님은 ‘나만 믿고 살 거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진리에요.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자귀의 법귀의, 자등명 법등명” 이게 근본입니다. 그 밖은 다 허상이에요. 여기에 불교 참 면목이 있습니다. 냉혹한 것 같지만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자기 자신. 본질인 자아, 자기 자신과 진리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삼고 진리를 등불 삼으라.” 그 밖에 것은 다 허상입니다. 이 눈부신 봄날! 새로 피어난 꽃과 잎을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마다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꿔온 그 씨앗을 이 봄날에 활짝 펼쳐 보기 바랍니다. ‘봄날은 간다’는 노래도 있죠? 봄날은 갑니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는 새로 돋아나는 꽃과 잎들이 전하는 거룩한 침묵을 통해서 듣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9일 길상사 법문



시간의 덧없음을 화두로…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합니다. 그만큼 복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제대로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복이 우리를 받쳐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복은 부처님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선별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 지어서 받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복 받을 마음씨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하는 말과 행동이 복을 받을만 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복을 짓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 복을 짓기도 하고, 감하기도 합니다.

새해 달력을 받아본지가 1달이 지났습니다. 1년에서 7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덧 없음을 느끼실 겁니다. 옛사람들은 지나가는 세월을 두고 전광석화라고 했습니다. 이런표현이 나오게 된 것도 시간의 덧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것 일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말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시간에 대해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겨울 눈병을 앓으면서 시간에 대한 뜻을 새롭게 이해 했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안약을 넣으라고 처방을 받았는데 그 한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던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래를 쥐었을 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요. 시계를 보면서 안약을 넣다보니 하루가 훌쩍 지나가더라구요. 막상 내 몸으로 시간과 부딪혀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이런 사실 앞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남은 시간의 잔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덧없음은 굳이 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 시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정다운 자리를 만든 것은 시간을 살린 것이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를 가졌다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살리는 것이고 그토록 귀중한 시간도 무가치하게 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시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시간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안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초부터 연쇄살인 사건으로 새해 첫머리를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우리들 자신의 일상이 그만큼 얼룩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시간을 살리지 못한다.

끔직한 소식이나 뉴스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의식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남게 되요.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해요.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아야 합니다.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도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읽을 책도 그렇습니다. 말도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보다 밝고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면 우리 심성이 맑고 아름다워 집니다. 올 한해 시간의 덧없음을 화두 삼아서 복된 순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십시다.

–2009년 2월 9일 길상사 법문

법정 스님 행장

〈무소유〉 법정 스님은 평생을 길들여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상상했던 〈어린 왕자〉였다.

스님은 193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목포 유달산 자락에서 성장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고뇌를 시작했던 스님은 전남대 상과대학 3년 수료한 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오직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1956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의 제자로 출가했다.

해인사 선원 등에서 공부했던 스님은 28세에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1960년대 서울 봉은사에서 운허 스님과 〈불교사전〉 편찬에 매진했다. 사전 편찬을 하면서 스님은 4 · 19, 5 · 16를 겪었다. 이때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가까이 하면서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서명운동에 참여했다.

1970년 초반 대한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맡았다. 첫 에세이 〈영혼의 모음〉 출판으로 스님의 날카로운 필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8명의 청년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본 스님은 반체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송광사로 돌아갔다.

스님은 당시의 상황을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 증오심이 생겼다.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고 느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출가수행자가 되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에는 들어왔지만 지금도 세상일에 관심을 안가질 수는 없다” 고 설명했다.

1975년 송광사 뒷산에 불일암을 지어 20년 동안 홀로 수행자의

내생에도 출가하고픈 수행자

삶을 살았다. 홀로 있으면서도 스님은 엄격한 수행과 함께 독서를 했다. 이때 발간된 저서가 〈무소유〉(1976년 초판 발간)다.

1992년 스님은 불일암을 떠났다. 출판 등으로 명성이 높아져 불일암으로 많은 불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스님은 재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일암을 떠나 2008년까지 강원도 산골 수류산방에서 생활했다.

1984~1987년 송광사 수련원장을, 1987~1990년에는 보조사상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3년 메말라가는 심성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살아가자는 순수 시민운동을 주창했다.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가 만들어진다.

1987년에 김영한 여사가 법정 스님에게 요정이었던 도심의 대원각을 시주의 뜻을 밝혔지만 거절했다. 10여 년 후인 1995년 스님은 종단의 이름으로 대원각을 기증 받아 1997년 12월 길상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주지가 아닌 회주로 머물다가, 2003년 12월 회주 소임도 놓고 물러났다. 2004년 대한불교진흥원 제2회 대원상 승가부문 수상자인 법정 스님은 공식적으로 수상을 사양하기도 했다.

2009년 4월 병고가 재발해 4월 19일 길상사에서 봄 정기법회, 부처님오신날을 끝으로 스님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병세가 악화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머물렀다.

스님의 저서로는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서 있는 사람들〉 〈물소리 바람소리〉 〈일기일회〉 〈버리고 떠나기〉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홀로 사는 즐거움〉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맑고 향기롭게〉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법구경)〉 〈인연이야기〉 등이 있다.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스님 이름으로 출간된 저서를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선지식을 찾아서’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은 쉽니다.

2010년 봄
햇차 선금주문 할인행사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국내선 4층 입점
· 제다실습(전남 무안군 초의선사)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문의:(061)285-0301,2

단 한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최고금상)한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 햇차 선금 주문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우 전(첫물)	세 작 (두물)	중 작 (세물)
선금 주문 가격	35,000원	20,000원	10,000원
판매 가격	70,000원	50,000원	30,000원
선금 주문 기간	3월01일~4월10일	3월01일~4월20일	3월01일~4월30일
차 만드는 시기	4월10일~4월20일	4월21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차 발송 예정 기간	4월27일~4월30일	5월01일~5월15일	5월15일~5월30일

※ 우전은 4월10일, 세작은 4월20일, 중작은 4월30일까지만 선입금과 함께 주문을 받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 판매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choyee.or.kr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사 생가

▲초의선원

▲조선차역사박물관

▲청와대사랑채 무료시음

▲제다체험

▲한국차문화특강

▲청와대사랑채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내 마음 밝히지 못하는데 학문을 해서 어찌할 것인가

<53> 거사전의 찬술자 팽제청(彭際淸)거사

설가삼과의 끊임없는 논의가 불교숭상의 시작
거사불교 부흥 위해 유학자들에 관심 일으켜


그림 · 김홍인

청대(淸代)는 명대(明代)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또, 청 황실은 불교에 비교적 깊은 신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장경(龍藏)을 편찬했던 건륭제 이후 황제들이 불교를 배척하자 불교는 완전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가 가장 쇠락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청대라고 할 만큼 불교는 명색만 남았다. 더욱이 청대에 들어서면서 명대 4대 고승 같은 두각을 나타내는 승려도 출현하지 않았다. 재가신도와 출가자의 관계를 끊게 하는 정책으로 청 중기 이후에는 승가는 심각한 타락을 겪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를 유지시켰던 것은 유가(儒家)적 학식을 가진 사대부들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승가의 쇠퇴가 거사불교의 발흥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청대 거사들의 활동은 명대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팽제청 거사의 <거사전> 권51부터 청대에 활동한 거사들의 전기가 실려 있다. 명대에 80여 거사의 전기가 수록된 것에 비해 청대에는 25명의 거사만이 게재돼 있다. 이 또한 팽제청 거사가 청대에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고, 그 거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팽제청 거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청대에 중국불교의 명맥을 이어줬던 것이 바로 거사들의 활동이었다.

대표적인 거사가 <거사전>의 찬술자인 팽제청(1740~1796) 거사이다.

거사는 자가 윤초(允初), 본명이 소승(紹升)이며, '제청'은 법명이다. 호는 '이림거사(二林居士)', '지귀자(知歸子)'이다. 대대로 유학으로 명망있던 집안 출신이다. 조부인 팽정구(彭定求)는 강희(康熙) 15년에 장원으로 급제해 국자감 사업(司業)을 역임했다. 부친 팽계풍(彭啟豐)은 옹정(擁正) 5년에 장원급제해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다. 거사 역시 어려서부터 총명해 16세에 제생(諸生)에 발탁됐고, 이듬해 향시에 합격했으며 건륭(乾隆) 26년(1761) 진사가 돼 관직을 내렸지만 사양했다.

거사는 본래 세상을 구하려는 큰 뜻을 품고 이학(理學)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내 마음도 밝히지 못하니, 학문을 해서 어찌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도교에 귀의했다. 3년간 열심히 수련했으나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전적을 읽고서, 마음에 계합해 "도가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라고 감탄하고는 불교에 입문했다.(<정토성현록속편(淨土聖賢錄續編)> 권2) 팽 거사가 직접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든 이는 같은 고향 출신인 설가삼(薛家三)이었다. 거사는 설가삼의 행장(行狀)에서 "나는 처음에 불교를 알지 못했다. 가삼은 자주 나에게 불교에 대해 논했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와 그대는 유방(游方)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부처를 섬기는가?'라고 하자 가삼은 '그대는 스스로는 불교 밖에 있으려 하면서 불교의 밖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대는 더욱이 어찌하여 안이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라고 썼다. 팽거사는 설가삼과 끊임없는 논의 끝에 불교를 숭상하는 마음이 시작됐다고 서술했다.(<호해문집(湖海文集)>권60)

거사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라유고(羅有高)와 왕진(汪縉) 등과 함께 불법을 연구했다. 이들 역시 청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사들이다. 근대에 장지동(張之洞)은 이들 "3인은 모두 이학가(理學家)이지만 불전(佛典)도 아울러 통했다. 이들은 이학의 별파(別派)가 됐다"(<서문답목(書問答目)>)라고 평가했고, 당시에는 이들을 '불학삼사(佛學三師)'로 칭했다.

거사가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양명학과 관계가 깊은 진가(眞可)의 <자백전서(紫白全書)>를 읽고 정식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이후, 운서주굉, 감산덕청, 우익지욱 등 명대 사대고승의 저술을 모두 읽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굉 선사의 '정토법문'에 깊이 매료돼 자호를 '지귀자'로 지었다. 얼마 후에 거사는 소주(蘇州) 화장암(華藏庵) 문학실정(聞學實定) 선사에게서 보살계를 받고, 법명을 '제청'이라 했다. 그 후 팽 거사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고기와 술을 끊고서 극히 검소하게 생활했다. 또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승결의론(一乘決疑論)>을 찬술해 유학자의 몽매함을 일깨우고, 불교와 유학의 조화를 주장했다.

팽거사는 효심도 지극해 모친상을 당해서는 3년간 빈소에서 거주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염불도량를 세워 부친의 왕생정토를 위해 <화엄경> 10부, <아미타경> 1000부, <금강경> 1000부를 송경했고 불호(佛號)를 1000만 번 외었다.

만년에 팽거사는 항주(杭州) 무림문(武林門) 밖에 문성각(文星閣)에서 폐관(閉關)해 오로지 수행과 저술에만 매진했다. 특히 거사는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수행에 전념했으며, 거사가 머무는 곳을 '일행거(一行居)'라고 했다.

팽거사는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앞에서 언급한 <일승결의론> 외에 유가와 불교를 회통할 의도로 찬술한 <화엄염불삼매론(華嚴念佛三昧論)>, 선과 정토의 쟁론을 해석한 <정토삼경신론(淨土三經新論)>과 <행거집(行居集)>, <이림거제의(二林居制義)>, <화석이현친왕윤상전(和碩怡賢親王允祥傳)> 등이 있다. 또, 본 연재를 진행하면서 항상 참조했던 <거사전>과 <선여인전(善女人傳)>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거사가 <거사전>을 찬술하면서 최후의 56권 말미에 <지귀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의 전기를 수록했다는 점이다. 거사는 <지귀자전>을 통해 어려서 유학으로부터 도교를 거쳐 불교에 귀의한 과정을 적었다. "서방에 무량수불께서 대광명을 놓아 오탁중생을 접인해 왕생정토하게 한다고 들었으니,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매일 서방을 향해 배례한다"라는 대목은 거사의 정토에 관한 염원을 짐작하게 한다. <발문>에는 이 저작이 바로 유학과 불교를 융합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부분에는 당시의 승가가 쇠퇴하고 유학 천하인 시대상황에서 유학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거사불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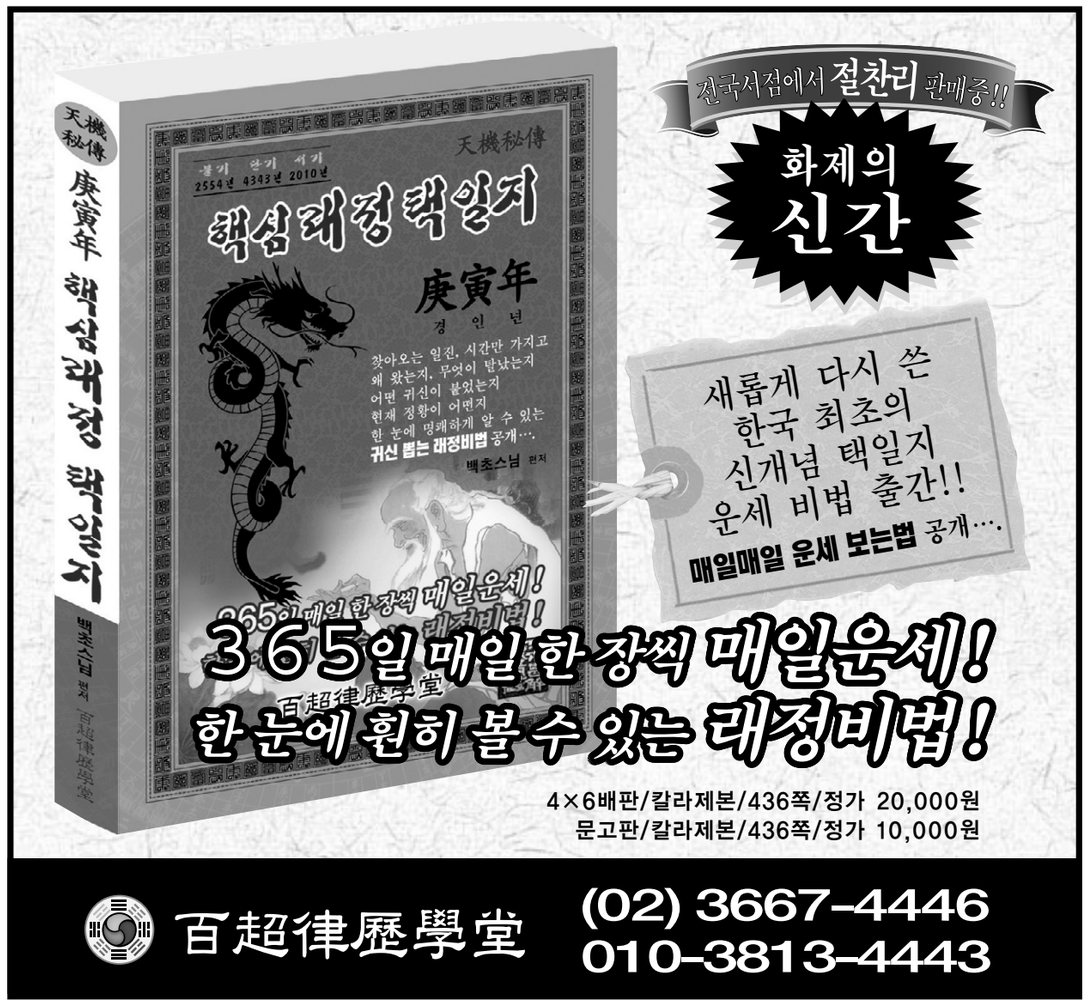
거사는 단순히 불교에 대한 저술과 수행만을 힘쓴 것은 아니었다. 거사는 다양한 방생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경전을 판각해 널리 보급했으며, 수시로 반승(飯僧)과 사찰에 많은 보시를 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850무(畝; 1무는 약 200평)의 토지를 희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거사의 활동으로 그의 사촌동생인 팽축화(彭祝華)와 팽희속(彭希涑) 등 주변의 많은 친족들은 모두 불교에 귀의했다. 팽축화는 항상 거사를 시봉하면서 거사의 수행과 다양한 불사를 도왔는데, 거사는 임종시 그에게 후사를 부촉했다.

팽희속은 자가 낙원(樂園)이고, 호가 난대(蘭臺)로서 어려서 병으로 인해 팽제청 거사의 권유로 항상 염불을 일과로 삼았다. 팽제청 거사가 주굉 선사의 <왕생집>이 너무 간략함을 아쉬워 하다가 팽희속에게 보완할 것을 권하자 흔쾌히 승낙하고서 부인 고(顧)씨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 바로 <정토현성록(淨土聖賢錄)> 9권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팽희속은 <정토현성록>을 완성한 후에 건릉(乾陵) 58년(1793) 10월 13일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토현성록> 권2에는 그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10월 13일 아침에 하인을 시켜 불상을 평상위에 서쪽을 향하게 모시고, 징곡 화상(澄谷和尙)을 청해 "힘드시겠지만, 저를 위해 염불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저녁에 이르자 입으로 불명을 염송하며 오른쪽으로 누워 세상을 떠났는데, 기이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다. 거사의 부인 고온옥(顧韞玉)은 어려서 시(詩)에 능했는데, 29세에 또한 병에 걸려 앓아서 염불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들 부부가 완성한 <정토현성록>은 이후 세상에 유행했다. 팽희속의 친한 벗이었으며 팽제청 거사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던 호연(胡延)은 팽희속이 세상을 떠나자 <정토현성록>(500인 수록)에서 누락된 정토관계 인물들을 추가해 <정토현성록속편(淨土聖賢錄續編)> 4권(175인 수록)을 저술했다.

근대에 양계초(梁啟超)는 <청대학술개론>에서 "건륭시기에 이르러 팽소승과 라유고가 불교에 독실하고 뜻을 두어 신앙했다"라고 하고, 공자진(龔自珍)과 위원(魏源)이 바로 팽제청 거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공자진과 위원은 모두 '공양학파(公羊學派)'에 속한 인물로서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양계초의 이러한 평가는 바로 팽제청 거사가 중국불교의 맥을 근대로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실제로 팽제청 거사는 쇠락해가는 청대불교에 새로운 중흥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이후 다양한 반향을 나타나 중국불교의 혜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했다. 이러한 거사의 역할은 거사불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요절복통 여래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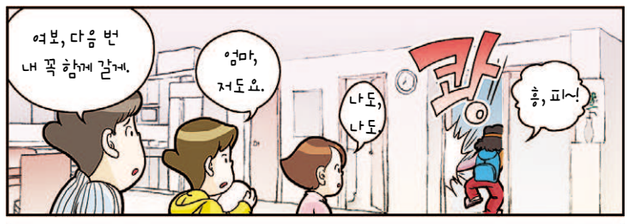
#3. 엄마와 봄나물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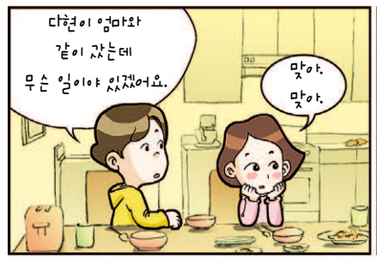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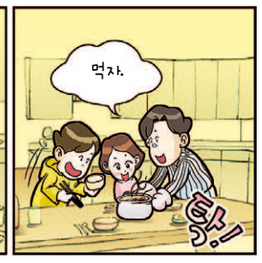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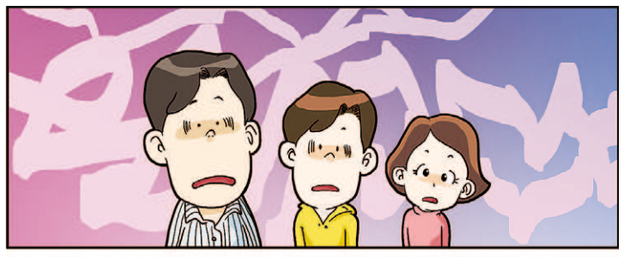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듯
하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도 없으니. 달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준영, 한자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 ·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 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무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제반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편람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 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 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종,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

권중서의 즐거운 사찰 해학 돋보기

우리 문화 알리미 '문화사랑 걸망 메고' 운영… "불교미술 속에 삶 있어"



고창 선운사 천왕문 안 생령좌. 입을 씰룩거리며 쪽진 얼굴을 돌려 원망을 표출한다. 고통스러운 표정이라기 보다는 아직 억울하다는 표정이다(위). 포항 보경사 천왕문 안 북방다문천왕 밑 생령좌. 꼭 다문 입술과 바로 돈 두눈, 고개를 든 얼굴에는 반성의 모습이 역력하다.

"용주사 효행 박물관에는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의 조각으로 멋지게 나타낸 불상이 있다. 부처님이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를 표현한 이 불상은 중생들의 진리에 대한 갈증을 언제나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 먹여 양육하는 것으로 표현됐다. 조선시대 어머니의 모습으로 저고리를 뒤로 젖혀 드러난 젖가슴은 풍만하고 여유로워 언제나 자식을 튼튼히 기르려는 어머니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 부처님? 이런 해학적인 부처님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고요하고 적막한 사찰은 수행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하지만 세상 곳곳에 해학과 익살을 감춰놓고 은근히 즐겼던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거룩한' 사찰이라고 가만 놔뒀을 리 없다.

그래서 저자 권중서(조계종 포교사)는 곳곳에 숨어있는 해학을 찾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사찰 구석구석을 렌즈에 담았다. 학자들이 불교미술을 양식사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저자는 우리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불교미술을 그리는데 사찰의 세밀한 모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경전 · 설화도 소개해 재미를 더했다.

법당 천장에는 용과 족제비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 불화 속에는 부처님 제자들은 설법하는 부처님 앞에서 장난도 친다. 부처님이 앉아계신 대좌 밑에는 비굴한 용이 잠자리에게 쫓겨 다니고, 사천왕 다리 밑에 깔린 생령좌는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유포양육불상(화성 용주사 효행박물관 소장).

이런 여유와 해학은 인도, 중국, 일본의 사찰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찰과 관련 없는 것 같은 조각이나 그림들은 사람들에게 여유와 해학을 주기위한 화승과 조각장의 재치다"라며 "일반 서민이 법당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10여 년 전부터 '문화사랑 걸망 메고'를 운영하며 우리문화 알리기에 주력한 저자는 일반인들도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60장의 도판을 사용하면서 일주문서부터 미륵불까지 다양한 불교용어를 풀어썼다.

종교미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근엄함 · 경직 · 신을 향한 끝없는 복종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미술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불교는 근본부터가 인간의 끝없이 자유로운 사유에서 나타난 깨달음의 종교다. 특히 한국 불교미술에서만 나타나는 근엄함 속에 내재된 여유, 이것이 불교미술의 해학"이라고 말한다.

사찰의 구석구석 불교미술의 해학|글 · 사진 권중서|불광출판사 펴냄|1만8000원

이나은 기자

깨달음의 사회실현

보광 스님 첫 산문집



"나는 이미 '성불'이라는 출가사문의 대과제를 다음 생으로 미뤘다. 그리하여 지난 세월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깨달음의 사회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저 옛날 행자시절 '이 땅의 불교를 일으키자'고 굳게 발원했던 것처럼."

30여 년을 동국대에서 후학양성에 힘써온 보광 스님(청계산 정토사 주지, 종회의원)이 첫 산문집 <연꽃이 피었습니다>를 출간했다.

청계산 정토사에 연지를 조성해 연꽃으로 장엄하고, 연꽃축제를 개최하고 축하할 곳에 화환 대신 연꽃통을 보낼 만큼 연꽃을 사랑하는 보광 스님. 책에는 도량에 핀 연꽃과 대화하며 소박한 기쁨을 찾고, 정을 나눠온 스님이 진흙탕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연꽃향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은 스님이 본지를 비롯해 법보신문, 동대신문 등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산사의 새벽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연꽃의 지혜 △누구를 믿고 사나 △그리운 분들 △불교종책에 대한 몇가지 제언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자로 나눠 수록했다.

40여 년을 출가자로서 살면서 소소한 작은 일상까지도 대중을 위해 남겼던 보광 스님. 현재 동국대 교수 · 종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행자시절 발원한 '깨달음의 사회실현'을 실천 중인 스님의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연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만나보자.

연꽃이 피었습니다 | 보광 지음 | 여래장 펴냄 | 1만5000원

조동섭 기자

어린 중생이 어른 부처가 되기 위한 유행가

우리 시대 보현보살 광덕 스님이 부른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어린 시절에는 구두를 신는 엄마가 참 부러웠었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외출하던 날에는 신발장에서 몰래 구두를 꺼내 신곤 온 집안을 누볐다. 구두 크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발로, '따각따각' 구두 소리를 내며.

나이를 먹고, 원 없이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됐지만 구두를 신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도 편하지도 않았다. 좁아터진 구두 안으로 발을 구겨 넣을 때는 저절로 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더군다나 구두를 신어 물집이 터진 발을 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물집 터진 발로 구두를 신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안으로는 상처가 곪고 터져도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아파도 아닌 척, 울어도 안 울은 척, 슬퍼도 아닌 척, 슈퍼파워 '캔디'형 인간이 돼야한다.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은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러야할 유행가 같은 존재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불러야할 모든 노래가사를 담고 있다. 번뇌란 것은 좀 전까지 손톱만한 크기였어도, 눈 깜작할 새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음을 짓누른다. 비워야할 것들이 금방 차오른다.

아무리 좋은 경전 말씀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뿐이다.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은 부처님께 드리는 서원이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서원이기도 하다. 책은 우리가 부처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부처이다.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도 곧 부처고, 보살이다.

고려시대 균여 대사는 <보현십행원가>를, 우리 시대에 보현보살로 함께 계셨던 광덕 스님은 보현행원을 원으로 삼아 <보현행자의 서원>을 노래했다. 책은 지금 이 순간 부처로 살고 싶으면, 보현행자의 서원을 수지하고 독송하라고 권한다. 나 자신 하나가 바뀜으로 가정이, 이웃이 그리고 세상이 밝아지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선재 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해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문수보살은 "보리심을 발하고 선지식을 찾아 묻고, 보현행원을 하라"고 답했다. 선재 동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법했다. 대승불교의 꽃인 <화엄경>은 무엇이 부처이며 어떻게 부처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법하는 선재 동자는 가장 마지막에 만난 보현보살을 통해 부처의 세계인 법계에 들어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과 같을 지도 모른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선재 동자가 선지식들을 찾아다녔듯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비우고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 물집 잡힌 발로 구두를 신는 것처럼, 삶은 불어터진 발처럼 고달프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기도 하다.



가끔 어른이 되는 과정이 힘들고 지치다면, 보현행자의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듯싶다. 노란색 책에 담긴 서원들이 '망할 구두'를 '구두보살'로 나투게 한다. 한국말 노래가 지겹다면, 영어번역도 함께 들어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광덕 지음 · 김영로 역|불광출판사 펴냄|9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2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3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4	사는 즐거움	보경	뜰
5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6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7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8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리빙하우스
9	조용한 행복	도현	뜰
10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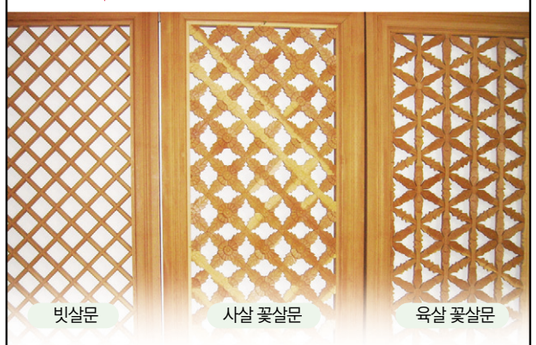


신간! 실증설(實證說)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일구의 도리로 보인 1부와, 태초로부터 영겁에 이르는 성품의 이치를 낱낱이 법문으로 설한 2, 3부를 보아 실증하기를...
www.zenparadise.com

신간!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대원 선사 서문 중에서...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봉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1-82호 법인 설립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나무결에 숨쉬는 불보살 찾아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지정된 한봉석씨



"조각은 실체를 보기 위해, 주변을 깎아 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내 안의 부처를 찾기 위해 참선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수행 하듯이 말이죠."

최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한봉석 목조각장(50 · 사진)은 들 뜬 듯 하면서도 부끄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 작업장을 둔 한봉석 작가는 30년 넘게 목조각의 한 길만을 쉼 없이 달려왔다.

한 작가는 2003년도 화재로 소실된 원주 구룡사를 복구하는 작업을 맡았었다. 한봉석 작가는 "구룡사 복원 때 제대로 된 전통양식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오늘날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자신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 작가는 현재 맥이 끊겨가는 조선시대 불상을 드물게 재현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저는 기교를 잘 부릴 줄 모릅니다. 기교를 많이 보이면 화려한 맛은 있어도 부처님을 제대로 느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작품들을 단순하면서도 투박한 느낌이 많이 들게 합니다."

한봉석 작가는 "조선시대 후기 불상들이 대부분 단순 · 투박한 느낌을 준다"며 "17세기에 불모로 활동했던 희장 스님의 작품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재현하려고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후기는 억불정책으로 불상이 거의 조성되지 않던 시기였다. 불교가 활성화 됐던 고려시대의 화려한 불상과는 달리 조선시대 불상은 어깨가 굽고, 배가 불룩한 채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조선시대는 불교가 억압을 받던 시기라, 부처님 어깨가 굽고 소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굽은 듯한 어깨 형상은 오히려 부처님을 편안하게 보이게 합니다. 불룩 나온 배 역시 참선을 오래한 부처님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민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각장은 1970~1980년대 부흥기였으나, 지금은 그 맥을 잇는 사람이 드물다. 조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연령이 40대이상이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자신만의 인내와 끈기가 부족하면 더더욱 힘이 듭니다. 항상 하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목조각은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 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건장한 남자도 쉽게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목조각 작업입니다. 전수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도 후학 양성을 어렵게 하는데 한 몫합니다."

목조각은 스승에 의해 구법 전수와 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교육돼 왔다. 그러다 보니 정작 기술은 전수받았어도 조각기법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나,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한봉석 작가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학하면서 체계적인 후학 양성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목불장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불상을 조각해 왔지만 제가 부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학문과 기술이 제대로 접목된다면 더욱 좋은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체계적인 후학양성을 도모할 수도 있겠고요."

한 작가는 "조각을 제대로 안 것은 40대부터이고, 인생을 제대로 안 것은 50대부터"라며 "30년 넘게 조각을 하고 나서야 부처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장 스님이 심인(心印)이라는 법명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심인이라는 뜻은 문자와 형상에 치우치지 말고 보살의 마음으로 작업에 열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법명에 깊은 뜻을 담아 주신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하심 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한봉석 작가의 작업장 한 켠에는 불상과 함께 법장 스님의 사진이 모셔져 있다. 한 작가는 매일 작업 시작 전 삼배를 올린다. 마음을 비우고 작품에 임해야 진정한 '부처'를 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작가는 "자라나는 후배들이 좀 더 체계적인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목조각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불법이 큰 울림 되기를…

부천시청 · 광갤러리 · 석왕사서 순회 전시



불교를 사랑하고 사진을 좋아하는 이들이 만나 '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동우회인 심상(心像)은 아름다운 불교의 문화를 자신들의 카메라렌즈에 담아, 불교 알리기에 한창이다. 사진포교예술 단체인 심상은 1989년 처음 동호회를 결성해 20년 가까이 불교포교와 불교문화의 예술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매년 1회씩 전시회를 열어온 심상은, 올해 21번째 전시를 개최한다. 아마추어와 준 프로급 사진가들 14명이 모여 다양한 불교의 모습들을 선보였던 이들은, 이번 사진전에서 불교의 전통의식 사물인 법종, 법고, 운판, 목어 등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심상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고외숙씨는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 동호회원들 모두 불교문화에 심취한 불자들로서, 이들이 카메라로 담아낸 불교의 아름다움을 많은 이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이 전시를 여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상 회원들은 지난해 청계천 인근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호감을 나타내 자부심을 느꼈단다.

김종옥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울림으로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작은 재능으로 중생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심상의 전시는 4~5월 계속된다. 4월 2~7일 부청시청 아트센터, 5월 12~18일 광화문 광 갤러리, 5월 20~21일 부천 석왕사 전시실에서 그들의 렌즈에 담은 40여 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이은정 기자

대리석에 피어난 관조의 흔적

한기늠 '자연과 빛의 조각전' 부산 롯데호텔 1층서

불교계 대표 여류조각가인 한기늠(58) 작가가 '자연과 빛의 조각전'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펼쳐왔던 한 작가는 현재 부산 달맞이 언덕에 작업장을 마련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기늠 작가가 그동안 부산에서 새롭게 작업한 작품과 기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것이다. 전시회에는 기존 작품 20여 점과 신 작품 10여 점 등 30여 점이 소개된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한기늠 작가의 작품은 자연과의 교감아래 길어 올린 그의 명상과 침묵의 결실이다. 한 작가는 차가운 대리석에 또 따른 생명체를 불어 넣어 작품을 완성했다. 자신의 수행을 작품을 통해 이어간 한기늠 작가의 작품들은 서로 유기적 관계로 얽혀 있다.

작품은 대부분 명상, 침묵, 관조나 수행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마치 온화한 부처님을 보듯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연꽃, 여자, 대나무, 은행나무, 기도하는 모습, 의자, 손, 비파나무 잎사귀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기늠 작가는 "그간 많은 분들이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전시는 그런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작품을 통해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기늠 작가의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부산 롯데호텔 1층에서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한기늠 작가의 '자연 속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지도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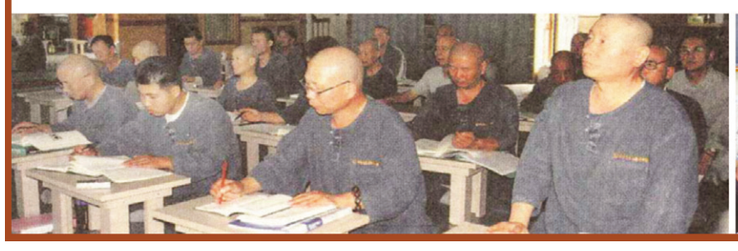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기 간 • 2급과정 (2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집약완성

장 소 • 지하철 4호선 대아미역 하차후 왼쪽 출구, 신영프라자 301호

입학일시 • 2010년 3월 15일 오후 1시 (공개강좌)

사단법인 라마불교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경기도 군포시 대아미동 34-5호 신영프라자 301호
본원 교학과 Tel : 031-502-5522 / 010-9005-4167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불제제완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최연의 산 이야기 <3> 북한산 2

문수지혜 보현행원 켜켜이 쌓였구나

남북 주능선 40여 봉우리

북한산의 주능선은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주능선에서 갈래 친 능선들은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는 형국이다.

북한산의 모든 능선은 삼각뿔처럼 솟아오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국망봉)로부터 그 뻗음을 시작하는데 북쪽으로는 만경봉에서 하루재 넘어 영봉을 일구고 육모정고개를 지나 우이령에서 도봉산에 안기는 우이능선, 육모정고개를 지나 552봉에서 서쪽으로 치달아 상장봉을 일구곤 노고산에 안기는 능선이 상장능선이다.

서쪽으로는 백운대에서 시작하여 시자봉 · 염초봉 · 원효봉을 일구고 효자리로 내려서는 원효능선, 남쪽으로는 백운대에서 시작하여 만경대를 크게 일구고 용암봉 · 일출봉 · 월출봉 · 기룡봉 · 반룡봉 · 시단봉 · 덕장봉 · 복덕봉 · 석가봉 · 성덕봉 · 화룡봉 · 잠룡봉을 거의 높낮이 없이 달려와 보현봉과 문수봉으로 갈라지는 주능선이 뻗어 있다.

보현봉에서 남쪽으로 형제봉과 구준봉을 거쳐 백악에 이르러 경복궁을 부려놓은 형제봉능선, 문수봉에서 서북쪽으로 상원봉 · 나한봉 · 나월봉 · 증취봉 · 용혈봉 · 용출봉 · 미륵봉 · 의상봉으로 이어져 효자리로 내려서는 의상능선, 다시 문수봉에서 서남쪽으로 승가봉 · 비봉 · 향로봉(향림봉)을 일구고 수리봉을 지나 불광천으로 내려서는 비봉능선, 다시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탕춘대성을 따라 내려와 홍지문에서 홍제천을 건너 인왕산에 안기는 탕춘대능선 등이 북한산의 주요한 능선들이다. 동쪽으로는 산줄기 뻗음의 세력은 약하나 주능선에서 정릉으로 내려서는 칼바위능선과 우이동으로 내려서는 진달래능선 등이 있다.

이러한 능선들은 산봉우리들이 이어져 형성되는데, 북한산의 봉우리 수는 기록에 전하는 봉우리만 해도 40여개 정도이다. 여기에 민간에 면면히 이어오는 봉우리 이름들을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만경대와 향로봉은 국망봉과 향림봉으로도 불린다. 그 연유는 신라 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신라의 국운이 쇄하여 새 나라를 찾기 위해 초가암자를 지어놓고 기도를 하던 중 마침내 감응이 있어 뒷 봉우리에 올라 살펴보니 송악 일대가 왕기가 서려 있어 장차 도읍이 될 명당임을 알게 되었다. 초가암자 터가 지금의 도선사이고, 올라갔던 뒷 봉우리가 지금의 만경대인데 '나라를 바라 본' 봉우리란 뜻으로 국망봉(國望峰)이라 부르게 되었고, 향로봉은 향림사 뒤에 있는 봉우리라는 뜻으로 향림봉(香林峰)이라 했다.

도선국사 기도터 도선사

산봉우리 이름에서 특이한 현상은 불교적인 이름의 봉우리가 네 개가 있는데, 모두 북한산의 산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봉우리들이다.

북한산의 중심인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가 부처님이라고 보면 주능선이 남향하여 갈라지는 곳 왼쪽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 오른쪽에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이 자리 잡았다. 보현보살은 북악을 일구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부려놓았고, 문수보살은 북한산의 가장 긴 주능선을 계속 남쪽으로 뻗치고 마침내 백악과 어깨를 겨우는 오히려 백악보다 더욱 수려한 인왕(仁王)을 부려 놓았다.

그리고 남북으로 뻗은 주능선과 서쪽으로 뻗은 원효능선 그리고 서북쪽으로 뻗은 의상능선 상에 북한산성을 쌓았는데 백운대에서 시작된 북한산성이 삼각분지를 이루고 끝나는 양쪽 끝 봉우리가 의상봉과 원효봉인데,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혜의 상징은 의상이요 실천의 상징은 원효임에 틀림이 없다.

고려~조선조 26개 사찰 창건

그야말로 북한산은 불교의 지혜와 실천의 원력이 깃던 성지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함을 간구하며 많은 절들을 지었는데, 북한산성 안에 중흥사 · 태고사 · 용암사 · 보국사 · 보광사 · 부왕사 · 원각사 · 국녕사 · 상운사 · 서암사 · 진국사 · 봉성암 · 원효암 등 13개의 사찰이 있었다.

그 중에 중흥사와 태고사만 고려시대의 사찰이고, 나머지는 북한산성 축성 후 북한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창건한 절이다. 13개 사찰 대부분 폐사되고 태고사 · 국녕사 · 상운사 · 진국사 · 봉성암 · 원효암은 최근에 중건되었는데, 진국사는 현재의 노적사이다.

북한산성 밖에도 향림사 · 승가사 · 문수사 · 진관사 · 신혈사 · 삼천사 · 청량사 · 적석사 · 도성암 · 장의사 · 도선사 · 화계사 · 인수사 등 13개의 사찰들이 지어졌다. 고려 현종 때 거란족의 침입으로 개성 송악산에 있던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임금의 관)을 안치하였던 향림사, 고려 현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진관 조사의 보호를 받으며 승려생활을 했던 신혈사, 고려 예종이 남경을 순행할 때 잠시 머물렀던 청량사, 훈련도감의 창사(倉舍)로 변한 노적봉 아래 적석사, 조선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이었던 도성암, 신라 무열왕 때 황산벌 싸움에서 전사한 장춘랑(長春郞)과 파랑(罷郞)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장의사, 고려 선종이 승가굴에 거동하였다가 이곳도 참배하였다는 인수사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북악에서 바라본 북한산, 문수봉과 보현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형제봉능선을 지나 북악으로 흘러들고, 왼쪽으로 비봉능선 탕춘대능선이 길게 하늘금을 이루고 있다.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흔들리다

비와 눈이 번갈아 내리더니 양지바른 둔덕에 푸릇한 기운이 돋았다. 둔덕 옆을 흐르는 도랑가에도 푸르거나 붉은 빛의 풀들이 솟았다.

아직은 겨울의 차가움이 내복 속으로 파고드는데 어쩌자고 저 여린 것들이 흙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을까? 나보다 강한 것이 저 여린 싹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제 넘는 의문이 스치는 것은 왜인가? 아직도 나는 세상에 대해 버릇없는 강아지인가?

서둘러 집 앞 텃밭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가지치기에 들어갔다. 물이 오르기 전에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절단면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포도나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보기 싫으니 가위를 들고 나서야 했다. 싹둑 싹둑 포도나무의 팔들을 자르는 일은 마음 속에선 하고 싶지 않은 짓이다. 덩굴이 자라는 대로 놔두고 열매가 달리는 만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작물의 입장이 되어 지금의 농사를 바라보면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장이다.

과수원에선 팔을 자르고 꽃과 열매를 솎아내고 열매에 봉지를 씌우고 불쑥불쑥 농약으로 목욕을 시킨다. 많이 열리고 크게 열리고 인간의 입맛에 맞는 열매가 달리게 변형시킨다. 작업에 편하게 키도 작게 만든다.

일반 작물들도 유전자를 조작한 씨앗을 사용하는가하면, 품을 적게 들이고 수확은 많이 얻기 위해 흙을 비닐로 덮고 가지나 덩굴이나 줄기를 자르고 줄로 묶고 지지대를 세우는 등 내버려두질 않는다. 토양 살충제로 땅속 벌레를 죽이고 제초제로 풀을 죽이고 농약으로 땅 위의 벌레와 미생물들을 죽이고 총이나 덫 그물 그밖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새와 산짐승을 죽인 대가로 곡식을 얻는다. 돼지나 소 닭들은 고정된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먹고 싸고 자다가 자리를 벗어나면 죽음이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산으로 들어온 내가 작물에겐 폭력을 가하여 먹을 것을 얻

천하태평한 농법도 있다고 하지만
높고도 높은 하늘의 애기로만 들린다

고 있으니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이다. "작물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극히 사람의 관점이다.

작물 스스로 사람을 기다리고 반긴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경쟁상대인 풀을 제거해주고 퇴비를 주는 등 작물이 좋아할만한 일을 해주기도 하나 작물의 허락을 받고 작물이 원하는 소리를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농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된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는 말자며, 작물들을 위한다는 몸짓만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으나 농사짓는 방법까진 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가족이 먹는 먹거리인 만큼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치지 않고 손으로 벌레를 잡아주며 농사를 짓긴 한다. (병이 돌면 딸 것이 없는 고추만은 예외로 약을 쳐서 수확을 하고 있다.) 갈지도 않고 김도 매지 않으며 농사를 짓는 천하태평한 농법도 있다고 하지만 높고도 높은 하늘의 얘기로만 들린다.

농사짓기가 점점 싫어진다. 인위적인 폭력과 반복적인 일의 특성이 농사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천직으로서의 농부는, 인위적인 요소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았던 농경사회 시절의 관념일 터이다.

자연스럽지도 순리적이지도 않지만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중요성을 깎아내릴 수도 없는 농사라는 일. 사람의 숙명 중에 이만한 것도 없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지금의 사회구조와 인구수는 수렵과 채취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위적인 농사법을 사용한 농사는 필연이다.

인위를 멀리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해온 지난 10여년의 삶의 형태에 대한 집착에서도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것인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를 놓아주어야 하는가?

전지가위를 들고 서녘 하늘을 바라보니 해 떨어진 곳에 노을이 붉다.

'이놈, 아직도 누군가 네 목구멍에 먹을 것을 넣어주길 바라느냐!' 들려오는 소리가 내 가슴조차 붉게 물들인다.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14-1 일본산 후리지아향(단)



13-1 일본 영원향(소바라)



13-2 일본 영원향(소바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2-1 야광용 핑크 70ƒ×35㎝ / 2-2 밀납초 반야심경 70ƒ×35㎝
2-3 쑥향초·야광용 70ƒ×35㎝ / 2-4 봉황색 전사지 70ƒ×35㎝



7-1 P.C 컵 밀납초 받침대 / 7-2 P.C 컵 밀납초 연소시간 약 8시간
7-3 바람막초



5-1 웨딩초 육각초 70ƒ×45㎝



15-1 액체 파라핀 18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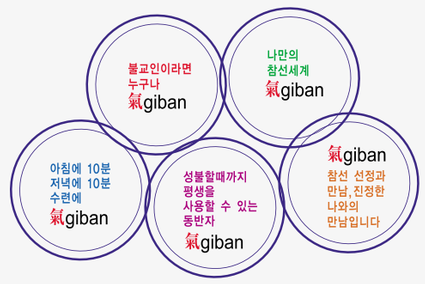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 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 동영상 교육
기초부터 실무까지 책임지도
개운명리학회 지도교수
(개운정사 남광스님 특강)
1. 인터넷 고화질 동영상 강의
2. 개인지도, DVD 교재 판매
● 다음카페 : 개운명리학당
010-7227-6007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卍불교전통의식卍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전통범음범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범음대학)

서예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서예대전 출품 입선작
한글반야심경, 한문반야심경
(정자)을 인연있는분에게
각 10만원에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십시오.
010-8929-1215

조용한 암자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기초(명리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 기초에서 응용까지
- 3개월 완성
- 개인 및 단체강의
- 저렴한 비용

문의 전화 : 011-711-5072

염불 역학
조용한 산사에서 승려가 개인지도
스님, 예비스님,
법사, 사찰운영자
염불역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 (숙식제공)
011-716-3811

비워있는 절
기초 행자 구함(女)
의식 지도함
수월사
011-307-011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011-9854-98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월 110만원
010-7706-892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782-3216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비구니 스님들과 평생을 함께 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832-9921
010-8916-0408

기도스님과 평생을 함께 하실 화주시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부여
041)835-3933
010-8353-3337

금년 봄부터 따는 최고 영양좋은 **동고버섯**
(종균 주입 후 1년 숙성된 것)
표고버섯목 판매합니다
만성스님
010-4773-3688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9469-6625

50세 이하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근교
010-9308-991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043)532-2072
011-213-7443

전남 농촌 사찰에서 노보살님 모시면서 절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1-842-2531

미래유망직종 사주
- 명리 3개월 과정 (개인지도)
- 운전기사 모집

서울 강남구 개포동 (분당선 구룡역 1번출구)
심복사 010-5207-5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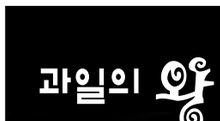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침 술 秘 法 무료강의
'초종파 / ' 본 강의와 因緣되어 佛事에 도움 되소서!
제1강 : 빙의(최면), 신병, 용신이름법, 초간단명리(적중율 90%)
제2강 : 오행은 삶의 지혜, 오행과 침술, 내몸 내가 고친다
제3강 : 정골요법, 일침요법, 각종처방(견비,허리,무릎,중풍,심장질환)
*침, 특수활용법 (한의학박사 특별강의)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수요일 10시~16시까지 (1박2일) 장 소 : 경남 마산시 법향사 법당
연락처 070-8861-3359 핸드폰 010-9027-3117
- 좋은 인연 되소서 -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근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갑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0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행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3개월 단기 기치유 기초 완성
"기치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체의학입니다.



50년 전통의 기치유 수련원
(2대에 걸친 한국 기치유연구회)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합니다.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난치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체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아니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서울 : 양성반 46기 개강
◆ 수련일자 : 2010년 3월 13일(토요일)
◆ 시 간 : 오전 10:30~1:00(주1회 11주과정)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대구 : 기치유 수련반 수시모집 문의 : 053-652-2202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대불교 조계종 입종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에 제방 스님 법사님들께서 대불교 조계종 입종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입종자격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포교당을 개설하실 분 부처님을 뫼시고 수행하시는 법사님, 보살님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3매
(입종원서 등은 본종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본 종단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불교 조계종 총무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확생회관 1길 29호
전화 041)551-5537 FAX 041)621-553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
- 법당 : 18평
- 요사 : 34평
- 부지 : 187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5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및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300평
- 법당 : 60평
- 요사 : 30평
- 가액 : 8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4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시내 아담한 법당
- 대지 평수 : 86평
- 2층 : 법당 26평
- 1층: 요사, 방 4칸
- 주차장 40평, 지하철 인접
- 가액 : 3억 7천

부산 근교 아름다운 절
- 총 대지 : 약 3,000평
- 목조법당 및 건물 6동 (요사채, 산신각, 종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주차장 300평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평수: 3층, 4층, 5층(135평)
- 3층: 방 4개(처소, 친견실, 종부소, 부전실 外)
- 4층: 공양실 및 큰방 3개 ●5층 : 대법당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2,800만원(절충가능)
- 도심 포교당 최적지, 좋은 조건임

010-2599-602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4억

011-877-7677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 대지 : 도로 부지 포함해 160평
- 건평: 법당(25평), 요사채(32평) 산신각(방1 별도)
- 가액 : 4억 (가격절충가능)

010-6286-51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옥천면
- 대지 23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요사채, 방5개, 창고, 화장실
- 황토찜질방(3평)
- 가액: 9천5백만원(가격절충)

017-573-6067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 전기시설 완비
- 평수 20평
- 조립식 건물
- 대지 370평
- 포교하실분 적합
- 가액: 1억 4천만원

010-5020-8599

포교원안내

- 위치: 양주시 벽석읍내, 의정부시내10분거리
- 2층건물 중 2층, 20평
- 삼존불,아미타불,관음대세지,지장단, 지장보살, 신중탱화 104위, 칠성, 신신탱화
- 년 세 200만원. 보증금 無,
- 스님 사정상 급 양도
- 시설, 상담 후 조절

031)877-2677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위치 최상)
- 평수: 약 400평
- 요사채 방 4칸 , 창고1 대웅전, 산신, 용왕, 칠성
- 주차시설양호
- 가액: 평당 93만원(가격절충)
- 주지스님 건강 상 양도

010-2954-1288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포교원안내

- 서울 청량리역 부근
- 요사채1동(방2, 거실, 욕실, 부엌) 법당(30평), 다락방, 주지실, 부엌, 마당(30평)
- 삼존불, 지장단, 1자원불 500불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교통 편리

010-5040-010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감만시장 앞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3층법당, 4층 요사
- 동불 삼불
- 즉시법회 가능
- 시설비 1,500만원 절충가능

051)638-113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3동
- 반지하 포함 4층건물 전체
- 주차시설 좋음
- 큰법당 35평, 지장전 30평, 공양간 및 방 35평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 5천 포함)

010-9665-0209
010-3848-165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층 건물증 3층
- 평수 45평
- 내부시설 완벽
- 보증금 1,1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569-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약 54평, 건평 약 28평
- 법당, 요사(방2)
-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 가액: 8천 2백만원 (시설비포함)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내방역 2번출구
-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약 50평.삼존불 (동불)
- 가액: 8천만원 중 , 보증금 2천만원, 시설비 6천만원 월 245만원 (부가세 별도)

02)522-4984
010-5851-498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역 앞
- 주차장 완비● 평수 80평
- 법당, 방3, 스님 별도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병안 문제로 급 양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1-685-67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2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울주군 청량면 율리 751번지
- 대지 250평, 법당, 45평
- 요사채: 20평 ●이층(산신각)
- 가액: 4억(현 시세 평당 200만원)
- 상담 후 조절 가능
- 전원주택별장으로 사용가능

011-847-1556
052)224-55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서구 비산 4동
- 법당 약 30평
- 삼존불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732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평수 280평
- 법당 22평 (불사중 90% 완공)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화장실
- 50년이 넘는 오래된 사찰
- 정하는 금액에 양도 하고자함

010-3877-257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59번지
- 대지 약 900평, 법당 50평,
- 요사채: 50평 산신각 6평,
- 주차장 약 500평
-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1703-2770

단독건물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 평수 80평
- 법당 20평, 큰방4, 공양간, 화장실, 시설일체 완비
- 보증금 450만원, 월 35만원

010-4053-2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6천만원 대출 5천만원 가능함

011-540-3313
010-2093-23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016-9290-4656
032)347-4656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
- 산과 바다가 어울러진 토굴
- 대지 86평
- 건물 24평
- 가액 : 6천만원

011-840-82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포교원안내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한국민속촌 부근
- 포교원 1,2층
- 총평수 200평
- 주차가능
- 보증금 6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8766-20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 단월
- 대지 205평
- 신축건물 57.26평 (황토 목조 기와지붕)
- 1층 34.37평, 2층 27.91평
- 비산계속, 앞 전망 좋음
- 용문전철 개통
- 가액: 4억 3천만원

010-6438-3561

포교원(상담소)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중심가 (재래시장입구, 상가 3층)
- 상담실, 침실, 샤워시설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비구니스님, 보살님 적합

010-3011-0853
031)633-0345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 재래시장안에 있는 포교당
- 보살, 법사님, 스님에게 적합함
- 법당 45평
- 보증금 4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2)266-981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남대로, 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A급
- 법당시설완비
- 사무실, 방1
- 시설비 포함 7,000만원

010-4031-6643

암자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역 3분거리
- 도로인접,
- 뒷산 독바위, 정남향
- 전체 467평
- 가액: 평당 5만원

010-5048-9949

현대식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국도변위치(교통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10평, 주창장 넓고 정원수 많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양옥 65평 1동 (최고급 실내 원목 사용,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 법당: 20평 1동(현대식법당 법사님 보살님 적합)
- 가액: 2억 4천만원(은행융장 7000만원 포함)
- 가액절충 전세도 가능

010-7448-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요사채3, 방 3,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소불 1500불, 용왕당, 문수동자200불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주차장 확보 (주인직)
- 가액: 4억 (절충가능) ● 교환도 가능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10분거리(8km)
- 부지: 총5200여평(종교1000여평) [전체 관리지역]
- 건물: 법당:외5포내9포25평,지장전목조17평, 삼성각목조8평,요사채54평,45평, 황토목조18평,5층사리탑,등
- 주변: 아름다운조경,대형주차장,텃밭천평 (건물가능),별장터.
- 가액: 15억 상담후 절충가능

055)356-6083
sambon4@naver.com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8억 5천만원, 평당 30만원(전체가 한송이 명당)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

043)744-295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단양, 경관 수려
- 대지 320평, 200평
- 2층 법당(급 단청 되있음) . 1층 요사채 60평
- 삼성각(조립식) 20평
- 마당에 선미륵 2분, 선방 25평
- 밭 450평, 요사채 27.5평
- 가액 : 5억 5천만원(절충가능) , 교환가능

010-6436-9888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
- 대지 150평, 건평 25평
- 큰방2, 거실, 다용도실, 실내목욕,화장실.아파트구조식
- 주위 환경 공기좋고 조용합니다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휴양 및 요양 토굴 정진하실 분
- 전세 3000만원
- 집 깨끗합니다(일부 생활집기 완비)

010-5120-5275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 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011-9071-771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⑩ 척추 만곡증

10세 전에도 척추가 휠 수 있다

꼬부랑 할머니가 갖고 계신 낙타 같은 등을 척추만곡증(이하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흔히 듣는 '등이 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만곡증의 다른 표현입니다. 척추만곡은 체중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커브가 과도하면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연 노화 현상으로 등이 굽는다고 생각 했지만 요즘에는 오랜 의자생활로 10살 꼬마들도 등이 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나이를 불문하고 만곡증의 위험에 노출돼있습니다.

만곡증은 우리 몸의 경추(목뼈)가 거북이목 구조로 변형되면서 전만(앞으로 기울어짐)되고, 동시에 흉추1~5번 후만(뒤로 기울어짐)되며 유발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몸이 구부정한 자세로 변형될 수록 경추와 연결된 턱관절(TMJ, 하악관절)에 불균형이 와 안면 비대칭 증상을 유발시킵니다. 만곡증으로 유발되는 증상은 어깨 결림, 목 뻣뻣함, 요통 등이지만 심한 경우엔 팔 · 다리가 저린 경우 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척추의 생리적 만곡(커브)이 소실되기 때문입니다.

만곡증은 측면에서 관찰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특성은 머리가 앞쪽으로 돌출되면서 턱이 들리고 허리부위에서 척추가 뒤로 튀어 나오고 엉덩이가 너무 펑퍼짐하거나 반대로 오리궁둥이인 경우 만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바닥에 누우면 허리부분이 손바닥 한 장 높이보다 더 들리거나 반대로 바닥에 닿아서 배기는 경우 등이 만곡증에 해당됩니다.

만곡증은 대부분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10세 전후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키가 크면서 척추가 휘어지고 잘못 된 자세로 등이 구부정해 집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2차 성징이 급격히 진행 돼 발병률이 더 높습니다.

필자에게서 치료를 받은 한 여학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학생은 15세의 나이에 친구들보다 2차 성징이 빨리 찾아왔고, 가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던 나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 항상 자세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증상은 심각한 만곡증 이었습니다. 가슴을 가리기 위한 잘못된 습관으로 목은 거북이 목처럼 돼 버리고 등은 심하게 튀어나와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 · 어깨 · 등 부위가 뻐근한 근육 통증으로 책을 보는 것 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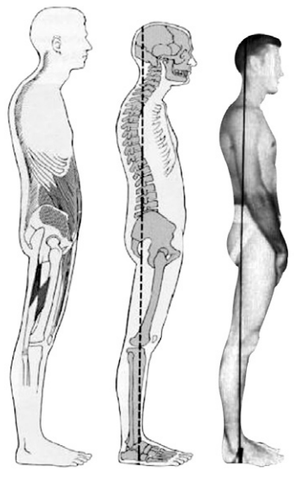
필자는 이 여학생의 불균형 상태를 측정, 분석하여 안내한 개별 교정운동을 처방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는 균형 잡힌 체형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여학생은 구부정한 만곡증 증상이 바르게 펴지면서 키가 5cm정도 자라는 효과가 나타났 습니다.

만곡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고 앉아야 합니다. 또 차안에서는 가급적 등받이를 세우고, 서 있을 때는 머리위에 풍선이 매달려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때는 탄탄한 매트리스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바로 눕기 등의 노력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척추의 변형은 각종 질환 및 병변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 습관으로 척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만곡증에 도움이 되는 '굴신운동'이라는 운동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두 다리를 붙이고 바른 자세로 선다.
2) 두 손은 뒤로 깍지를 끼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 준다.
3) 상체는 앞으로 숙이는데 허리를 집어넣지 않고 일자를 만든다.
4) 팔은 올려주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뒤로 젖혀준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척추 만곡증 환자의 측면 형태. 등 부분이 뒤로 튀어나오고 배 부분인 요추(허리등뼈)는 앞으로 나와있는 모습이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⑩

부처님도 무술수련을 했을까?

불교의 한자말은 부처 '불(佛)'과 가르칠 '교(敎)'를 씁니다. 즉 부처님이 가르치신 교리를 불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당시의 전반적 사항과 변천사를 아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좋은 문화라면 그냥 계승되면 되는데 왜 사라지고 변형되고를 반복할까요? 현재 학술적으로 밝혀지는 소림 무술의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교적 문파의 개념을 떠나 크게 성행한 무예는 소림무술로 이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림사는 하남성 등봉현에 있는 숭산의 소실봉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림사'라는 이름 자체가 '소실봉의 북쪽 숲속에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소림사의 창건주는 1,500년 전에 인도에서 온 발타선사입니다.

소림사의 조직은 장문인(掌門人)을 방장이라고 부르는데 방장이라는 칭호는 원래 천축(인도)의 유마거사가 처음 호칭한 것으로, 불법을 많이 닦은 고승들이 밀실에서 도를 수련한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대체로 방장 밑에는 그를 호위하는 팔대호원이 있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를 감원이라고 합니다. 그들 외에 십계십승(승려들이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을 관리)이라는 열 명의 승려들을 있는데 절 안에서 이들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금강역사(金岡力士).

소림사의 무술이 명성을 얻은 것은 당나라 시대의 태종 이세민 때문입니다. 이세민은 왕이 되기 전에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뤄양에 왔다가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이때 무예가 뛰어난 13명의 소림사 스님들은 이세민을 구출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 정예 승들은 적진을 물리치고 왕의 구출작전에 성공합니다. 이 일로 이세민은 소림사에 각종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 혜택 중에는 '소림사 스님들은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조항까지 있었으니 당태종이 소림사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인 무술연구가인 '당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달마 대사가 전했다는 <역근경>과 <세수경>은 도교주의에 의한 양생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역근경>의 원전도 1800년대 이전의 것은 출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경전들은 저자를 달마대사로 가탁한 것이지 달마대사가 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두 경전이 정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라면 부처님 당시에도 무술수련을 했어야 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무술의 원류를 주장하는 학자 중에 무술은 인도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솔직히 이 말은 추측 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도 역시 무술이 존재하지만 지금의 권법 형태의 무술이 아닌, 전쟁에서 사용되는 병장기 위주의 무술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달마 대사가 이 두 경전을 전수했다고 해도 이는 교학적인 측면에서 위경에 불과합니다. 이 두 경전은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차가 많으며, 공부하는 이들도 '설사 위경이라도 전통이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불교에 귀의하지 못하는 부류 중에 대부분이 '경전을 읽어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만 나열되어 믿음이 안간다'라는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절에 처음 오는 초심자들에게 부처님의 태생이나 상호만 강조하며 맹목적인 신앙을 권유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상호가 우리에게 환희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를 묵과한 체 보이는 것만 강조하는지 아쉽습니다. 사람은 낮춘다고 낮춰지는 것도,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부처님이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 지라도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니까요.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⑩ 관절염

활액을 정화해야 관절 좋아져

인체 내 206개의 뼈 가운데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뼈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관절(articulation)이라 한다. 관절로 연결된 뼈의 끝 부위 한쪽은 불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를 관절머리라 하고 다른 한쪽은 관절오목이라 한다. 이중에서도 관절은 오목한 형태가 많다. 관절 끝 부분은 관절연골(유리연골)로 덮여 있다.

또 뼈와 뼈 사이는 작은 공간이 있고 이 공간 속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滑液)이 들어 있다. 뼈 외부는 관절주머니로 싸여 보호되고 이 주머니 바깥쪽은 많은 인대(뼈와 뼈를 연결하는 섬유조직)가 있어 관절을 보강한다.

관절염은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다. 관절염은 원인에 따라 화농성(피부의 상처 또는 혈액을 통해 관절강 내로 침입해 발병되는 증세), 결핵성(근육이 여위고 가늘어지는 증세) 등의 감염성과 류마티스 · 외부상처로 인한 것, 퇴행성 등으로 나눈다.



매일 아픈 관절 부위를 괄사하면 관절염은 치유될 수 있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주 2회 전신괄사 (어린이 60분, 어른 90~120분)
<부분 괄사>
1. 매일 두피, 흉선(심장의 대혈관의 앞쪽에 있는 기관), 얼굴, 목 등 괄사
2. 아시혈(관절 아픈 부위)주위에 괄사유를 듬뿍 바르고 꼼꼼하게 괄사한다. 무릎 관절일 때는 무릎을 중심으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긁기 괄사하고 슬개골(膝蓋骨, 무릎뼈) 주변을 튕겨 준다.
3. 무릎 부위 관절은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부위와 환도(環刀, 대퇴골)부위를 긁고 튕겨 준다.
4. 등판 전체를 세로 밀기 괄사 후 튕겨준다
5. 류마티스 성 관절염은 관절 발생 부위마다 괄사한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미모사 3. 달오름 4. 보라매소 5. 보라매대
2. 침구, 의류는 일체 면제품을 써야 한다.
⑶유의사항
1. 관절염이 심한 부위는 보법(補法, 음양의 편중을 조화시킴) 괄사를 해준다.
2. 괄사를 하면 관절염에 효과가 빨리와 다리를 아끼지 않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손상이 온다.
3. 아픈 관절이 좋아져서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3개월 이상 매일 꾸준히 괄사해서 연골이 회복되고 활액을 정화해 인대기능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60세가 넘은 사람은 매일 관절부위를 괄사를 해주면 탈이 나지 않는다. (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775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 732-1522
FAX 02) 737-0696

경기지역 포교원
●4층건물에 3층총=40평 원목불단
●상주 120평 건평25평
●시골집 4500만원(조절가능)
●시설비+보증금 3500만원에, 월세 45만원
010-8676-2406

사찰안내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대지 230평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적합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포교원안내
●위치: 김해시 부원동, 도로변 2층
●272평, 방1, 부엌, 화장실
●사무실, 대기실 ●현재운영중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5669-1414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
☞ 1억원 대출시 월이자는 62만원입니다 !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형산새마을금고는 30년 전통과 (설립일1980.01.26) 우수새마을금고 내부부장관 표창(제4856호)등 여러차례 수상경력이 있는 사찰대출 전문 새마을금고입니다.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않나요?
대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하여 올라 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는 변동금리와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갚을수 있나요?
조금씩 갚으셔도 되고 갚은 만큼 다시 빌릴 수도 있으며 특히 대출금을 갚을실때 위약금이 없습니다.
▶대출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나요?
법원등기비용과 3억이상 대출시 공인감정료 이외엔 출장비, 대출수수료, 꺽기등의 비용이 일체 없습니다.
대출지역 : 전국
대출형식 : 담보대출
대출금액 : 3천만 이상
대출금리 : 연7.2%~7.6%
대출기간 : 3,5년(연장가능)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구.죽도2동)새마을금고 본점
죽도2동의 새이름-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선방일기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자전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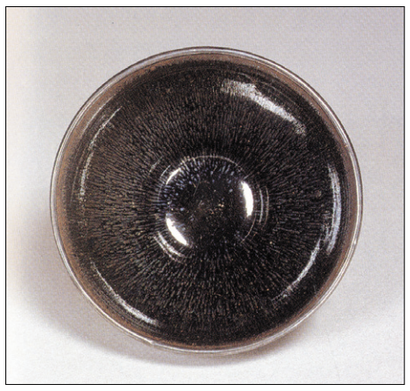
다구를 찾아서

5 다구의 예술성

흰 거품 눈처럼 엉겨 꽃으로 피어나다

당대에는 음다(飮茶) 풍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탕법과 다구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대가 차의 탕색과 찻잔의 조화를 감상하는 예술적 안목에 눈 뜨기 시작한 시기라면 송대는 다구의 예술성을 극대화한 시기이다. 이러한 요구는 도자기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송대에는 장시성(江西省) 징더전요(景德鎭窯)의 백자, 저장성(浙江省) 룽취안요(龍泉窯)의 청자와 같은 청백유 자기, 마치 얼음에 금이 간 듯한 빙렬문(氷裂紋)자기로 유명한 가요(哥窯) 등이 있었지만, 그 중 건요(建窯)에서 생산하는 흑유잔(黑釉盞)을 최고의 찻잔으로 꼽았다.





송 건요흑유토호문차잔(建窯黑釉兎毫紋茶盞).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높이 7.0cm, 지름 12.2cm, 바닥 지름 3.9cm.

복건성 건양현 수길진(福建省 建陽縣 水吉鎭)에 위치한 건요는 당 말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자기생산지로 유명했다. 건요는 원래 중국 강남의 일개 민요(民窯)에 불과했으나, 송대에 들어와 황실용 찻잔을 만들게 됐다. 건요 흑잔(黑盞)의 경우 표면에 토끼털과 같이 은색 광택의 결정유가 나타나는 토호잔(兎毫盞)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품이었다. 건요에서 만들어진 찻잔을 지칭하는 말로는 건잔(建盞) 이외에도 건구(建甌), 흑건(黑建), 자건(紫建), 자구(紫甌), 오니건(烏泥建), 자니(紫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특히 건요의 토호잔이 최고의 찻잔으로 각광 받은 것은 점다법(點茶法)이라는 탕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송대의 제다는 당대(唐代)의 단차를 만드는 법과 유사하지만 '찻잎짜기(榨茶)'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됐다. 찐 찻잎에서 엽록소와 같은 진액을 짜내는 방법으로 기존 제다법에서 발전된 과정이다. 이 방법은 차의 쓴맛을 제거하고 백차를 선호했던 송 휘종의 차에 대한 심미안에서 나왔다. 송대에 말발은 희고 달고 매끄러운 차 맛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차색을 잘 드러내는 검은색 잔을 선호했다.

당대의 탕법이 솥에 차를 넣고 끓여서 나눠 마셨다면 송대의 탕법은 각자의 잔에 직접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다말(茶沫)을 만들어 마셨다. 먼저 차연으로 가루를 내 체에 쳐서 더욱 고운 찻가루로 만들었다. 이것을 뜨겁게 덥힌 찻잔에 넣어, 끓인 물을 붓고, 차선으로 휘저어 백색 거품-말발(沫勃)을 일으켜 마신다. 백색의 말발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또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의 하나였고, 건요의 토호잔은 말발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최상의 찻잔으로 선택됐다. 이렇게 차를 내는 일련의 과정과 감상하는 기쁨은 문인과 화인들의 시제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록(茶錄)>을 저술한 채양(蔡襄, 1012~1067)은 건안의 토호잔을 으뜸으로 여겼고 직접 소장했다고 알려진다. 그의 시<시다(試茶)>에는 토호잔에 흘러내리는 말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兎毫紫甌新
蟹眼清泉煮
雪凍作成花
雲閑未垂縷
願爾池中波
去作人間雨
새 토호문의 찻잔에
게눈의 맑은 물로 (차를) 다리네.
눈처럼 엉겨 꽃처럼 핀 말발
희디흰 말발, 쉬이 흩어지지 않는구나.
바라노니 잔속의 흰 구름(말발)아
떠가서 세상에 단비가 되어라.

(朴東春譯)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6 범어사 염화실 돌담 아래서

어느 해 봄이었다.

개울의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고, 얼었던 땅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남쪽의 땅은 더 일찍부터 봄이 와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부산 범어사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했다. 자연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 같다. 염화실 돌담 위엔 무겁던 눈이 녹고 하얀 매화가 피어 있었다.

하얀 매화가 쏟아지고 있는 돌담 밑으로 스님 두 분이 반가운 합장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오랜만인 것 같았다. 짧은 인사 속에 서로의 오랜 세월을 묻고 있었다. 다시 만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인연으로 꽃으로. 누구의 말씀처럼 조금만 더 따뜻해지고 조금만 더 친절해질 일이다.

한 순간인 이 짧은 순간에도 수 천 개의 꽃송이가 피고 있다.

옛 판화의 세계

나계에서 법을 일으키다 (螺溪興教)

송나라 때 오월의 충이왕이 어느 날 영가집을 열람하다 의문점이 생겨 천태산 희적 스님에게 물었다. 희적 스님이 답하기를 지자 대사의 현묘(玄妙)한 법문인데 교적이 흩어져 해외에 있게 됐다고 설명하자, 오월왕은 10명의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 교전을 구해오게 했다.

삽화는 아름다운 전각 속에서 희적 대사와 오월왕이 대화하는 모습과 함께 사신을 파견해 일본국으로부터 경전을 모시고 오는 상황을 표현했다. 희적(羲寂) 스님은 영가 호(胡)씨 출신으로 어려서 출가해 법화경을 한 달 만에 통철하게 됐고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지관을 배웠는데 곧바로 깨쳤다고 한다.

안녹산(安祿山)이 난(중국 당나라 중기인 755~763년 안녹산과 사사명 등이 일으킨 반란)을 일으키면서, 천태종의 교적은 회창년간(會昌年間)에 불살라지고 사원은 허물어지게 됐다. 희적 스님은 이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어느 날 충이왕은 어떤 인연으로 영가집을 열람했다. 거기에는 현각 스님과 함께 제수된 네 사람이 이것에 머물며 재를 올린 일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충이왕은 그 연유에 대해 덕소 국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덕소 국사는 이 같이 대답했다.

"이것은 교의 내용이니 천태산 희적 스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왕은 곧 희적 스님을 불렀고, 스님에게 이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

"이것은 지자 대사에게서 나온 현묘한 법문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서 교적이 흩어지고 허물어진 까닭에 이 모든 글 가운데 많은 것이 해외에 있게 됐습니다."

이에 오월왕은 10명의 사신을 파견해 일본국에 가서 교전을 구해오게 했다. 그들이 돌아오자 왕은 이를 위해 절을 세우고 '정혜사'라 편액(編額)했다. 스님에게는 '정광법사'라는 법호를 하사했다. 이때부터 천태종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판화는 고려와 일본에 흩어져 있던 천태종 교적을 모아 중국의 천태종이 다시 흥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교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나계흥교(螺溪興教).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 한국불교박람회 (대구엑스코, 3월 18일부터 ~ 21일까지) 에 오시면 직접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지압·동 깔창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조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선칠 용맹 정진 안내
(7일 용맹정진)
◆ 결 제 : 2010년 3월 21일 오후 7시
◆ 해 제 : 2010년 3월 28일 사시
◆ 방부비용 : 15만원
◆ 입금계좌 : 1407-02-022380 농협
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묘실상선원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 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이 세상만사 돌아가는 게 다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과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참나'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워낙 미묘한 표현인지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음을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 마음의 정체를 꼭 집어내듯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것은 한 물체가 이렇게 (물컵을 가리키시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 물체가 움죽거리는 거는 공(空)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인(主人)은 마음이요, 마음을 내는 것은 공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죠. 이렇게 그냥 섰을 뿐이고 (찻숟가락을 세워 들어 보이시며) 이게 돌아갔을 때는 (찻숟가락을 돌려 보이시며)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배출함에 있어서 촬나촬나 돌아가는 거를 공이다 했으니까, 마음과 공한 것이 어떻게 둘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이라면 공은 바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과 돌아가는 것을 그냥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1(남): 세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들었을 때 꿈을 자주 꾼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이란 망상의 일종일 터인데, 그렇다면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은 잠자는 동안 번뇌 망상을 쉬고 순수한 마음자리에 드는 것인지요?

큰스님: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소쿠리를 하나 주웠다고 어느 노승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너는 초대를 받아서 오늘 음식을 잘 먹겠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야비하게, 또 딴 젊은이가 꿈도 꾸지 않았으면서 '내가 또 소쿠리를 하나 얻었다고 해 보자, 어떻게 나오나?' 그러고는 "저도 엊그저께 친구가 꿈꾼 것처럼 꿈속에서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휴, 너는 오늘 저녁에 매를 죽도록 맞겠구나" 이랬답니다. (대중 웃음) 그러니까 아, 그날 저녁에 정말 친구들하고 놀러갔다가 그냥 매를 직사하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분해서 죽겠거든요. 꿈도 안 꿨는데 왜 이렇게 맞느냐 이거죠, 이제.

그러고는 가서 항의를 했죠. "나는 꿈도 안 꾸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얘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게 꿈이니라. 생시나 꿈이나 다 꿈이니라. 그러니까 생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꿈이니까 꿈을 잘 꿔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야비하게 꿈을 꾸면 어떡하느냐? 하하하…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꿈을 꾼 것도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잘 굴리면 아주 흥감하는 수가 있을 텐데, 아주 이건 나쁜 꿈이라고 지적을 해 놓기 때문에 나쁘게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게 다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 자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요, 모두가 꿈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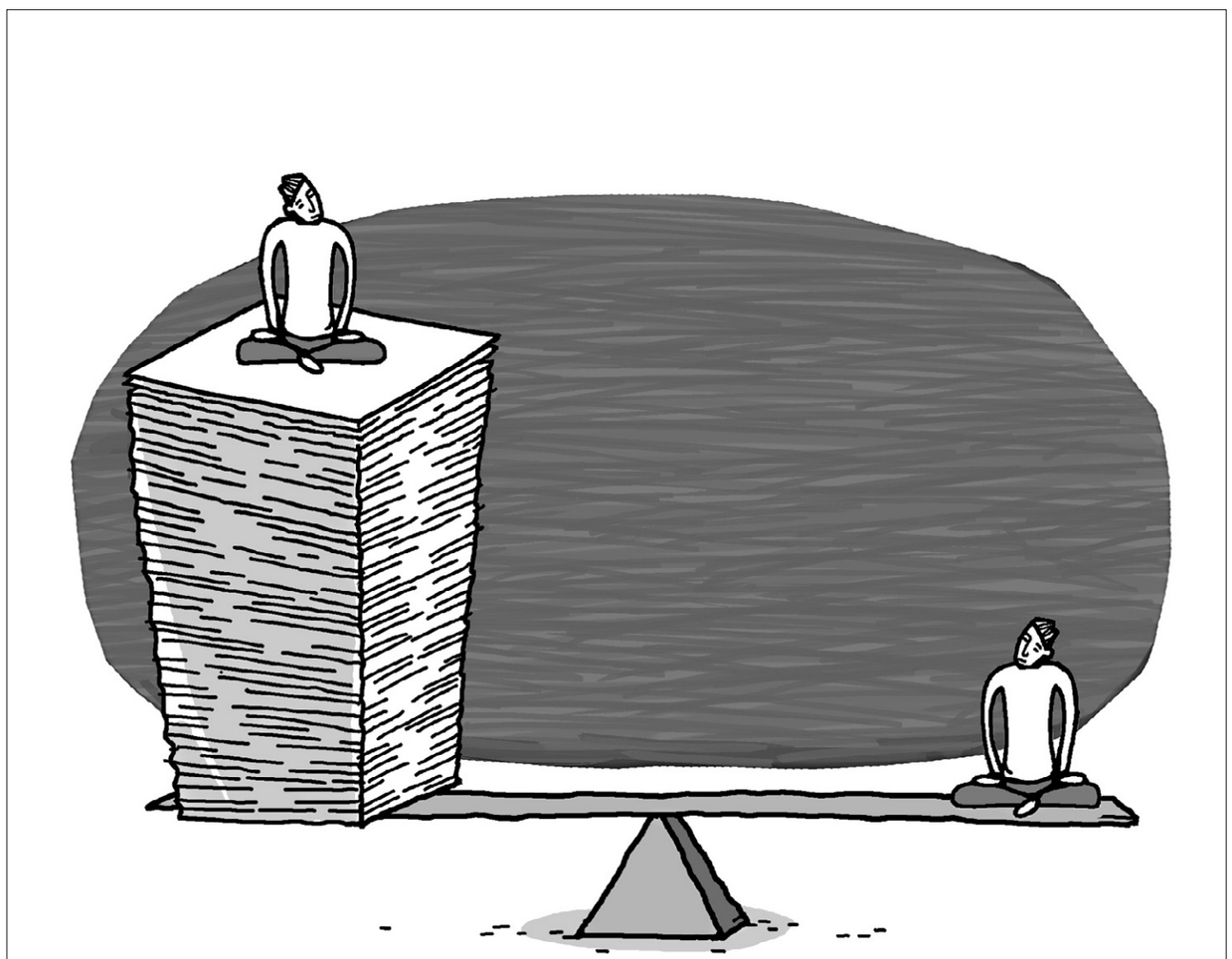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찬불가를 선법가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래를 할 때면 부처님을 숭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 신을 생각하듯이 부처님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부는 밖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과연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큰스님: 아니, 손을 폈다가 오그리고 오그렸다 펼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본래 부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처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하하하…. 그러니 모두 저 형상을 부처로 보지 마시고, 그때 그 시절에 난 분도 바로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러니 바꿔져서 돌아갈 때에 이걸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로 여러분이 부처요, 여러분이 중생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굴리고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서 부처도 생각나고, 조상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그냥 시시때때로 바꿔 가면서 생각이 나지 어찌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 한군데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 군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음 속에서,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는 하치 않은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뀌지는 겁니다. 바뀌지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한군데서 나오니까, 그것도 부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 개의치 마십시오.

질문자1(남):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동안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마음 법제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집에서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도 이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답을 큰스님께서는 다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경계에 걸렸다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유교식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는 지냅니다만, 어떤 때는 절을 두 번을 해야 옳은 건지, 유교식으로요, 아니면 세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세 번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을 해도 한자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걸림은 없는데, 혹시 방법론에 있어서 절을 세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두 번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한 번만 해도 되는지,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올립니다.

큰스님: 그것도 때와 환경에 따라서 절도 해야 하겠죠. 아주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하겠다 할 때는, 삼 배를 일 배로 올리고 가셔도 되고요, 또 빨리 안 나가도 되겠다 할 땐 그냥 삼 배를 올리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질문자1(남): 거기에 걸림 없이….

큰스님: 걸리지 마세요.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마음이 중요하지 이 몸체를 움죽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몸체가 움죽거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몸체가 움죽거리게 되니까요. 도둑질을 하러 가자 그러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하겠다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따라다니는 육체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체를 놀리는 거는 걱정 마시고요, 바쁘면 바쁜 대로 하시고 또 바쁘지

☞26면으로 계속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buddhanews.com

되고 안되는 것을 다 근본에다 놓고 걸림 없이 사세요

☞25면에서 계속

않걸랑 바쁘지 않은 대로 하시고 그러세요.

질문자1(남): 예. 오늘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형제 여러분이 한마음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우리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데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를 하면서 듣고, 느끼고 알고,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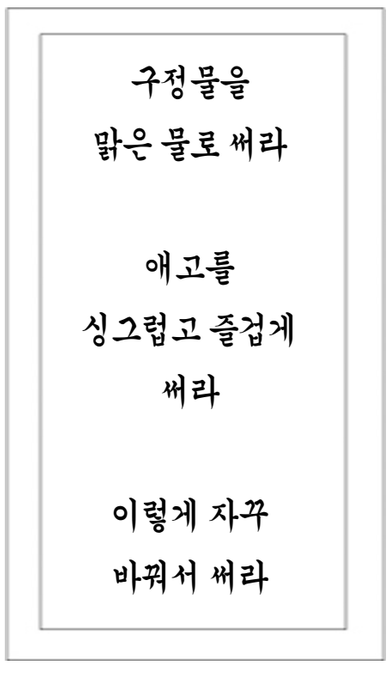
질문자2(남): 죄송합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천수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한 찰나에 부처님의 마음이요, 한 찰나를 몰라서 끊임없는 억겁에 끄달리네" 저는 이 뜻을 좀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큰스님: 하하하…. 여태 한 말 헛했군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한 찰나에…,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공에다가 맡기는 도리! 요렇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합시다. 주인공에다 맡겨 놓을 땐,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주 애고가 딱 닥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말갛게 청수처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이 딱 닥치자마자 '아하! 이것은 너밖에 해결할 수 없어' 하고선 거기다 딱 맡겼을 땐 맑은 물로 화한다는 얘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화해서 돌아가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정물을 맑은 물로 써라. 애고를 싱그럽고 즐겁게 써라 이렇게 자꾸 바꿔서 써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말씀 잘해 놓으셨어요?

질문자3(남): 이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항상 관(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저 자신에게 '요것도 주인공의 나툼이지' 하는 그 방법 한 가지 하고요, 그냥 일할 때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스님이 보시기에 제 근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은 방법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큰스님: 허허허…, 이거 보세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잊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로 알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생각이 나면 '그렇구나!' 그러고 뜻으로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시고요, 24시간 동안 그냥 생각이 안 나도, 시공을 초월해서 볼 때는 바로 내가 생각했을 때와 저녁에 가서 생각났을 때와 이게 맞먹는다는 얘기죠. 주름을 잡는단 얘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냐? 저녁이냐 아침이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축지법을 할 때에 여기서 저기까지 한 번 뛰었다 이럴 때는, 거기 디딘 자리와 여기서 발 떼어 놓은 자리가 둘이 아니란 얘깁니다. 그와 똑같단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음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건 지금 이 자리에 앉았어도 저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천 년 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삼천 년 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능히 익어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익지 않아서 생각날 때도 있고, 아주 익어서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아주 익지 못해서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익어 들어가는 건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면 '이것도 거기서 하는 거지' 하고 놓되, 또 생각이 안 나면 그대로 그냥…. 몇 주일이라도 생각 안 난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끊어뜨렸구나' 이런 걱정은 마세요. 하루 종일 생각 안 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없어요. 삼천 년 전하고 오늘하고도 둘이 아니니깐요.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달마 조사님, 감사합니다! 육조 선사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스님: 지금 요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달마니 혜가니 육조니 하는 분들은 우리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질서를 다 지키면서 마음을 해명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든 거지, 깨친 분들은 만 명이 깨쳐도 딱 하나입니다.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한자리, 하나! 그 하나도 공해서 없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했던 겁니다. 공부들 하시는데 그런 것도 끄달리면 안 되니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자4(남): 전 여쭤 볼 게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중 웃음)

큰스님: 하하하…. 아, 그러면 참, 좋군요! (고개를 두 번 끄덕이시며) 지금 물을 게 없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자5(남): 제가 옛날에 관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심이 좀 약해 가지고 자꾸 물러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세우는 걸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을 잡는 것 같으면서도 좀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영원한 나를 찾아서>라는 책을 보니까 '중심 아닌 중심을 관하고, 뿌리 아닌 뿌리를 관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어디 중심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중심을 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원래 잡을 것도 없고 원래 붙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장가 드셨죠?

질문자5(남): 안 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러면 형제들은 있고요? 부모도 계시고?

질문자5(남): 예!

큰스님: 그런데 아우들도 있죠?

질문자5(남): 예!

큰스님: 그러면 "형님!" 하고 부르면 내가 형님 노릇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질문자5(남): 그냥 하지요.

큰스님: 그냥 하지요?

질문자5(남): 예!

큰스님: 그냥 형님 노릇 하고, 아우 노릇 하고 또는 자식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고…, 이렇게 그냥 하시죠?

질문자5(남): 예!

큰스님: 그냥 해도 여여하게 그냥 되죠?

질문자5(남): 예, 예.

큰스님: 그대로예요.

질문자5(남): 아, 예!

큰스님: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그렇게. 그거를 내가 끊어뜨렸다 또는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이리로 기울어지더라. 또 이렇게 하니깐 안되더라. 이런 것도 다 하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되고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걸림이 없이 가세요.

질문자5(남): 아, 예! 그냥 하라는 말씀이시죠.

큰스님: 그냥 하세요.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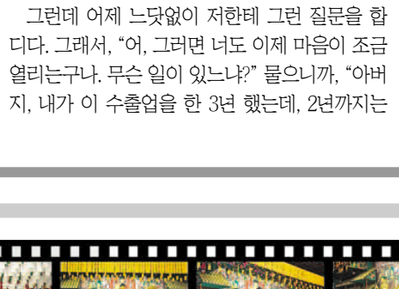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시계를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서너 분 더 하지요, 뭐….

사회자: 그럼 딱 세 분만 더 질문을 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큰스님: 하하하….

질문자6(남):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제 자식이 조그마한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한 12시경 돼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 이 마음을 남한테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 안사람하고 저하고는 선원에 한 2년 동안 계속 다녔지마는, 자식은 업무에 바빠 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고 하기 때문에 뜻은 가지고 있지만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라고 책을 사 줬더니, 자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줘도 실제 자기들이 안 다녀 보면 부모 뜻을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디다. 그래서, "어, 그러면 너도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는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니까, "아버지, 내가 이 수출업을 한 3년 했는데, 2년까지는 해만 끼치는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나를 시험하는지 모르지만, 저번 달과 이 달, 두 달 동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좋은 징조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오히려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또 무슨 얘기든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래서 "그거는 좋은 일이다. 네 그릇이 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소화를 시킬 거고, 네 그릇이 작으면 넘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물 흐르듯이 네가 처리를 해라. 물방울의 마지막 목표는 바다로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하는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대답해 놓고도 저도 오늘까지도 궁금했습니다.

큰스님: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중 박수)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잘되게끔 이끌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자꾸 그 주동자가 바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잘될 겁니다.

질문자7(남): 저는 우선 말을 좀 더듬는 게 문제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머리에 늘 소리가 나고, 눈이 막 어리어리하고 영…, 그러면 모든 일에 집중이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큰스님: 뭔 기도라든가 이런 것 하러 다니셨습니까?

질문자7(남): 안 다녔어요.

큰스님: 그러면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산기도나 그런 것 안 다니셨습니까?

질문자7(남): 예.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큰스님: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여튼 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질문자7(남):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이 도리를 공부하게 되면 병 붙을 자리는 없으니까요.

질문자7(남):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이 도리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앞에는 업보가 붙고, 유전성이 붙고, 영계성, 세균성…, 모든 게 다 붙습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런 게 붙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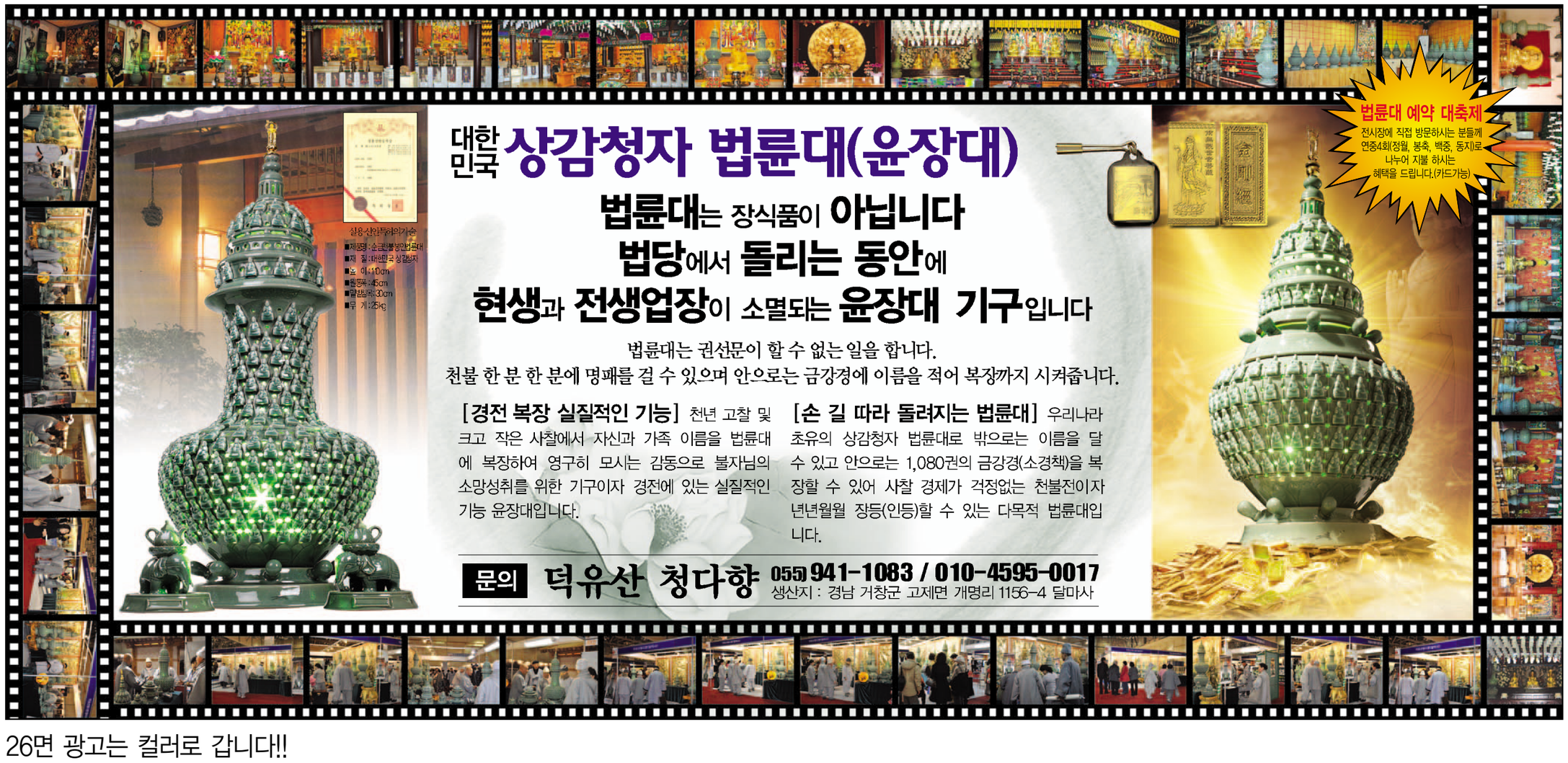
질문자7(남): 예, 알겠습니다.

큰스님: 모두 몸속에 있는 자생중생을 작용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질문자7(남):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큰스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3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6면 광고는 컬러로 갑니다!!



불자 세상보기

신승철
시인 · 정신과전문의

인공 임신중절 문제와 철학적 반성

요즘 인공 임신 중절(낙태) 문제로 논란이 많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부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상황 외에,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 선택의 낙태가 만연해 있는 풍조다.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다. 논란의 발단이 일부에선 정부의 노령화 사회 대비 낙태를 엄격히 제한해 출산 장려의 의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낙태 현장을 몸소 겪던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적 갈등이 큰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듯싶다. 낙태 제한으로 출산 장려를 유도 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과 그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까지 낙태의 윤리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다. 성교육이나 피임 방법이 부족했던 사회 환경 탓이 크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경제 문제가 맞물려, 피임의 장려가 낙태의 양산을 부추긴 영향도 컸으리라. 남아 선호에 대한 집착으로 타의 반, 자의 반 기혼 여성들은 낙태를 해야만 했던 사정도 있다. 성개방의 급물살을 타고 미혼 여성의 원치 않은 임신이 늘어나, 의사와 임신 여성 양쪽 모두 자유 선택의 낙태가 이제까지 별 부끄럼도 없이 이루어지곤 했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떤가. 가톨릭이 국교(國敎)인 남미의 대부분 나라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낙태 관련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국제적 통용의 모범 답안은 없어 보인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 여성의 신체 주권이나 개인의 자유 의지, 생명에 대한 자각이나 의식의 정도가 큰 사회적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서 나라마다 그 사회 · 문화적 여건에 따라, 낙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종교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낙태의 허용 기준이나, 낙태 허용 임신 기간이 짧다는 것이 대체적인 특징이다. 세분하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그 기간의 임신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권도 존중해 준다. 의사의 양심도 존중해 주는 분위기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나. 그간의 무분별한 낙태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낙태 관련 죄의식이 빈약했던 우리의 생명 의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알다시피 태아도 감각과 의식이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은 진즉에 밝혀져 있다. 낙태 여성 대부분이 낙태 경험 뒤, 정신적 외상(外傷)으로 자책과 후회의 감정으로 여러 유형의 정신 질환을 앓는다는 지적이다.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도 이러한 추이는 명확하게 부합된다.

낙태 여성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이 부족한 탓도 큰 문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추상적인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한다고 해도 뚜렷한 변화가 올 것 같진 않다. 선진국의 경우, 법제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여성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강조했다는 의미가 엿보인다. 낙태 문제를 선악 시비로만 따져서는 현실적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 생명에 대한 각성된 진화된 의식은, '임신 중절은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미국의 저명 정신과 의사인 스캇 펙 박사가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가 낙태에 관한 '죄의식'을 함께 떠맡으려는 공동체 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면, 불가피하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양육 보조, 사회적 · 정신적 복지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적지 않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다. 물론 이제부터라도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메뉴의 성교육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생명 존중 의식은 이 같은 교육이나 법률의 개선, 정책의 변화로도 상당 제고되리라 본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거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여건들이 조성된 후, 임신 여성들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권고함이 나을 듯 싶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최고, 낙태율 최고인 우리나라다. 생명 경시 경향이 많다는 사회적 지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젠 우리 사회가 책임감 있게 스스로 이 문제를 묻고, 답해야 될 때다. 물론 그 답은 일반윤리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 드러나 있다.

사부대중 칼럼



석길암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공존을 위협하는 망언을 경계한다

어떤 사람은 컵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을 먹고서 행복해한다. 어떤 사람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서 스테이크를 썰고도 불만스러워 한다.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 옷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색깔이 알록달록 뒤섞인 옷을 좋아한다. 게다가 그것마저 시시때때로 뒤바뀐다. 선택 가능하다면, 사람들은 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에는 그 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꽤나 종교적이라고들 한다. 나도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종교적이라는 말에는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종교란 것은 인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는 주는 것이라고 늘 배워왔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흔히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 바깥의 혹은 우리 안의 세상에서 자주 목격되는 종교적 폭력, 심하게는 종교전쟁 같은 것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종교적 폭력은 종교 본연의 목적인 삶의 평화와 행복 추구에 심각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전혀 종교인답지 못한 행위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버젓이 정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행된다. 그런 폭력을 자행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내가 정의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라크를 공격했던 부시가 그러했고,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했던 테러리스트들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정의와 정의가 부딪친 현장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참담함과 불행만을 남길 뿐이다.

최근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일부 목사들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다. '이것만이' 정의라며 서슴없이 다른 종교인들의 평화로운(?) 가슴살을 난도질한다. 그 폭언의 칼질에는 상대방이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어떤 증오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섬뜩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나는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원리주의가 딱히 나쁘게 나타났던 것만은 아니지만, 그 원리주의가 일으키는 폐해를 역사적 사례에서 적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 역사에서의 종교전쟁들은 실은 다 그런 원리주의의 산물이다. 이게 근본이니까, 근본에 위배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순식간에 수십 수백만이 몰살되는 전쟁으로 연결된다.

정답은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다. 정답 이외의 다른 답은 몽땅 틀린 답일 수밖에 없다. 원리주의는 내가 믿는 이 정답만을 강요한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은 자신이 정답만을 말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몇몇 목사님들의 '정의의 폭언'은 그 오류에 근거한 것이다.

그 목사님들한테 묻고 싶다. 당신은 일 년 내내 항상 흰 옷 하나만을 입고, 하루 세 끼 가리지 않고 스테이크만 드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겠지요. 가끔은 떡볶이에 오뎅국물도 드시고, 가끔은 형형색색의 잠옷도 근사하게 입으시겠지요. 당신이 때마다 같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색깔을 옷을 고집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종교는 서양의 중세시대에서와 같이 더 이상 유일한 옵션이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조차 다양한 옵션이 가능한 게 오늘날의 한국사회입니다. 성직자만이 득세했던 중세시대로 당신의 성도들을 이끌려는 게 아니라면 제발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으실런지요?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함께 하는 많은 모임과 자리들이 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처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을 비방하는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모임에서 첫 번째로 행해지는 일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름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첫 번째 요건이 충당되기 때문이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님들의 다르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언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속가능한 공존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반드시 주시하고 경계해야만 할 심각한 위협이다.

사 설

법정 스님은 다시 오신다

큰 스승 법정스님이 끝내 먼 길을 가셨다. 아쉽고 허전하다. 법문 원고를 작성해 와선 또박또박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연민 가득하고 맑은 눈으로 해주시던 말씀을 다시는 들을 수 없다. 슬프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스님의 가르침은 큰 위안이었고 싱그러운 에너지였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어찌나 단출한지 숙연하다. 분향소엔 영정과 촛불 한 자루, 향로만이 놓여 있다. 위패엔 '비구 법정'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종사도 아니고, 당호도 걸치지 않았다. 그냥 출가 수행자인 비구일 뿐이다. 생전에 보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

길상사에서 송광사 다비장으로 가는 길에는 꽃도 상여도 없었다. 나무로 짠 평상 위에 평소 입었던 승복을 입고 가사를 덮은 채 반듯하게 누워 계셨다.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지수화풍으로 스며들어 이승의 자취를 말끔히 지웠다. 공(空)이다. 텅 비어서 공이고, 꽉 차서 공이다.

법정 스님은 40여 년 전인 71년 유서를 남겼다. 그해 여성동아 3월호에 실은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인데, 지금 읽어보니 스님을 다시 뵙는 것 같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게 방해되지 않을 곳이라면 아무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나는 절대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법정 스님 다비준비위원회가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관을 짜지도 않은 이유이다. 무소유가 무엇인지, 맑고 향기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글과 말로써 대중들에게 당부했는데, 그 가르침을 마지막 가는 길에 저리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두 손이 모아지고 허리가 숙여진다.

이생에 인연지어 78년을 부렸던 법정 스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법정 스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내 생에도 다시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출가 수행자가 되어 금생에 못 다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했다.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 법정 스님 같은 큰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 희망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이 떠난 빈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메워지지 않는다. 무소유를 실천하며 맑고 향기롭게 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법정 스님이 오신들 세상살이는 따뜻해지지 않는다.

법정 스님은 입적 하루 전 상좌들에게 "어디서든지 내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어찌 상좌들만이 아로새길 가르침이겠는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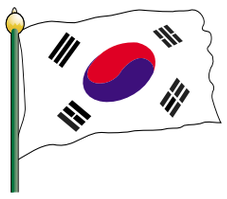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걸흔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劍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역술무속인들도 숨겨놓고 본다.
천기가 누설된다고 하여 나라에서 금기시켰던 자미두수! 앉아서도 십리를 알 수 있는 고산의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알려 주는 것은 물론 당신을 귀신도 곡하는 신통한 점술가로 만들어 준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희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천과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엄창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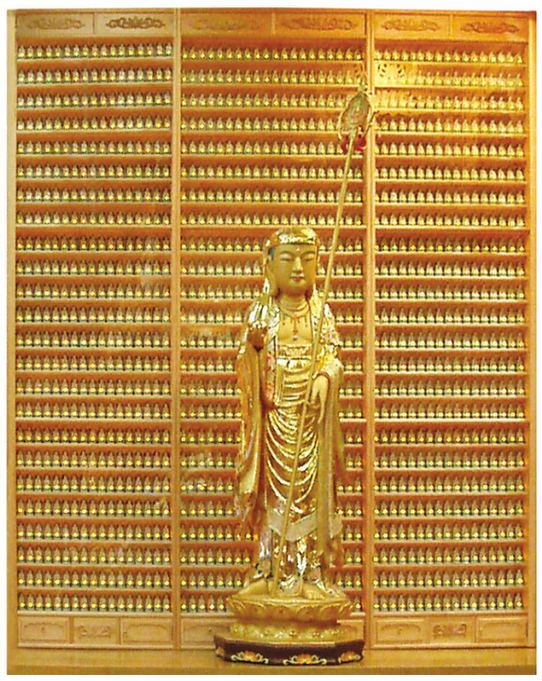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칼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